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4월 5일(음력 3월 8일) 수요일 (주간) 제 572 호

신도시엔 사찰없다?

판교, 교회 17 · 성당 1곳 · '사찰 1곳 협의중'
개발이전 용지확보 · 종단차원 요구 등 대응 절실

3월 29일 주택청약이 시작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판교신도시. 수용인구 9만명에 달하는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사찰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신도시내 종교용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주거편익시설로 분류되는 종교시설용지는 총 19곳이 배정됐다.

종교시설용지의 우선 계약자로 선정된 곳은 교회가 17곳, 성당이 1곳이며, 사찰에 불하될 용지는 삼평동에 자리 잡은 영운정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와 현재의 위치에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공급의 원인은 그동안 판교지역에 터를 잡고 선교활동을 펼친 개척교회와 성당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총 1만2645평에 달하는 판교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올 11월께 수의계약 형태로 이들 시설에 우선 분양될 계획이다. 그렇다고 판교신도시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계약자로 선정된 교회와 성당의 분양권을 웃돈을 얹어주고 매입할 수 있다. 최소 216평에서 최대 2400여평의 매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선 계약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에게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용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외부 종교단체의 요구를 감안해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종교시설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확보는 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경우처럼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불교계는 사찰용지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낙후지역 또는 취약지역에 대한 포교를 등한시하는 불교계의 풍토와 개발계획이 이미 입안되고 난 뒤 종교시설용지 확보에 나서는 불교계의 '뒷북' 대응이 나은 결과다. 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종교시설용지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를 외부 종교단체에 불하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주택분양을 시작한 판교신도시는 일례에 불과하다.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 화성(종교시설용지 분양중), 아산을 비롯해 개발을 앞두고 있는 송파, 대전, 수원, 송도, 양주, 파주 등도 판교신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서울 신내동 개발 당시 어렵게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한 바 있는 법장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이미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분양권이 없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며 "사찰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종단 차원에서 종교시설용지를 지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태종 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 임명

종정 도용 스님 지명, 정기종의회서 인준 … 9일 취임법회

천태종 종의회 의장 정산 스님(사진)이 대한불교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으로 임명됐다.

천태종은 3월 27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제76차 정기종의회를 열어 종정 도용 스님이 지명한 정산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3월 1일 운덕 총무원장 스님의 사퇴이후 춘광 직무대행 스님 체제로 운영돼 오던 천태종이 한달여만에 새 총무원장을 임명하며 종무행정 수반의 공백을 발빠르게 채웠다.



1971년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대조사를 은사로 득도한 정산 스님은 재무부장과 사회부장, 부원장 등 천태종 총무원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으며 감사원장과 종의회부의장 등도 지냈다.

또 종의회 의장에는 도정 스님이, 감사원장에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온 춘광 스님(관문사 주지)이 각각 맡게 됐다.

제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취임식은 4월 9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청정운동 출발!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3월 29일 조계사에서 '불자다운 삶을 위해 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자'는 청정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청정운동추진위원회는 올해 대구(3~4월), 부산(5~6월), 광주(7~8월), 전북(9~10월), 서울(11~12월)에서 전국 순회법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전 충남(3~4월), 충북(5~6월), 강원(7~8월), 인천 경기(9~10월), 제주(11~12월)에서 순회법회를 열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해인사 대장경판 '세계 기록유산' 신청

문화재청, "동북아 역사 담은 기록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과 '조선왕조 의궤'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 신청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초기 목판 제작술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은 고려시대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8만7000여장의 경판들로 동북아시아의 정치, 문화, 사상의 흐름과 면모를 엿볼수 있는 역사 기록물이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대장경판의 보관시설과 역사적 기록물이 모두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게 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日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종단협, 대표단 파견 … 일본 불교계 '난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스님, 이하 종단협)는 3월 30일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해 일본 불교계 대표들과 한국인 징용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대표단은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 ·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일본쪽에서는 한중일 국제교류협의회 소속 회원중 각 종단을 대표하는 10여 스님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하지만 일본 불교계는 그동안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보여 왔다. 한국인 희생자의 유골확인 및 봉환이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다 약 80개에 이르는 일본 불교 종단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일 기자

월정사 수행학림 동참 (033)332-6661~5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불교광고? ad.buddhapia.com 을 클릭하세요

불교계 최초로 온라인 광고 사이트가 개설돼 화제다.

불교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는 최근 광고와 불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애드부다피아(http://ad.buddhapia.com)를 오픈했다.

애드부다피아는 일반적으로 불교계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발행주기에 따라 적게는 3일, 많게는 2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실시간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요한 행사나 법회를 알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오래동안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또한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와 부다피아(www.buddhapia.com)와의 연계를 통해 이미지는 물론 역동적인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2004-8213~7

김두식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마포 FM 홍성기 할아버지

시방세계 9면
3만배기도 정진현장

아프리카에도 불교있다 16면
월정사 수행학림 18~19면
김백봉 교수 헌정무대 23면
전국 차축제 안내 26면







이왕 세상에 나왔으니, 한바탕 멋들어지게 살아라!
수행자의 틀에 갇히지 않고 거침없이 도를 굴린 대자유인 경봉 큰스님 이야기

야반삼경에 촛불 춥을 추어라
경봉 큰스님 이야기

정찬주 장편소설
전 2권 | 각권 값 9,500원

사바세계를 무대 삼아 한판 신나게 놀아보는 연극이 바로 우리 삶이다!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수행자의 극점에 도달한 경봉 스님이 몸소 실천한 멋들어지게 사는 삶!
"그대들도 불법을 일게 되면 참으로 멋들어지게 살 수 있지" 하고 구수하게 법문을 하다가 지루할 만하면 장을 했던 경봉 스님은 언제 어디서건 거침없는 대자유인이었다. 가을걷이 때는 일꾼들이 논에서 돌려와 자리를 뜨지 않아 주인이 달래와 "일꾼들이 스님 얘기를 다 듣다가는 추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통사정을 할 정도였다. 겨울 내내 인연에 얽매임을 놓고 수행하다가 입산이다 멍가지고, 출옥을 못기 위해 꾀를 짜던 채로 작선하는 등 민간 정신의 극점을 넘어선 초월한 수행 끝에, 문 없는 문(無門關)에 든 경봉 스님이 제시하는 까칠은 길!
* 노사를 시봉했던 상좌로써, 경봉 스님의 진면목이 굴절되거나 왜곡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정찬주 씨는 경봉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일화를 토대로 스님이 옆에 계신 듯 생생하게 환생시켜 주었다. |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

조계종 포교정책 연찬회 '불교 영상포교…'

대중매체 활용에 포교 사활 걸렸다

"현대 종교의 발전 여부는 포교에 있고, 현대사회에서 포교는 대중매체인 방송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재일 사단법인 보리 이사장 겸 보리방송모니터회장은 3월 28일 열린 불기 2550년 제1차 포교종책연찬회 '불교 영상포교의 현실과 전망'에서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일 이사장은 '방송에 비친 불교와 방송을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불교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불교 소재 드라마 극본 및 교양물 기획안 공모사업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시청자나 시민단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해 만든 프로그램) 제작참여 △종단 산하 독립제작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프로그램 제작 · 공모 사업 필요
방송계에 불교 제대로 알려야
시나리오작가 연수원 만들자

간접 참여 방안으로는 △불교 미디어센터 설립 △불교 관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송인 워크숍 등을 꼽았다.

특히 불교미디어센터 설립과 관련 김 이사장은 "사부대중을 위한 미디어교육, 전문 모니터 양성, 왜곡과 편파 감시 등 '포교-미디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미디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종단에서는 재정지원과 감독만 하고 전문인을 대표로 영입해야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방송작가 윤청광씨는 "불교계에서 더 많은 기획자, 프로듀서, 감독, 작가들에게 아이디어와 자료, 편의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찬회에서 우봉규 극작가는 '한국영화 속의 불교, 그 미래와 방향 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잘 된 시나리오 잘 만든 영화 한 편은 수 만 명의 부루나 존자를 양성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나리오 작가 연수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우봉규씨는 또 "조계사 안국동에 불교 극장과 극단이 있어 1년 365일을 끊임없이 연극을 올릴 수 있는 '종립 극단 창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봉규씨는 이 외에도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계사같은 도심사찰내에 사랑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지침서인 일종의 '불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경내지 500m안 '음식점' NO!

문광부 전사법시행령 개정안 공고…보존지역범위 등 규정

앞으로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개정 · 공포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홈페이지(www.mct.go.kr)를 통해 공고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계종 총무원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었다. 이번에 공고된 시행령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지역 범위 △역사문화보존구역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해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수행환경을 해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또 도로와 철도 건설, 건물의 건축 또는 신축, 토지 형질변경,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은 사전심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반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 · 도지사가 운영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총 9인 위원회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반드시 불교문화 · 전통사찰 등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사찰 또는 사찰의 주지를 포함한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교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불교계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수행환경보존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불교계가 노력해온 성과임을 분명히 했다. 시행령은 앞으로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4월 12일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와 법체처 등의 심의를 통해 6월 전후 공포될 전망이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총무원이 주도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행령이 건교부나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규제개혁위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4월 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서 불교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원불교도 군종장교 파견

국방부 심사위서 결정, 군내 신자 535명

원불교도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군종장교의 정원과 배치 등의 문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월 24일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의 기준을 국민 전체 신자수 0.2%(약 8만명)이상, 군내 신자수 0.1%(약 5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기준으로 군내 신자가 535명인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의 기준이 군내 신자 2만명 이상이었으나 이같은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원불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등에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하는데 있어 군내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종장교는 개신교 273명, 불교 141명, 천주교 79명 등 493명이며 이를 군내 종교인수로 나누어보면 군종장교 1명당 평균 1300명의 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한다 해도 1명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군종장교 4명 임관, 논산 훈련소 배치 등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는 "군종장교 선발 인원이나 배치 등은 군내 신자수를 고려하고 있어 원불교도 군 편재의 기준에 따라 군종장교 정원을 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3월27일자로 취임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오른쪽부터 지관 스님, 김명곤 장관, 김장실 종무실장.

"독도에 암자 세우자"

지관 스님, 김명곤 장관에 제안… "훌륭한 아이디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29일 신임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독도에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암자를 짓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배석한 김장실 종무실장은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면서 문화재청 등 정부 내 수많은 부처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지관 스님은 또 종단이 추진중인 템플스테이 사업과, 전통문화원형콘텐츠화에 대한 문화관광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으며, 김 장관도 국가적으로도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3월 28일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았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北에 휠체어 360대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3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상차식을 가졌다. 시가 1억원 상당의 휠체어 360대는 총 6000여만 원의 모금과 휠체어 제작업체 (주)대성(대표 김현준)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이 휠체어들은 4월 5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올 부처님오신날 사면 없다

조계종 호법부장 도진스님 밝혀, '열린 호법행정' 의지 피력

조계종이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춰 시행하려 했던 사면정례화가 올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제170회 중앙종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은 호법부장 도진 스님은 3월 29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나 "종정스님의 권한인 사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심사 접수자 중 적정한 수준의 대상자를 찾기 어려웠고, 시일이 촉박해 종회동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올해 첫 정기사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방침에 따라 이후에라도 징계자의 사면 · 경감 · 복권 정례화는 착실히 준비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990년 이후 징계를 받은 스님 중 사면대상자는 150여명. 이 가운데 10여명 사면을 신청했지만 사면 기준에 충족하는 스님은 단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은 2월 21일 '징계자 사면 · 경감 · 복권의 정례화 시행 종책을 공고하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시행될 사면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았었다.

도진 스님은 "열린 호법 행정과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모든 업무처리의 기본으로 삼겠다"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종무원칙에 따라 호법부는 상처를 무조건 도려내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고, 덕(德)으로써 잘 치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달라진 호법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CBS 경인방송인수 반대 종단협 성명 발표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해 27개 불교 종단의 협의체인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스님, 이하 종단협)가 기독교방송(CBS)의 경인민방 진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종단협은 3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공정한 선정 방침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방송인 기독교방송에 사업권을 허가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될 종교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종단협은 "기존 종교방송들은 이미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독자적인 선교와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공공재라 할 수 있는 공중파 TV 민영방송까지 종교방송 단체가 운영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마저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방장 후보 사퇴한 적 없다" 통도사 초우 스님 성명

통도사 방장 추대를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우 스님이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후보를 사퇴할 의향이 있었으면 방장 후보로 추천한 총림대중에게 사퇴사실을 먼저 알렸을 것"이라며 "영축총림방장 후보 사퇴 보도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 ·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영축총림비상대책위는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4월 24일 산중총회에서 초우 스님의 거취와 차기 방장 후보 추대를 위한 대중공의를 모을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1. 일 시 : 불기 2550(2006)년 4월 23일(음 3.26) ~ 24일(음 3.27) 2일간

4월 23일	4월 24일
◇오후 3시 : 보살계 입재식 ◇오후 7시 : 보살계 법문 ◇오후 8시 : 전국 불일회 및 21교구 신도회 총회 ◇오후 10시 : 철야정진	◇새벽 3시 : 새벽예불 ◇새벽 4시 : 보살계 법문 ◇오전 7시 : 보살계 법문 ◇오전 9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 의식 ◇오전 11시 : 보조국사 종재 ◇오전 11시 30분 : 영가천도재

2. 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9 / FAX 061)755-0408

3. 동 참 금 :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 · 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1623 우체국 (예금주 : 송광사)
615107-51-019966 농 협 (예금주 : 송광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중국서 대규모 세계불교포럼

4월13~16일 '세계 화합은 마음에서…' 주제로
한국지도자 40명 등 50여국 2000명 참가 예정

세계 50여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중국에 모여 '세계 화합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를 주제로 세계불교포럼을 연다.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저우산(舟山)과 항저우(杭州)일대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불교포럼'은 '중국불교협회'와 '종교와 문화교환을 위한 중국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세계 50여 개국 2천여명의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주관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20여 종단 불교지도자 4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은 "이번 행사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그동안 억압적이었던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세계적인 불교행사"라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후진타오 국가주석 취임 이후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고 다양성을 갖게 될 때 균형 잡힌 사회가 건설된다'는 캠페인을 줄곧 전개해왔다. 그러나 유독 종교에 대해서는 통제가 많아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불교포럼은 중국 내 종교 자유 특히 불교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행사 실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4월 13일 항저우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세계불교도들의 화합, 불교의 사회적 책임, 평화적 사명 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공개토론 중심으로 마련된다.

포럼 이틀째인 14일에는 분과토론, 사찰참배, 각국의 불교대표자들이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친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15일에는 저우산으로 자리를 옮겨 '끝없는 마음의 등불이 밤을 밝힌다'를 주제로 한 연등 행사와 세계평화기도 행사가 열리며, 16일에 폐막식을 갖는다.

이번 행사 기간중 한국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이 축사를 한다. 또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태고종 교무부장 법안, 천태종 교육부장 용암 스님 등이 '불교의 평화적 사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도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과 총지종 수석연구원 화령 정사가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연설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제도적 살인, 사형제 폐지하라"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명운동 전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4일 국회 법사위 주최 공청회에 앞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과 관련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사형제를 고집하는 것은 교정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며 "살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속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불교운동본부(대표 진관)도 3월 30일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불교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는 "사형제도가 존속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이 나서서 살인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는 앞으로 서명운동 전개, 국회 법사위에 사형제도 폐지 촉구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참여불교 교단자정 센터
현법 스님 자격심사 요청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3월 30일 현법 스님의 자격심사를 요청하는 심판청구서를 조계종 중앙종회 법규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회에 접수시켰다.

교단자정센터는 청구이유에 대해 "현법 스님은 종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을 확정공고한 것은 명백히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2차 회의에서 현법 스님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한 사항과 153차 회의에서 당선을 확정공고한 사항에 대해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전국 전통사찰·숲 생태
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3년째 전국의 전통사찰과 숲을 돌며 생태를 모니터링해온 맑고향기룹게 전통생태모임이 2005년의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자료집을 펴냈다.

자료집에는 안성 석남사, 김천 청암사 등 10개 사찰의 생태모니터링 결과가 실렸다. **박봉영 기자**

北 국보급 문화재
6월 南서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이 올 6월 '북한 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북한 조선중앙력사박물관(관장 김송현)과 함께 남북 박물관 간의 첫 번째 교류 사업으로 이번 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고 3월 24일 발표했다.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 90여점이 출품될 예정인 이번 특별전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북한 문화재가 처음으로 함께 전시된다.



전시될 문화재는 '불일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탑' '관음사 관음보살좌상(사진)' '신계사 향완' 등의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 '고려 태조 왕건 청동상' '발해 치미' '심사정 화조도' '김홍도 신선도' '정선 옹천파도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악기(樂器) '서포항 출토 뼈피리' 등이다.

전시될 작품 대부분은 광복 후 남한에서 한번도 공개 되지 않은 국보급 문화재들이다. 일부 작품은 사진으로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전시 문화재는 5월경 북측에서 남측으로 인계되며, 한 달 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 6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이어 8~10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전시된다.

강지연 기자



3월30일 보물로 지정 예고된 양산 통도사 삼층석탑.

통도사 삼층석탑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3월 30일 경남 양산 통도사 삼층석탑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높이 3.9m, 기단폭 1.8m의 통도사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일반형 삼층석탑으로 일부 균열 또는 멸실 부분이 있으나 상륜부를 제외하고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층 기단의 각 면에 우주와 탱주를 생략하고 안상을 조각했고 옥개석의 양식으로 전각의 경쾌한 반전과 낙수홈이 있다는 것이 통도사 삼층석탑의 가장 큰 특징.

이같은 특징은 전체적인 규모와 양식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9세기 후반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30일 동안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서산마애삼존불상
보호각 벽 헐어

서산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의 보호각 벽을 허물었다고 3월 27일 밝혔다. 다만 전각 지붕과 기둥은 빗물을 막으려고 그대로 남겨놓았다고 부연했다.

1965년 설치된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보호각은 불상 주위에 습기를 차게 해 그동안 보호각을 개방한 뒤 통풍과 자연채광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호각의 벽을 허물면서 채광이 불완전하게 이뤄져 '백제의 미소'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문 보호각 벽 사이로 서산마애삼존불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부족한 채광은 추후에 보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동국대-서울대 학술교류
상호 학점인정 등 협정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서울대와 학술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3월 27일 신라호텔에서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 △교직원 상호교류 상호 이용 △국제협력사업 공동 수행 등 교육·연구·사회봉사 분야 전반에 걸쳐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측은 "불교를 비롯한 동양학과 인문학분야에서 독특한 학문적 전통과 역량을 쌓아온 동국대와 서울대의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타 학문분야에도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양교간 실질적인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법난진상규명위의 슬픈 자화상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이하 법난진상규명위)가 1기 활동을 마감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한 1기 법난진상규명위는 당초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법난에 대한 자료수집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시급한 피해자 조사와 피해접수가 겨우 7건에 불과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정부측 자료 확보 실적이 거의 없었다.

1기 법난진상규명위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실무진의 적극성 부족으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했고, 군 과거사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한계를 인정했다. 1기의 마지막 회의가 된 3차회의마저 마감시점인 2월을 넘겨 3월 28일 열린 것도 1기 법난진상규명위의 슬픈 자화상의 한 단면이다. 이날 법난진상규명위는 2기 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는 7월부터 10·27법난을 포함한 군 과거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불교계는 진실규명은 커녕 2기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27 진상규명 누구를 위한 일인가?

■박봉영(취재부 기자)

영산재 전수 조교기념 공연
4월 11일 중앙박물관 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정 기념 공연을 4월 11일 오후 4시·7시 30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장엄미를 펼친다.

지난해 11월 구해 스님이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동주(범패)·동희(법무)·경암 스님(장엄)이 각각 전수교육조교가 된 것을 기념하는 공연이다. 011-520-7403 **강지연 기자**

성 명 서

지난 3월 9일 교계언론에서 영축총림 방장후보자가 "방장 후보 사퇴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였다" 고 보도하였고,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은 "대중공의를 모아 다시 방장을 추대하겠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 납은 영축총림 방장후보를 사퇴한 사실이 없다. 3월 7일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에게 총무원장 스님께 전하라고 한 글은, 교계신문에 회자된 바와 같이 당시의 심경과 소회를 적은 것이지, 방장후보 사퇴의사 표명이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글에는 사퇴서라는 제목도 사퇴내용도 없다. 중앙종무기관과 언론사에서 누군가가 그 글의 내용을 왜곡 또는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후보사퇴를 발표한 중앙종무기관 관계자가, 본 납 또는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스님에게 사퇴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하나,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스님을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온 관계자는 오늘까지 아무도 없었다. 또한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이나 통도사 종무소 7직도, 방장후보사퇴와 같은 중요사실이 언론에 왜곡 보도되었으면, 사실 확인을 통해 중앙종무기관과 언론사에 바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3월 10일 본 납이, 후보사퇴 정정 보도를 위해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을 찾았으나, 주지직무대행은 방장후보 사퇴 사실이 언론에 발표된 직후부터 그 행선지와 행적을 알 수 없었고, 통도사 종무소마저 그 막중한 소임을 방기하였던 것이다. 본 납은 방장후보 이전에 총림원로이자 부방장(수좌)이다. 후보를 사퇴할 의향이 있었으면, 방장후보로 추천한 총림대중에게 사퇴사실을 먼저 알렸을 것이고, 방장후보로서 총림 중요 현안을 논의한 후, 거취를 정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영축총림방장 후보사퇴 보도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었고, 조작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축총림 방장후보사퇴 조작은, 제방총림 방장과 원로스님들에게 작금의 종단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04년 4월 총림설치법이 총림법으로 개정·공포되면서 안거가 방장자격 기준으로 정해졌고, 현재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특위에서는, 종헌이 규정한 방장의 총림주지 추천권을 산중총회에서 선출토록 개정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과 영축총림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사퇴 발표에 대한 일체의 의혹과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종법과 총림의 호계절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길 바라며, 본 납도 금번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영축총림 산중회의에서 총림방장후보의 거취를 정할 것을 천명한다.

불기2550(2006)년 3월 28일

영축총림 통 도 사 草 字 합장

문화 마인드 부재 … 공연장 활용 '낙제점'

불교계 공연장 활용도 몇 점?

불교계 공연장,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제점'이다. '문화포교'가 21세기 포교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연을 통한 폭발적인 포교효과를 감안했을 때 부끄러운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공연을 통한 선교활동에 전력투구하며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이때 불교계가 더 분발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교계 공연장 운영과 활용도가 형편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불교계의 부실한 '문화 마인드'로 귀결된다. 전문가들은 "불교계도 이제 이웃종교와 마찬가지로 예술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한다. 불교계의 공연장 운영과 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해 봤다.


서울 명동의 '문화공연 1번지'로 자리매김한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이탈리아 출신 소프라노 클라우딘 안세벳과 뉴트 연주가 파울로 게리츠가 공연하는 모습. 사진제공=평화신문

명동성당 꼬스트홀

기획 · 홍보 · 관리 평화방송서 전담

월 15~20여 차례 다양한 공연 유치

VS

불교계 공연장

기획 · 홍보 부족 '행사'에 주로 사용

좋은 시설 갖추고도 제구실 못해

한 발 앞선 명동성당의 '꼬스트홀'

3월 24일 저녁 7시 명동성당 꼬스트홀.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란히 앉아 시인들의 시낭송과 가수 장사익, 정태춘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다. 성당에서 웬 공연을 하는 걸까?

꼬스트홀은 '신앙의 공간으로서의 성당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신도들과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총면적 180평, 460석 규모로 5년 전 명동성당 내 문화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연장이다.

이곳은 한 달에 약 15~20여 회의 공연을 유치하고 있으며 음악회, 연극, 대중가수 콘서트 등 장르도 다양하다. 공연이 주로 주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꼬스트홀은 1년 내내 명동성당을 문화공연의 산실로 이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꼬스트홀이 명동성당을 '문화공연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뭘까.

그것은 바로 전문 공연 기획 · 홍보 인력이다. 공연장의 소유와 관리는 명동성당에 있지만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평화방송(PBC) 기획관리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공연에 필요한 음향 및 조명, 소품, 무대감독 등은 현직 평화방송 엔지니어팀이 맡고 있으며 기획과 홍보 또한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평화방송과 각종 공연 기획사들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공연유치와 홍보에 큰 몫을 담당한다.

평화방송 오민석 기획관리부 차장은 "공연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홍보전략 또한 중요하다"며 "평화방송 홈페이지에 꼬스트홀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놓고 공연장의 모든 정보와 대관일정과 계약에 관한 것을 인터넷 상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신교에서도 '예술경영' 기법을 적극 도입해 교회시설을 활용한 공연장 및 전문적인 예술공연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서울 명성교회의 경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6개나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개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과 공연단체들은 일반 사회에서 기업이 메세나(Mecenat: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후원과 지원) 정책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듯, 이들 예술단체 등도 교단 및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나 성당 내의 시설을 활용한 부설 공연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문화선교21(가칭)' 일환으로 공연을 통한 선교에 앞장서기 위해 교회 부설 공연장을 신설 ·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이미 50개 교회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개신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는 '문화선교' 기법을 적극 도입해 공연장 확충은 물론 전문적인 예술공연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불교계는?

현재 대표적인 불교계 공연장으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전통문화공연장, 천안 한암문화원, 일산 여래사, 천태종 관문사와 삼광사, 수원 포교당 등을 비롯해 1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불교전통문화공연장을 포함한 3개 공연장이 제대로 된 무대와 조명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는 법당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 있는 불교전통문화공연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이곳의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은 고작 3명뿐이다. 이 사람들이 총무원 건물을 비롯해 전통문화공연장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백석 규모의 좋은 공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공연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불교전통문화공연장이 개관이래 본 취지에 맞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송년연주회 등 손에 꼽을 정도. 대부분은 조계종 총무원 행사나 불교계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장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종단차원의 예산 지원 법제화 … 전문가 확보해야

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일까? 우선 공연장은 엄연히 극장 개념이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곳에서는 극장장과 공연 전문가를 따로 두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공연을 기획 · 홍보하고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탄탄한 인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전통문화공연장은 이런 전문 인력을 배치 · 활용하는 방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홍보부족으로 많은 불교계 문화단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시설이 없을 때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인 것이다.

1년 내내 천주교계 행사뿐만 아니라 외부 음악 · 연극 공연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꼬스트홀에 비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 또 공연장으로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다보니 선교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이웃 종교의 선교전략과도 견주어 볼 때 실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천안 한암불교문화원(원장 원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극공연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기 위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6번의 공연을 하고 있지만 재정문제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철 스님은 "현재 한암불교문화원은 분장실, 연습장 등을 포함해 180평 규모의 비교적 큰 공연장이지만 전문 인력을 찾지 못해 신도 10여명으로 꾸며진 기획 · 홍보팀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지역 사찰들의 협조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불교계 공연장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은 뭘까? 일선 담당자들은 공연 기획 · 홍보 전문가의 부재라고 입을 모은다.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공연 기획과 홍보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기존 종무원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부산 삼광사 부속 문화예술회관지관전의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손현열 총무과장은 "자체 행사의 경우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지만 외부 행사를 열 경우에는 기획 · 홍보 부족으로 거의 관람객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각 종교의 존폐는 포교(선교)전략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신교나 천주교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전문 공연기획 · 홍보 인력 영입 △문화포교에 대한 마인드 정립 △교계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실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덧붙여 △범 종단 차원의 문화포교 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공연장 보유 사찰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제화 △불교계 공연단체에 대한 종단과 사찰의 지원과 투자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방송의 한관계자는 "불교방송이나 불교TV 등에 포진하고 있는 전문방송 인력과 손잡고 불교계 공연장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연기획과 홍보에 폭발적인 힘이 실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문 공연기획가가 공연장에 상근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불교계 인력을 활용하면 그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공연이 있을 때마다 공연에 대한 기획 · 홍보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듀서들이 맡고 공연에 필요한 무대세트는 방송엔지니어들이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도 "공연 기획에 대해 감각이 떨어지는 스님들의 주먹구구식 공연장 운영 계획의 고리를 끊고 전문 공연기획가를 영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교계가 공연장 활용 능력이 없어 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아예 전문단체가 운영하게 운영권만 이관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불교계가 문화 공연장을 잘 활용하려면 '예술 경영 마인드'의 도입도 시급하다. 축제기획 불무 김유신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투자만 있을 뿐 수익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잘 만들어진 불교문화 콘텐츠는 포교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지속적인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니르바나 강형진 단장은 "난타, 뮤지컬 명성왕후 등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불교문화 콘텐츠를 오페라와 연극 등으로 접목시켜 재현한다면 승산이 있다"며 "불교문화공연 콘텐츠 개발에 앞장설 때 공연장 활용은 물론 니르바나 등과 같은 불교전문 공연단체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公 告

통도사 영축총림은 방장유고로 인하여, 총림법에 의한 임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통도사 주지임기도 만료되어 현재 주지직무 대행 체제로 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도사 재적대중과 정진대중으로서 통도사 영축총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림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2006)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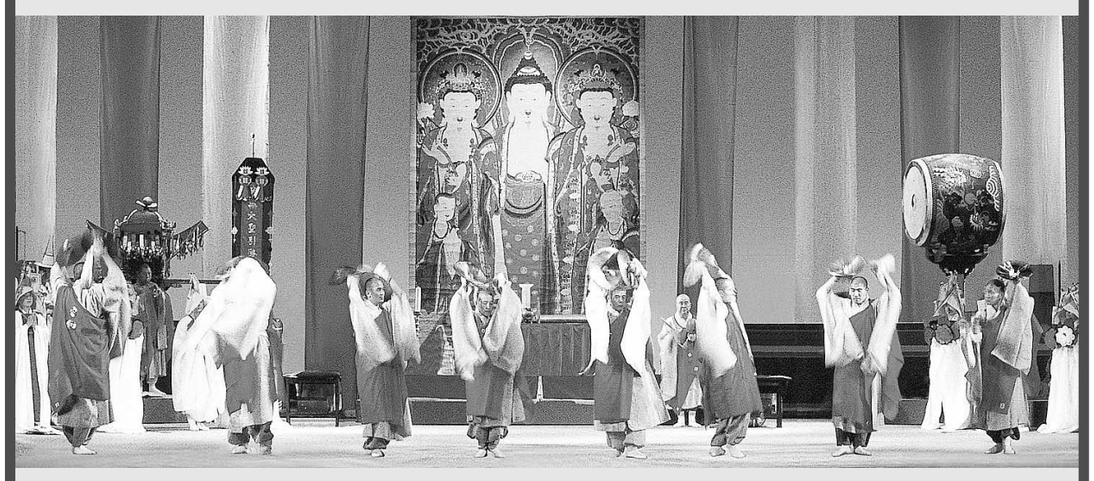
통도사 영축총림 비상대책위원회 의장 목산

통도사 영축총림 비상대책위원

목산 월파 원명 눌암 성파 성림 향과 원산 정각 무애 영하 도훈
해남 지안 현문 영배 청운 태봉 재원 지준 정우 재경 법선 현대
중선 정안 선지 지선 정호 범해 우진 도문 성본 동하 반산 (무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정 기념 공연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영산재



☞ 일시 : 2006년 4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오후 7시30분
☞ 장소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주최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 주관 :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주)필미래문화
☞ 후원 : 문화관광부, 국회정각회, 문화재청

주식회사 필미래문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7-1 한림빌딩 2층
문의전화 011-520-7403 / 010-3014-1811

지율 스님 다시 천성산으로



"유량조사 고의로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못 믿어"

생사를 넘나들었던 단식이후 부산에 머물며 몸을 회복 중이던 지율 스님(사진)이 천성산의 작은 암자로 들어간다.

몸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는 해도 아직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스님이 서둘러 천성산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발표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당초 합의에 의해 진행키로 했던 계곡의 유량 조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터널 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계곡의 유량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핵심사항이었고 당연히 돼 있을 줄 알았던 유량조사는 스님이 생사를 헤매는 동안, 고의적으로 제외됐다. 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이번 환경영향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도롱뇽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를 의미했다.

유량조사가 빠진 것을 안 스님은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해졌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간천계곡, 안적계곡, 가사암 계곡에 유량 측정을 위한 장비를 설치했고 매일 유량의 변화를 기록할 민간유량조사단도 꾸렸다. 사갱공사나 터널 공사로 인해 생기는 유량 변화를 수녀, 교사, 스님, 도롱뇽의 친구 등이 돌아가며 매일 방문하고 수치를 기록하고 유량의 변화를 관측하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남들처럼 천성산을 멀리서 바라볼 필요도 있고, 또 천성산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는 일이라 믿고 있는 도롱뇽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손 발에 감각이 없는 스님은 감각이 돌아오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 6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스님은 "관심을 천성산이나 나에게 두지 말고 스스로에게 회향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환경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면 생명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 꾸리고 측정 장비 설치
암자 머물며 재판 자료 준비

왜 극단적인 단식을 택했느냐는 비난이 많다고 하자, "어떤 게 더 극단적이에요?" 하는 물음이 되돌아왔다. 13억의 돈을 들여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가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쪽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하는 물음이었다. 그것은 5차례의 단식이 진행되게 했던 과정속의 약속 불이행을 포함한 사회적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물음이었다.

"처음엔 '단 한방울의 물도 새지 않는다'던 환경영향평가서가 '물이 새면 공법으로 막을 수 있다'에서 '조금의 물이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로 변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으로 지율 스님은 천성산 암자에 머물며 민간조사단과 함께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며 도롱뇽 재판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아직은 손이 저려 제대로 글씨를 쓸 수조차 없지만 천성산의 봄이 희망처럼 피어나고 있기에 스님은 아픈 몸으로 천성산에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이야~" "초기에 진압하자"

법주사 동화사 선암사 등 전국사찰 소방훈련



봄이 되면서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자 사찰들도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는 3월 27일 경내에서 초기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초기 화재 진압 훈련에는 부산진 소방서 소방대원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도 같은날 관내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으며,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 역시 24일 화재초기대응훈련을 진행했다.

법주사와 동화사 소방훈련에는 소방차와 응급구호차량, 소방대와 군병력,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 지역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했다. **천미희 · 여수령 기자**

금정산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세계선문화체험타운 기획단은 부산 금정구 · 동래구 · 북구, 양산시와 함께 3월 26일 금정산 환경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행사는 최종 집결지인 금정산 북문 광장으로 오르면서 금정산 계곡과 산성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집결지인 북문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의 자연문화적 혜택의 근원인 금정산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공병수 회장 취임법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3월 3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21대 공병수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공병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도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결성, 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중 · 고교 전일제특활반 개설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산)은 부산지역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6년 전일제 특활반을 개설한다.

'나도 해보자! 영화 만들기' 외에 26개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전일제특활반은 4월~7월 사이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양정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 등에서 진행된다. (051)868-0750 **천미희 기자**

해동용궁사 대웅전 낙성법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사찰로 꼽히는 해동용궁사(주지 정암)가 3년여에 걸친 대웅보전 불사를 마무리하고 4월 8일 오전 11시 낙성법회를 봉행한다.(051)722-7744 **천미희 기자**

"체계적인 대사회 활동 벌일 것"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는 3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을 비롯 회원 및 회원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재추대된 김윤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발보리심의 굳은 신심으로 불교발전과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그 일환으로 그동안 해왔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보다 체계적, 진취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2006년도 임원단에 대한 임명패 전달과 함께 공로패 전달과 시상을 통해 우수회원 표창도 함께 열렸다. (051)818-9914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김귀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부산의 사찰 합창단 단원들이 4월 19일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찬불가합창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사찰 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찬불가를 선보이는 합창제는 종종 있어 왔지만 실력을 겨루고 게다가 상금까지 있는 경연대회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불교음악이 발전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떻게'라는 방법론 앞에서는 모두 한걸음 물러서 있는 동안,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59 · 법명 감로수 · 사진) 회장이 자비를 내서라도 경연대회를 열겠다며 결행했다. 부산 불교합창단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단이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에 소속된 36개의 합창단 중 18개 합창단이 참가 신청을 하고 연습에 돌입했다.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김 회장은 4월 19일 열릴 경연대회를 한그루의 사과나무에 비유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무라도 사랑과 관심으로 가꾸면 언젠가 알찬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란다는 믿음 때문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공덕원 합창단 단장을 시작으로 불교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김 회장은 이제 36개 사찰 합창단 900여 명의 단원들을 이끄는 합창단연합회의 회장이 되었다. 30대 중반부터 이어온 부녀회 봉사활동으로 부산시장상, 내무부 장관상,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활동적인데다 책임감이 강해 적임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묘목 심는 마음으로 찬불가 경연대회에 정성
상금 사비로 충당… 실력 향상되는 계기되길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을 겪고 있던 합창단연합회의 회장을 어렵사리 수락한 김 회장은 이왕 회장을 맡았으면 불교음악 발전과 찬불가 보급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용기를 냈다. 찬불가를 해외에 보시하기 위한 CD나 테이프 제작도 생각했지만 보다 많은 이들에게 찬불가의 감동을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다.

처음 여는 경연 대회라 시행착오도 많다. 상금으로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 원 등 700여만 원의 사비를 내었지만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재정 충당이 고스란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번 경연대회 개최가 부산 불교음악 발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합창단의 수준을 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시간이 날 때마다 농장으로 달려가 트럭까지 몰며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김 회장은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돌아온 얘기로 지금의 심경을 전했다.

"사과 한 알을 얻기 위해서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전하는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회장이 잘나도 각 합창단 단장들의 협조가 없으면 소용없고, 단장이 잘 나도 단원들이 없으면 단장도 소용없다"고 강조하는 김 회장.

남 앞에 서고, 또 무대에 오르는 합창단이기에 더욱 하심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신조다.

찬불가의 수준은 그 찬불가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 만큼이기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신행에 철저하려고 노력한다.

김 회장은 "사찰의 '꽃'이자 최고의 '일꾼'으로 통하는 사찰합창단과 불교음악의 발전은 결국 단원 한사람 한사람의 확고한 신심과 수행에서 우러나온다"고 강조하며 19일 저녁 6시 30분, 마음으로 전하는 찬불가를 들으러 부산문화회관에 와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허 스님에서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큰스님 열아홉 분의 감동적인 일화!

큰스님 큰 가르침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윤청광 지음



이런 큰 가르침이 널리 읽혀 무기력하고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지혜가 새롭게 움텄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의 글을 쓴다.
— 법정 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선방의 죽비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가르침!
경허 · 한암 · 만공 · 한영 · 효봉 · 고암 · 청담 · 춘성 · 경봉 · 동산 · 만암 · 고봉 · 구산 · 성철 스님 등 기라성 같은 근대의 고승들의 업적과 인격을 생생한 실화를 통해 한눈에 보여주는 책!

양장 | 296쪽 | 값 10,000원

"법정 스님이 새벽 2시까지 읽으셨다는 책입니다.
시간이 그토록 늦은 줄도 모르고 감명 깊게 읽으셨다면서 '맑고 향기롭게 모임' 회원이라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는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2006년 2월호

할아버지의 기도



침대맡에 두고 밤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들려주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
레이철 레멘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뛰어난 의사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치유하는 탁월한 연금술사다. 이 책에서 그녀가 들려주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진솔한 이야기들은 진정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 고도원

레이철 나오미 레멘 지음 | 류해욱 옮김 | 328쪽 | 값 10,000원

E-mail : info@mosaye.com TEL : 393-5681 FAX : 393-5685 문예출판사

몽골에 유치원·인쇄소 건립

(사)한몽불교교류협회, 몽골 지원 사업 확정

대구 지역 불교계 인사로 구성된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동화사 주지, 이하 협회)가 몽골불교 진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회는 3월 28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50여명의 이사 및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유치원 건립사업과 간단사 부설 인쇄소 개설 지원사업, 몽골의료봉사 및 성지순례법회를 2006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확정했다.

협회는 어린이 교육사업에 불교계가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몽골 불교계의 요청에 따라 수용인원 50여명 2학급 규모의 유치원을 미화 15만 달러를 들여 몽골불교의 중심사찰인 울란바토르 간단사에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몽골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유치원으로 상류층 자녀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또 티베트어로 된 경전을 몽골어로 번역해 일반 불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인쇄소를 개설하기 위한 시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신 인쇄소와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몽골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쇄시

4월25일 '후원의 밤' 행사
성지순례·의료봉사도 계획

설은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방문 성지순례와 의료봉사 활동도 벌인다. 여기에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불교회와 대구불교약사회가 참석하는 30명 규모의 의료봉사단을 포함한 60여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이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머물며 의료봉사 활동을 펴고 테를지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몽골불자들과 몽골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봉행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협회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계획도 구체화 했다. 우선 오는 4월 25일 오후 5시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800여명의 지역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유치원, 인쇄소 설립 지원 후원의 밤' 행사를 갖기로 했다. 행사에는 인기가수 현철과 남궁옥분,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등이 출연하는 문화공연과 만찬이 펼쳐진다.

협회 이사장 지성 스님은 "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한 나라의 불교재건에 초석을 세우게 된다"며 "큰 보람을 갖고 지역불자들이 십시일반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055) 985-4404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대구불방 한마음 합창제
한복명장 패션쇼도 진행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이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2006 한마음합창제 및 김복연 한복명장 패션쇼(사진)'를 3월 25일 동구체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한마음 음악제는 동화사 주지 지성·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총괄본부장 장적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13개 불교합창단이 출연해 찬불가의 아름다운 선율을 소개했고, 김복연 한복명장 패션쇼는 전문 모델이 아닌 50여명의 불자들이 전통 한복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역사·시설·교육 전국 최고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사장 법혜)이 수탁운영 하는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관장 권한대행 선지)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도로를 끼고 5분쯤 들어간 산 밑에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 불교기를 상징하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주황색의 기둥이 서 있고, 실내에는 연꽃 사진들이 걸려있어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또 2005 시범청소년시설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뭔가 새로움을 보여줄 것 같은 호기심을 자극했다.

"안녕하세요!"

수련관 입구에서 만난 어린이 서넛이 예쁘게 인사를 한다. 수련관을 출입하는 어린이들의 바른 인사성도 새롭다. 1996년 5월에 개관한 전국 1호 청소년 수련관이다보니 그다지 최신 설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687개의 전국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한 향상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이 밖에도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등의 프로그램과 댄스, 풍물, 마술 등의 동아리활동을 주선하면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밝고 바르게 자라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의 이런 다양한 목적사업은 100개가 넘는 유료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가능하다. 유료회원만 2000명에 달하는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운영자립도가 90%에 달한다. 매일

100개 넘는 프로그램 운영, 자립도 90%
불교관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큰 호응

전국최고의 청소년수련관으로 선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 헤딩! 좋아."

평일인데도 600여 평 규모의 수련관 곳곳에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소리가 들린다. 실외 미니축구장에는 막 농구경기를 마친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 나왔고, 강의실마다 영어, 애니메이션, 수학수업 등이 한창이다.

또 1층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해오름 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리라는 희망의 뜻으로 이름 붙여진 해오름 교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과후 학습지도와 생활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1까지 45명의 학생들이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참가해 숙제는 물론 수학 영어 국어 등의 기본 교육과 애니메이션 독서토론, 마술, 재즈댄스, 수영,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해오름 교실은 학습능력 200~300여명, 주말 2500여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이처럼 각광받는 이유는 뭘까?

김제원 사무국장은 "인간중심의 불교관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이유로 꼽았다. 김 국장은 "일반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강좌들과의 차이점은 자신의 마음을 중시하는 불교관에 입각한 단 30초의 생활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30초 생활교육은 분기별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기본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 지금은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교육을 모든 강좌에 적용하고 있다.

국장은 "연꽃사진을 보고 스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향이 배듯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는 것 같다"며 "수련관을 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포교"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해인율원, 자운 율사 계맥 전계식

경암·혜만·범산·영명 스님 계 받아



왼쪽부터 범산, 경암, 무관, 혜만, 영명 스님.

해인총림 해인율원 율원장 무관 스님이 제자들에게 계맥을 전하는 전계식을 거행했다.

3월 31일 해인사 홍제암 자운대율사 추모다례에서 증명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자운대율사의 문도 스님들과 산중의 어른스님 등이 자리한 가운데 먼저 자운대율사의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이어서 전계를 내릴 무관 스님의 인사말과 전계를 받을 전계제자들의 인사순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이날 무관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는 스님들은 모두 4명. 총무원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경암 스님과 혜만 스님 그리고 봉은사 재무로 있는 범산 스님, 해인율원에서 율학을 연구하고 있는 영명 스님이 전계를 받았다.

해인총림 율원장 무관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자운대율사의 계맥과 강맥을 이어받았다. 지관 스님은 전계를 받는 전계제자들에게 "계율을 목숨같이 호지하고 자운대율사의 지계정신과 율학 연찬에 더욱 힘쓰라"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나무 1만3천그루 심어
해인사 "가야산 환경복원"

자작나무와 닥나무, 홍송, 층층 나무, 옻나무 1만3000여 그루가 가야산 해인사 홍류동 계곡 상류에 새로 터를 잡았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25일 마장동, 초막동, 장자동 일대에서 봄맞이 가야산 숲 복원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날 심은 자작나무는 팔만대장경판 제작의 주 재료며, 옻나무는 경판보존을 위한 칠의 재료, 닥나무는 전통한지를 만드는 원료다. 층층나무로는 목탁을 만들고, 홍송은 전통건물의 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가야산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2만7000여 그루의 자작나무와 옻나무를 심어온 해인사는 올 해 1만3000그루를 심고, 연차적으로 계속 나무심기를 진행해 홍류동 계곡의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황기건 불자 도와주세요"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지구장 이만희, 이하 대불청대구지구)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청년불자 돕기에 나섰다. 대불청 대구지구 황기건 부회장 돕기에 나선 것. 황기건 부회장은 3월 17일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식당을 모두 잃고 재기의 발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가족 7명의 가장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과 중3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어 당장의 생계를 꾸려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황기건 불자는 유가사 청년회를 창립한 창립멤버로 2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불청 대구지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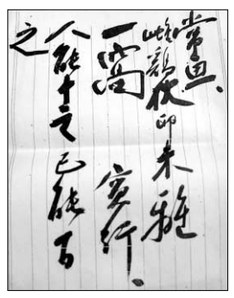
이만희 지구장은 "지역불자들의 정성을 기다린다"며 십시일반 도움을 당부했다. 이만희 지구장 : 016-520-5888

배지선 기자

"남 모르게 더 열심히 행하라"

무영당 범룡 대종사 열반 100일 추모재

'평소 생각하기를 암탉이 알을 품음에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이가 10을 행할 때 너는 남모르게 100을 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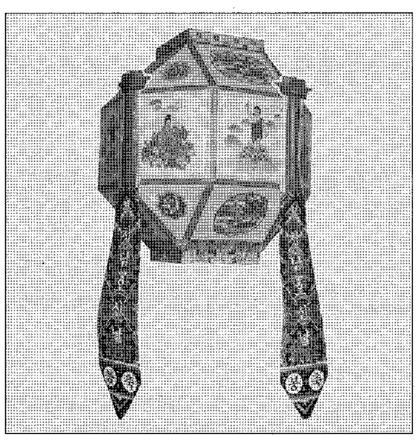


범룡 스님 속가 아버지가 스님에게 보냈던 편지.

지난해 12월 15일 동화사 비로암에서 입적한 무영당 범룡 스님(前 조계종 전계대화상)이 편지의 주인이다. 스님은 중학교를 다닐 때 "스님의 삶이 가장 본 받을만 하다"는 부친의 말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고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다. 범룡 스님은 부친의 이 편지글을 거울삼아 수행정진했다.

이 편지글은 3월 24일 비로암에서 봉행된 범룡 스님의 100일 추모재에서 비로암 감원 수련 스님이 공개했다. 수련 스님은 "비문이나 수각에 이 글을 새겨 모든 불자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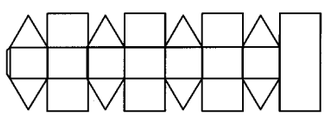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깨침의 글귀로 밝은 가정을

보성 월림사, 가훈걸기법회

산골 벽지사찰에서 '가훈걸기 특별법회'가 봉행됐다. 보성 월림사(주지 지봉)는 3월 29일 '한가정 가훈걸기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선보였다.

'노래하는 보현 스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하승완 보성군수와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 앞서 주지 지봉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훈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며 "농촌 사회가 수난 받고 있는 이때 가정지키기 일환으로 불교성구가 적힌 가훈걸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당에는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천번 생각은 한번의 행만 못하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의 글귀가 적힌 가훈이 전시됐다.

초하루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작은 음악회에서는 출가 전 가수로 활동했던 보현 스님이 출연해 가요와 염불송 등을 노래했다. 또한 전 우담바라 악단장 월현 스님이 하모니카, 만도린 연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구었다.

가훈족자를 구입한 양숙자(보성읍) 보살은 "평소 집안에 좋은 글귀를 걸어두고 싶었는데 스님 글씨를 받게됐다"며 기뻐했다.


보성 월림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가정 가훈걸기 및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가훈걸기 법회를 봉행한 지봉 스님은 "가훈 판매 수익금은 보현 스님이 운영하는 장애복지시설 '부처님마을' 후원금으로 전달한다"며 "가정도 살리고 불교복지시설도 후원하는 가훈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강 하류에 자리한 월림사는 임진란 때 폐사되어 근근이 명맥만 이어오다 10년 전 지봉 스님이 주석하면서 가람을 중창했다. 경내에는 고려후기 조성된 높이 9m 5층석탑(유형문화재 141호)이 있다.

글 · 사진/보성=이준엽 기자

혜국 스님 '간화선을 말한다'

4월8일 '빛고을 특강'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혜국 스님이 빛고을 광주 시민들에게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혜국 스님(사진)은 4월 8일(오후3시) 광주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1세기 현대인, 간화선을 말한다'라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가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마련한 특별법회.

특히 이번 강좌는 지난해 성공리에 끝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강좌를 계승하는 자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 시민과 대중강좌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혜국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을 소개하고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지혜를 들려주겠다"고 밝혔다.



혜국 스님은 1961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계를 수지하고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정진했다.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 뒤 세 손가락을 연비했으며, 도솔암에서 2년여동안 생식하며 장좌불와 수행을 했다.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제주 남국선원에서 눈푸른 납자를 제접하고 있다. (062)234-0090

이준엽 기자



학천사(주지 지명)는 3월 25일 8년여에 걸친 불사를 마무리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선암사 강원학인, 각 사암 스님과 민주당 최인기 의원, 이영남 화순군수, 전일만 화순군의장 등 기관장, 불자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역사적으로 불교는 호국안민하는 사상이자 생활이념이었다"며 "천수천안 관음도량인 학천사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합심 할 때 화순은 물론 인류가 안심입명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백제불교 최초 전래모습 재현

中 천동사서 고불식 · 영파 포구서 출항 의식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떠나는 고불법회가 1600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재현된다.

영광 불갑사(주지 만당)와 영광군은 4월 7일 중국 절강성 천동사에서 백제불교 최초전래 재현법회를 봉행한다.

이를 위해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과 김봉열 영광군수 등 관계자들이 5일 중국으로 떠난다.

이날 양국 스님과 재현법회 관계자들은



천동사 대웅전에서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을 선포하는 고불식을 갖고, 영파 포구로 나가 출항하는 의식을 재현한다. 고불식에 앞서 백제로 보내는 불상과 경전을 봉안하는 법회도 재현한다.

이번 행사에는 화계사 대성 스님이 마라난타 존자로 분하고, 천동사 스님들이 환송하는 스님으로 직접 출연한다. 불갑사와 영광군은 이번 재현법회를 위해 지난 2월 현지를 답사했다.

불갑사는 오는 5월 13일 영광 법성포 마라난타사(사진)에서 마라난타 존자 일행이 백제로 오는 과정을 재현하는 법회를 연다.

한편 영광군은 마라난타 존자가 도착한 법성포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 선포하고, 1999년부터 성역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역화사업은 1만3000여평 부지에 18m 크기의 사면불상과 부용루, 만불전, 불교문화재 전시관, 기념광장, 팔각정, 탑원 등이 조성되고 있다.

이준엽 기자

화순 학천사 낙성법회
"소외이웃 함께하는 도량"

천불천탑의 고장 화순에 관음도량 학천사가 창건됐다.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섬 속에 절이 있네

완도 해동사

우리나라에서 자생약초가 가장 많다는 완도 약산. 이곳에 약사여래 도량이 들어선다.

삼문산 해동사(주지 일광)가 4월 22일 9년간의 도량건립불사를 회향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하는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참가해 '섬 속의 부처님 도량' 탄생을 축하한다.

완도의 부속도서인 약산은 '섬 속의 섬'이다. 또하나의 섬 고금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동사는 가사리 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바닷가 기슭에 자리해 있다.

불전, 산신각 등의 전각이 들어섰다. 천불전에는 석가모니, 비로자나, 아미타불을 비롯해 관세음, 지장보살 등 불보살이 각각 다른 수인과 표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참배객들을 위해 150명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요사채, 공양간도 마련했다. 해동사를 찾는 이는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래 들어서 범종을 조성했고, 24자(7m20cm) 크기의 약사여래 석불을 조성했다. 이로써 타종식과 점안법회를 겸해 공식으로 해동사가 낙성하게 됐다.

해동사 법당문을 열어젖히면 바다가 한눈에 펼쳐 보인다. 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다. 해마다 연말에 열리는 해맞이 철야정진은 전국에 알려져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9년간의 도량건립불사를 4월22일 회향하는 완도 해동사 전경.

건강 잃은 이들의 희망터

자생약초 최다생산지에 자리한 약사여래도량

가사리는 불교와 인연 있는 땅이다. 옛날, 약산도 삼문산에 스님이 한분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날 스님은 바닷가 바위에 가사를 놓고 탁발을 나갔다. 돌아와보니 가사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스님이 마을을 떠났다.

스님의 수행만으로도 편안했던 바닷가 마을이 술렁거렸다. 스님은 떠나기에 앞서 마을이름을 '가사리'라 명명했다. 오늘의 가사리 마을과 가사리 해수욕장에 얽힌 전설이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이곳에 다시 스님이 오게 됐다.

9년 전, 우연히 가사리와 인연을 맺은 일광 스님이 건강을 잃고 새로운 삶을 찾는 이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물론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자 했던 스님의 원력은 서서히 실현됐다. 20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해 천불전, 산신각 등의 전각이 들어섰다. 천불전에는 석가모니, 비로자나, 아미타불을 비롯해 관세음, 지장보살 등 불보살이 각각 다른 수인과 표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참배객들을 위해 150명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요사채, 공양간도 마련했다. 해동사를 찾는 이는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래 들어서 범종을 조성했고, 24자(7m20cm) 크기의 약사여래 석불을 조성했다. 이로써 타종식과 점안법회를 겸해 공식으로 해동사가 낙성하게 됐다.

해동사 법당문을 열어젖히면 바다가 한눈에 펼쳐 보인다. 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다. 해마다 연말에 열리는 해맞이 철야정진은 전국에 알려져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가사리 해수욕장 앞 바다에 떠 있는 생일도는 마치 부처님이 누워계시는 듯 하여 신비함을 더해준다.

약산은 이름 그대로 삼지구엽초를 비롯 200여 종의 약초가 생산되는 땅이다. 그래서인지 몸이 불편한 중생들에게 좋은 터로 알려져 있다. 해동사는 간절한 기도까지 곁들일수 있어 새롭게 약사도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엽 기자

▲찾아가기: 해동사는 행정구역상 완도군이지만 가는 길은 강진땅이 가깝고 편하다. (061)555-0879

강진 마량 선착장(06:00-21:00 20분 간격, 10분 소요) - 고금선착장에서 약산행 버스이용 - 당목삼거리 하차 걸어서 30분 거리

현오스님의 꿈 / 미래의 열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 그 꿈의 의미를 알 수는 없을까? 이 책이 명쾌한 답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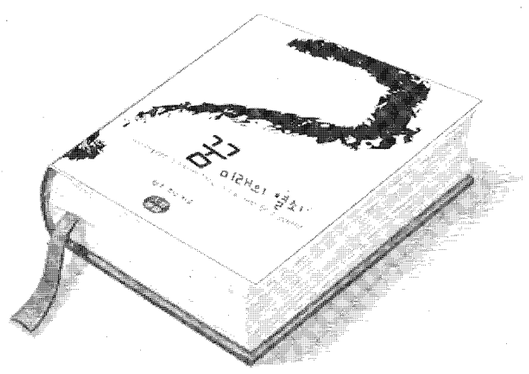
왜 꿈을 그렇게 풀어야 하는가!

각 풀이 마다 왜?를 설명한 책!

당신은 스스로 예언할 수 있다.

우리가 미해결사에 대해 고뇌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면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대처하여 행복을 누릴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무엇인지 모를 어둠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서문 중에서-

사상최초로 꿈꾸는 마음과 상징원리와 해몽의 비밀을 불교의 유식철학 이론으로 완전히 해결하다.



목차

제1부 미래를 여는 창 꿈의 원리
1장. 꿈꾸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
2장. 꿈의 상징원리
3장. 역사와 종교의 꿈
4장. 꿈과 최면술
5장. 마음을 수행한다

제2부 꿈의 상징과 해석
1장. 사람과 직업에 관련된 꿈
2장. 죽음과 시체, 장례와 제사의 상징
3장. 인체의 상징
4장. 배설물과 분비물의 상징
5장. 동물에 관한 상징
6장. 식물, 곡물, 경작의 상징
7장. 광물과 보석의 상징
8장. 색채, 시간과 날짜, 방향의 상징
9장. 돈과 문서 등의 상징
10장. 물, 샘, 호수, 강, 바다의 상징
11장. 불, 빛, 열에 관한 상징
12장. 산과 들, 고향, 도시의 상징
13장. 하늘, 천체, 기상의 상징
14장. 운송수단, 전화, 우편에 관한 상징
15장. 집과 관공서의 상징
16장. 서적, 문자, 도장, 숫자의 상징
17장. 전쟁, 병기, 깃발의 상징
18장. 질병, 의술, 약의 상징
19장. 의복, 치장 등 소지품의 상징
20장. 가구, 집기, 사무용품 등의 상징
21장. 음식과 음식 재료의 상징
22장. 운동, 오락, 예술의 상징
23장. 희노애락 등 감정의 상징
24장. 행동의 꿈 상징

< 꿈꾸는 마음과 상징해석 강의 >
대지 불교심리학 연구소 소장 현오스님이 직접 꿈꾸는 마음과 상징해석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상식반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교재비	13회 21만원 교재포함
연구반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 30분
	교재비	13회 11만원 교재포함
문의처	02) 576-1462	
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3호선 매봉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근간- 꿈과 마음의 비밀(유식철학으로 밝힌다) >
현대 심리학을 전공한 류정수 선생과 현오스님의 공저로 불교의 유식철학과 서양심리학 이론으로 꿈과 마음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낸 꿈이론의 완결판!

신국판/ 519쪽/ 고급양장
값 20,000원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진각종 교육불사 '구슬땀'

대구 · 포항 심인당에 불교대학 신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교육불사'를 통해 종단 내실다지기에 나섰다.

올해 개설된 대구 의밀심인당과 포항 상륜심인당 부설 불교대학의 경우 통리원에서 장소와 강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불교대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진각종이 올해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족 포교운동' 캠페인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 단위로 수강할 수 있도록 불교 교리는 물론 명상, 요가, 음악, 미술 등 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1일 처음 문을 연 대구 의밀심인당 부설 진각불교문화대학은 불교교리와 불적답사, 신나는 가요교실, 명상 · 요가 등 3개의 기본강좌를 개설했다.

불교교리와 불적답사는 불교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해 놓았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가요교실과 명상 요가 교실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실기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짜놓았다. 특히 명상 요가 교실은 개설한지 얼마 안돼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주에 처음 문을 연 포항 상륜심인당 부설 금강불교대학도 '알기 쉬운 불교강좌'를 개설해 주목받고 있다. 이 강좌는 초심자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강의해 준다는데 장점이 있다.

서울 밀각심인당 부설 삼밀불교대학도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한국불교 속에 나타난 진각종의 모습을 체득하고, 심인당 활동을 이끄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삼밀불교대학은 불교문화, 밀교사상과 같은 불교 본연의 이론뿐만 아니라 <부모은중경> <금강경>과 같은 경전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점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년 동안 꾸준히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어온 울산 정지심인당 부설 정지불교문화대학은 올해부터 강좌를 4개로 늘려 풍성한 학습효과를 꾀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개설, 한달에 8회, 20시간씩 진행되는 정지불교문화대학은 미술공예강좌, 불교교리강좌, 요가강좌, 노래교실강좌 등을 개설, 횟수가 더할수록 신교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불교교리강좌는 기초이론부터 시작해 육자진언의 공덕과 진각교전 교리편을 교육한다.

진각종 통리원 교육부장 경당정사는 "심인당내 만들어 지는 부설대학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속속 개설을 준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밀각 심인당의 경우도 불교방송 건물에 통리원 차원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심인당 교육불사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승관 건립, 종도 동참 당부
태고종 총무원장 지방 순방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올 10월에 완공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성금 모금을 위해 21개 지방 교구 및 사찰 순방에 나섰다.

운산 스님은 3월 6일 충북교구종무원을 시작으로 제주교구,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교구, 강원교구 등을 차례로 순방하며 4월말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에 전 종도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운산 스님은 이번 순방에서 전승관 건립불사 동참 유도 이외에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종단의 새로운 진로 모색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산 스님은 순방이 끝난뒤 총무원과 교구종무원 및 사찰간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종단 기강확립에 역점
총화종 올 사업계획 발표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3월 27일 종무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총화종은 우선 연내로 총무원내 사회문화 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 문화프로그램과 복지시설을 통해 종도들은 물론 대민 포교도 적극 활성화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본말사의 화합과 결집을 위해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오사카와 교토 등 일본 성지순례를 개최한다.

종단의 위상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종단에 대한 해종행위자의 징계를 한층더 강화할 방침이다.

남정 스님은 "올해 종단에서는 기강확립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 종단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세계불교도우의회 초청
진각종대표단 태국 방문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비롯해 유가심인당 주교 혜정 정사, 포교부장 회성 정사 등 진각종 대표단은 세계불교도우의회(WFB · The World or Fellowship Buddhists) 초청으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에 있는 본부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진각종 대표단은 세계불교도우의회 팜 와나메티(Pham Wannamethee) 회장과 팔롭 타이와리(Phallop Thaiarry) 사무총장 등과 회담을 갖고 불교발전과 상호교류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포교부장 회성 정사 등은 3월 22일 스리랑카 네곰보에 있는 JGO센터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원융종 창종 26주년 법회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3월 26일 서울 원융사 대법당에서 '창종 26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종정 일공 스님은 법문을 통해 "원융사상이란 둥글고 융통하다는 것이다"며 "종도들은 창종 기념일을 맞아 원만 융통한 대인상을 챙기며 이 사회가 개체중심이 아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원융회통의 사회를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회가 끝난뒤 법회에 참석했던 법륜



3월26일 서울 원융사 대법당에서 열린 원융종 창종 26주년 기념법회 모습.

총무원장을 비롯해 1백여 사부대중은 원융종 총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노인들을 초청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김주일 기자



군법사 있어도 법당이 없다

과훈단 불자 장병들이 천막에서 법당 건립을 발원하는 1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과훈단, 천막에 부처님 모시고 법회
장병들 십시일반으로 간신히 기공식
공사비 2억원엔 턱없이 부족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가 창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병사를 훈련하는 부대 특성상 사병들보다 장교가 상대적으로 많다. 불자 장병들도 다른 일반 부대보다 많은 편이고 군법사도 배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자 장병들이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이 없다. 군법사가 배치되어 있는 부대 가운데는 유일하게 법당이 없는 곳이다.

그나마 장병 불자들의 신심이 높아 지난해 12월부터 법회를 보기 위해 24인용 천막을 치고 부처님을 모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난히도 추었던 겨울을 나면서 불자 장병들은 한마음이 됐다. 바로 법당 건립의 서원을 세운 것.

조쵤호 군법사의 화주와 불자 장병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우선 3,000만원을 모아 호국 응봉사 건립을 발원했다. 부대에서도 법당 터를 제공했고 다행히 불자 기업인 대동청기와(대표 김효순)가 공사를 맡기로 해 법당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60평의 군법당과 30평의 요사채를 세우기 위해 건축 설계를 마쳤다.

400여명의 불자 장병들도 마음을 모아 1월 7일부터 과학화전투훈련단 법당불사 원만회향 발원 100일 정진기도에 돌입했다. 매일 오전 4시 천막법당에서 군법사와 장교 가족들이 예불을 모시고 한 시간씩 법당 건립을 위한 치성을 드린다.

신도회장 최태호 중령은 "부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주하는 장병들이 충원될 계획이어서 불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장병 불자들이 십시일반 보시를 하고 법당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보시는 한계가 있어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100일 기도의 취지를 밝혔다.

대동청기와에서 토목공사와 기와불사를 보시하고 공사도 원가로 해 주겠다고 약속해 3월 중순부터 간단한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비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도회 총무 박석수 대위는 "중생들의 안식처가 되고 바른 법을 전하는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한 불자 장병들의 노력을 대덕 스님과 불자들이 알아주시고 마음을 내어 원만하게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천막법당에서 기도하는 장병들은 고대하고 있다"고 법당 건립에 동참을 호소했다.

100일기도 회향을 앞둔 불자 장병들의 마음은 무겁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연등에 불을 밝히고 부대 내에서도 제등행진 등 행사를 하고 싶지만 천막법당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호국 응봉사가 창건되고 불자장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활기찬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오늘도 열심히 부처님전에 예불을 올린다.

조쵤호 군법사는 "불자장병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원을 하고 있는 만큼 법사로서 더 분발하게 된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 325026-51-109410(농협 예금주:정승민)

글 · 사진/인제=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성전 스님의 2006 산사의 풍경소리 | 나의 행자시절
특집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이어 2006년 다시 시작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불자들의 신행개혁운동인 "청정운동"을 조명한다.
왜 다시 청정(淸淨)운동인가?
제1차 청정운동의 성과와 불교운동의 방향
2006 청정운동 이렇게 실천하자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3**
한국불교는 미국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미주 전법(傳法) 40년이 지난 전환기의 한국불교가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현지 취재기
1. 미국 동 · 서부지역 주요 한국사찰 탐방
2. 미국식에 맞는 한국불교 · 미국 내 한국사찰 명부
종범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 6. 선의 기원과 간략한 역사
지상중계 | 미얀마 파욱 사야도가 지도하는 호흡관 수행법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열린불교, 열린경영 | ❷ 한마음선원 리포트
군법사 포교기 | 강원도 양구 노도부대 의선사, 백태현 법사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어느 노부부의 들꽃사랑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문화기획 | 소설가 김종록이 쓰는 '바이칼에서 만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한국자수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미국 하버드대학 일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금맘 먹고 종교를 버려보자"
해외통신 | **옥스퍼드에서 띄우는 편지**
영국의 작은박물관, 옥스퍼드 두 박물관에서 문화의 힘을 느끼다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나른한 봄날을 위한 산야초 별식
건강에세이 |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치유법
억불시대 수행열전 | 조선시대 면벽 좌선으로 어둠을 밝힌 이들
생활 속의 불교설화 | 명색(名色), 본질이면서 껍데기인 그 오묘함에 대하여
고전읽기의 즐거움 | 외롭고 한가한 수행자, 범주사 고한(孤閑) 대사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❷ | 서울의 엣다리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제8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 8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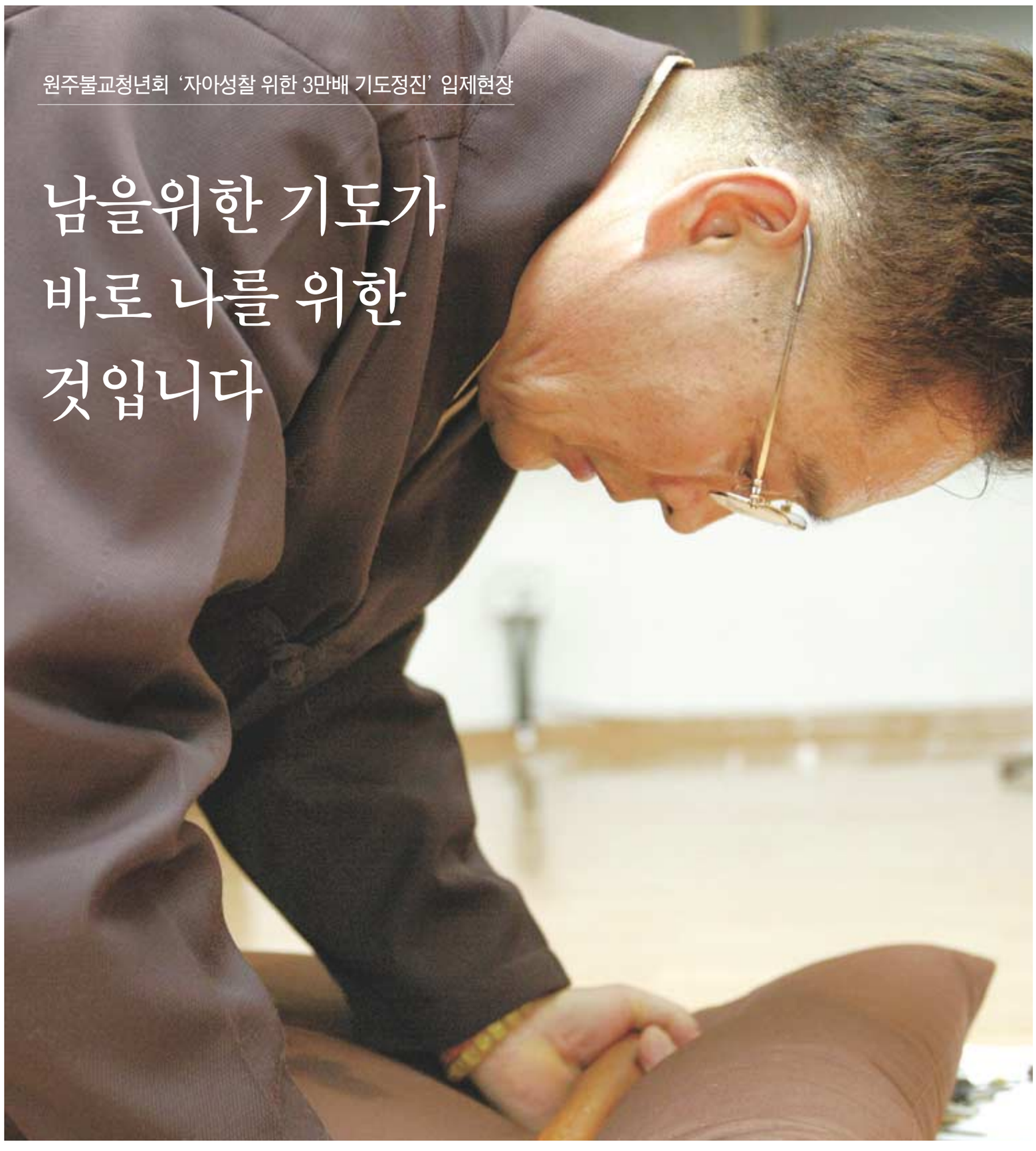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① 건당(建幢) ② 재가 · 출가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 의 미 ◇ 역사적 의미, 전개 ◇ 지역적 전개 양상 ◇ 현재적 의미와 현상 ◇ 미래지향적 모습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 접 수 마 감 - 2006년 4월 28일(금요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5월 30일 예정
• 당선논문 발표회 - 2006년 11월 24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편당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sanghun515@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절 하기전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마음을 모으는 불자들.


한 불자가 발원문을 함에 넣고 있다.



원주불교청년회 조대호 회장이 3만배 기도정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혜 스님이 300염주를 참가자에게 전하고 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또 인과에 의해 그 행복이 내게로 전부 다 오는 것이다."

'가야산 호랑이'로 불리며 수많은 후학들을 제접했던 성철 스님은 자신보다는 남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남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연기(緣起)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잘 살수 있게 한다는 가르침이다.

성철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강원도 원주 지역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원주불교청년회(회장 조대호)는 100인이 100일 동안 매일 300배를 릴레이로 진행하는 '자아성찰을 위한 3만배 기도정진'을 3월 30일 시작했다.

100인이 100일 동안 매일 릴레이 300배
300염주에 상생 염원 담아 간절히 정진

시작할 때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

3월 30일 저녁 7시. 원주천을 마주하고 있는 원주불교신도회관에 삼삼오오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직장을 마치고 달려오는 중년의 신사와 젊은 청년, 그리고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온 주부 등이 넓지 않은 법당을 순식간에 메웠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삽시간에 법당은 100여명의 불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렇게 신도회관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 '자아성찰을 위한 3만배 기도정진'에 동참하는 불자들이다.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이번 기도정진은 원주불교청년회 일꾼들의 의기투합에서 출발했다. 지난 2월 11일 원주 연화사에서 1080배 정진을 했던 청년회원들은 원주 지역 불자들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고, 의견을 모은 결과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을 열기로 한 것이다. 원주불교청년회는 또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300염주도 마련했다.

원주불교청년회 조대호 회장은 "취지를 들은 불자들은 한결같이 동참의사를 밝혔고 지금은 정원이 넘쳐 동참하지 못한 불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법당에 도착한 불자들은 정성껏 적어 온 자신의 발원문을 한데 모았다. 황정석(58 · 원주시 일산동)씨는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부처님이 됐으면 한다"며 "300배를 하는 6월 24일에는 부인과 함께 불교회관에 와서 정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한다.

유정순(74 · 원주시 중앙동)씨는 "몸이 아프긴 하지만 아직 장가를 못간 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는 5월 31일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유종우(60)씨와 장만복(55)씨도 "원주 지역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원주 지역불자들이 진정한 '대승보살'로 거듭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원주불교사암련 회장 경혜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시작할 때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마음과 같다고 설하셨다"며 "100일의 정진 기간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만하게 회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00일후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입제 법회가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이 원만 회향을 발원하는 108배를 시작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인지 108배를 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에서 굳은 의지가 묻어난다. 15분만에 108배가 끝나고 3만배 정진의 출발을 알리는 원건상(48)씨의 300배가 계속됐다.

원주 지역에서 5년 전부터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씨는 원주불교청년회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원주청년불교의 산 증인.

'절만큼은 자신 있는' 원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다른 불자들은 이미 자리를 떴지만, 청년회 후배들의 격려에 원씨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3만배 정진의 출발테이프를 잘랐다.

원씨는 "원주 지역 신행단체가 16개에 달하지만 따로 활동을 하다보니 역량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정진을 계기로 기복(祈福)이 아닌 작복(作福)의 풍토가 지역불교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는 바람까지 토로했다.

청년회 남선희 재무부장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진한다면 모두의 바람대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7월7일 100일간의 기도대장정을 마치고 난 후 자신과 이웃이 어떻게 변해있을까? 100명의 동참자들은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원주/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http://ad.buddhapia.com
빠른 속도로 실시간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행사연등


※장식용 수술은 별도



공단등 28Cm(大) /24cm(中) /18cm(小)
색상 : 황금,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1Box20개입/8cm:1Box16개입/10.5cm:1Box12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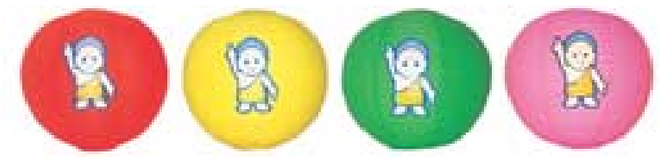


비단팔모접등 28cm × 24cm 색상 : 분홍,노랑,초록,빨강



※ 주문제작가능

팔각조립등 26cm × 28cm 색상 : 분홍,파랑



캐릭터 비닐 만월등
봉축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등
색상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풍경등
색상 : 노랑, 빨강, 녹색, 파랑, 분홍
수량 : 1Box 100개입, 색상별 20개씩 가능
등표(이름표)를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관리가 용이합니다.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폭 90cm / 길이 6m (48,000원),7m(56,000원), 8m (64,000원),10m (80,000원),12m (96,000원)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환영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사찰용 연등전선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만월등 32cm ×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고급본염인쇄



중등 40cm × 27cm
색상 : 노랑,연두,분홍,빨강,파랑



황금연등
재질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6인치(폭 19.5cm × 높이13.5cm)
8인치(폭 23cm × 높이18.5cm)
10.5인치(폭 28cm × 높이21.5cm)
13인치(폭 34cm × 높이30cm)
20인치(폭 48.5cm × 높이40cm)
※ 장식용 수술 별도



연등철사
6cm, 8cm, 10.5cm, 12cm
(50개 1묶음)



연등연잎(일반형)
분홍, 진분홍, 노랑, 주황,
빨강, 녹색, 흰색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장엄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엄)현수막 ₩40,000원



연 국 수





- 1개 3,500원 : 3인분(300g)
- 1박스150,000원 : 50개 (150인분)
- 연(蓮)국수에는 전남 무안의 깨끗한 백련잎을 여러 번 덖고 찌고 비벼서 말려 인체에 유해한 왁스층을 제거한 백련잎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근분말이 함유되었으며 스님들의 영양식으로 쓰이는 연꽃씨앗 분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꽃 화장품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출시기념 특판보급!!)

- 구성 :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1개 +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2개종류 (여성용, 남성용)
- 가격 : ~~78,000원~~ → 48,000원(출시기념)

※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의 특징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 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단체행사용품

50개이상 구매시 20% 할인


- 연꽃 메모꽂이 8,000원


- 코끼리 메모꽂이 8,000원


- LED라이트 알람시계 18,000원
어두운 밤에도 이 버튼을 누르면 아름다운 LED라이트와 함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 : 핑크, 그린, 화이트


- 십이지 핸드폰걸이 5,000원
앙증맞은 유리병속에 수련씨앗과 14K 금도금된 12지가 들어있습니다.
*핸드폰줄의 유리병을 분리하여 목걸이 팬던트로도 사용이 가능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농협 053-01-267081 / 국민은행 023501-04-074548 / 하나은행 111-910006-86204 (예금주:마하몰)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각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	천	수	각	사	바	경
안	도 재	륙	시		라 나 비	
식	49 재	재	식	물	충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대장,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아름다운 섬 통영 사량도
상도 불모산 옥녀봉 탄금사
관음기도 영험도량 불사중
동참 소중한 인연 발원
017-229-865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빡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종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직보살구합니다
(PC가능자, 법당에서 일해본 경험자)
보수 : 100-150만원
031)559-0891

신비의 학문 인사정단의 왕 **육 임**
기초에서 통변까지 특별비법 전수 (기상론) **命 理**
철학박사 위 덕
010-2323-1499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 울산지역
052)243-388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51)632-0546
016-677-2238

산중사찰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696-8500

급히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부하시는 학생스님도 환영
▷ 안산 백련사
011-707-5551
031)485-9411

법당,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세이하
전북 고창
063)564-2861

주지 및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스님 모두 가능합니다
011-589-2409

비구부전스님
불심돈독하고
pc(엑셀)가능한 50세이하
女종무원 구합니다
061)352-8097
019-320-9926

사찰에서 운전 기사나 처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
010-2385-3455

기도정진하실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및 처사님도 찾습니다
011-9803-630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포항
010-7160-2734

미국가실 비구,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소유)
042)282-9270
042)282-7188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2)3411-8103
011-9795-7602

개인사찰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
책임지고 맡아
운영하고 싶습니다
비구승입니다
017-571-5599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사찰관리하며 서로 탁마
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실
비구니 스님들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533-4203
011-9790-1779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053)632-4844
053)641-4844

사찰을 운영하실 수 있는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010-3138-4897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 60%드림
조계종스님
051)621-053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월 100만원
▷ 서울지역
010-7225-2537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처사님을모십니다
운전면허소지자 환영
041)864-9143
011-392-6885

기도(부전)스님, 행자구함
경기도 가평산사,
약수좋음. 태고종 사찰입니다
011-722-3418
031-584-0117
02)2292-3418

평생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55세-65세)
018-427-2256

스님두분을 모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 경기도 남양주
031)594-2754

도심사찰인나
포교당 주지소임
원합니다
법납21년
비구승입니다
010-8364-0408

제1기 **제1기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①우리말 천수경 ②분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중요함
●지방분 환영 ●포교활동 하실분 ●스님동참환영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 ●전국만행 ●맨발등산 하실분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신행단체 특강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635-7008 상담은
018-789-5008 서울739-5008 마산245-2662 중요합니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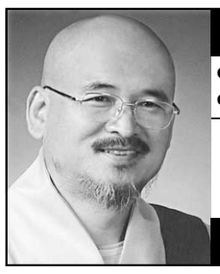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수강회원모집
◆ 周易原典講座 개강
◎ (수) 오후 7시~9시 - 4월5일개강(주역 계사전)
◎ (수) 오전 11시~1시 - 5월3일 개강(주역입문)
◆ 중용(中庸) 개강
◎ 매주 (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4월5일 개강
◆ 논어(論語) 개강
◎ 매주 (목) 오후 7시~9시 - 5월 4일 개강
◆ 월 수강회비: 주역 7만원, 기타 6만원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www.dongbang.or.kr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고급" 1자 지장보살(청자 · 백자)
1,000불 저렴하게 드립니다
※ 한정판매 300불 이상 선착순
● 높이: (좌대포함) 약 34cm ● 넓이: (가로) 약 14cm
● 가격: 1불당 12,000원
● 요장: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 판매 연락처: 042)282-2334
016-606-565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학인(염불)스님. 행자승 모집
재(齋)의식, 염불(각단불공)을 배우고저 하시는 스님, 전법사, 천도재의식, 상단불공, 관음불공, 지장불공, 신중불공, 조왕, 산신불공, 용왕불공, 칠성불공, 삼재풀이불공, 시식, 목탁, 법고, 태징, 사물 다루는법을 성심 성의껏 기초부터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특히 스님이 되고싶어 출가를 결심하고 망설이고 계시는분 환영합니다. 문의 하십시요!
(원하시면 득도후 행자 기간을 거쳐 순천 선암사 강원이나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보사 주지 석경보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문의전화 051)364-4889 / 0502)364-4889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 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宗團害宗 行爲者 摠奪度牒 公告

(종단해종행위자 체탈도첩 공고)

1) 울산시 울주군 (관음사)
● 속명 : 권윤기 ● 법명 : 청담 ● 법호 : 벽담

2) 원주시 행구동 (목련암)
● 속명 : 김한규 ● 법명 : 능각 ● 법호 : 어담

상기자는 본종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단요직자에게 회,욕적 행위와 도당을 작하고 종단의 화합을 파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하여은,법 상좌에게 절연 산문출송(체탈도첩)토록 제58차 정기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를 공고하고 각 종단에 정식공문발송(2006년 03월 16일자) 함.

불기 2550년 03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현옹 전남정 (印)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망사 단화	기능성 지압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60평의 위치, 교통 좋은 포교원에 마음껏 원력을 펴실 능력이 준비된 비구, 비구니 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시설 : 한옥식 황토벽, 게르마늄 맥반석 온돌방, 법당 24평, 접견실2, 방2, 욕실大, 주방2(엘리베이터有), 옥상 단독사용 (채소재배).
● 가액 : 3천5백만원에 월50만원 (전월세 조절가)
● 시설비 : 2천5백만원(협의가) (부산 301-4949)

011-9193-2351, 011-301-4949

사찰안내

1.남한강토굴 1000평-3억5천
2. 팔공산큰절-30억
3.김해사찰 1600평-25억
●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종 800평,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4개, 창고 50평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2천만원

055)883-8846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터 -

● 위치 : 밀양
● 법당 : 30평
● 요사 : 각30평 2동
● 부지 : 11,000평
● 가액 : 10억

● 위치 : 포항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60평
● 가액 : 6억

● 위치 : 경남사천
● 총평수 : 7,000평 ● 가액 : 1억6천
● 위치 : 경북포항
● 총평수 : 700평 ● 가액 : 3천만원
● 위치 : 경북봉화
● 총평수 : 10,800평 ● 가액 : 8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8천 7백만원

011-595-787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사천읍 구암3동
● 평수: 1000평
● 조립식건물 2동
● 심야보일러 1300m 암반수
● 가액: 시가1억5천만원

016-9559-8889
055)854-3408

제주도안내

● 사찰 및 사찰터 농가주택, 과수원, 전원주택
● 시내근교땅

064)711-1447
011-9773-441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대지: 400여평
● 건물2동(100여평)
● 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
● 포교원으로 매우 적합
● 가액: 12억

011-587-2275

● 위치 : 서울 국립공원 내
● 부지 : 약 500평
● 법당 : 약 20평
● 요사 : 2동
● 가액 : 5억5천

● 위치 : 대구
● 부지 : 약 5천5백평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9억(대불사중)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안내

● 위치: 영천 I.C에서20분거리
● 대지 350평 임야 200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 가액: 2억원(절충가)

016-831-30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3층건물중 2층, 아파트 밀집지역 대형마트 2층, 교통 최요지 지하철2분, 버스2분거리
● 평수: 60평 외 30평 (필요하신분은 가격절충가)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51)507-0555
051)502-5634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042)585-3573

포교당안내

● 위치 : 대부도 내
● 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
● 가액 : 1,000만원 6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010-4215-9119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표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산신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찾습니다

서울근교 산중사찰을 전세 놓으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011-436-0097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화악산 자락
● 대지: 270평 법당: 목조기와 단청 남향 요사: 3동 황토 심야보일러
● 지방문화재 가까움 산세 계곡 수려함
● 가액: 5억7천만원
● 집기일체양도

011-9058-1051

사찰안내

● 위치: 안산 본오동
● 3층건물중2층
● 평수 40평
● 가액 : 3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가격절충

011-785-5670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오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11-599-8476

최고의 사찰 부지

● 山水 최고의 명당 대청호변
● 총4400坪 중 대지 905坪 土木工事 완료
● 가액 : 10억원
● 위치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549-2
연락처 010-8403-9205

암자토굴안내

● 위치: 안산시 본오동 약수터 입구 후면에 산과 등산로 약수터 체육시설 및 시관할 주차장을 공사중
● 현재 식당 영업중
● 대지: 75평 건평: 75평(1, 2층 내부 계단)
● 가액: 4억

011-259-4068
019-9150-40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청옆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일체시설완벽, 부처님 5불, 아미타불, 호신불 250평, 불단 옥탑에 산신각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6244-9111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 250평, 건평75평 구조 : 법당,요사,창고 ㄱ자 형, 현대식 건물
● 산좌 수려,기도도량 최적지
● 용도 : 명상센터,단식원 아파트개발 예정지 근처
●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
● 가액 : 2억 2천만원
※女행자 모집합니다

011-606-1976

암 자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포교당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가액: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수련원안내

● 위치: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 평수: 대지 470평 건평: 51평
● 부속건물: 정자 실외화장실
● 용도: 명상센터, 단식원, 전통찻집
● 가액: 9천3백만원

011-9430-1144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IC 5분거리 대전역20분
● 대지: 250평중 100평대지 법당: 25평 산신각5평(목조) 부속건물18평 11평 주차장
● 가액: 1억2천. 시설및 집기완비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불로동 부근
● 65평, 주방, 방3칸, 삼존불, 소불(지장불 100불, 관음불 100불)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 / 시설비500만원

011-509-152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요지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2채, 방4칸 주차장
● 가액 : 7억(절충가능)

018-554-619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익산시 함열
● 평수 151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 건물 현대식
● 가액: 1억5천만원

011-811-54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입구 요지 수비사거리(벡스코 부근) 지하철 시립미술관 2번 출구 앞 8차선 도로 옆 6층 건물
● 6층건물(100평),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여유공간 30평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전세 5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월세 40만원

011-555-411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부산 구포시내
● 건평 60평70년된 사찰, 방4개, 법당, 산신각, 용왕각
※주지 취임관계로 급히 안내함 몸만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기차, 버스, 교통여건 좋음
● 가액 : 2500만원에 월25만원

017-252-7405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상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1억

010-4510-0108
011-9126-895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소재 (교통편리함)
● 법당: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최적지
● 평수: 약 2000평
● 건물 2동, 창고 1동
● 자세한것은 주인과 전화상담

055)573-7525
010-4549-7525

임야(터)안내

● 위치: 경남,거창,산청 경계지역 청정한 대자연의 명산 도로, 계곡, 전기 인접하며 절터 별장 기도원등 다용도 가능한 조용한 명지
● 평수: 약 2만평
● 가액: 1억1천만원

011-570-131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상리면
● 산세수려한곳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약 900평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9232-6462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근교
● 거리: 서울에서 1시간 원주터미널 원주역에서 10분거리
● 총교용지800평외 320평, 보궁20평, 법당30평 신축요사채 50평(심야전기보일러)
● 산신각 미륵대불 3층불보탑
● 삼십년이상된 사찰임
● 건강상 사유로 급안내
● 가액: 4억9천만원(절충가능)

018-731-8205/011-361-05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부근 2층
● 약 80평(주차시설 완비)
● 법당, 삼존불(동), 후불, 신중탱화 방사 4개, 공양간
● 가액: 일억사천만원 보증금 7천만원(월세,관리비 없음) 시설비 7천만원(절충가능)
● 서울,구리,성남,이천,원주 일대 포교당과 교환가능

011-9788-3306
011-9987-221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주변 정남향)
● 대지: 88평(국유지 150평 사용가)
● 건물: 50평(방6, 부엌, 거실, 사무실), 법당: 10평
● 특징: 심야전기보일러(대형), 기름보일러 2대(예비)
● 가액: 3억2천만원

054)976-0900
017-565-199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상가건물 53평 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삼존불외, 후불, 신중, 독성, 산신 탱화,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2개 시설A급
●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위치좋음.
●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7-508-2675
053)651-4027

토굴안내

● 위치: 경남
● 대지: 50평
● 건물 3동 임법당, 방2개, 입식부엌
● 배산임수로 촌낙의 끝자락 조용한곳
● 도지세 1년 8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4879-0223

점포안내

● 위치: 울산 옥동 울주군청뒤 대공원 앞
● 평수: 42평 2층건물중 2층 빈점포
● 선방이나 포교당 원하시는 스님에게 매우적합
● 가액: 3천만원 월 30만원 (전,월세 조정가능)

011-9514-3626
052)272-3626

암자안내

● 위치: 경남 김해 대동
● 대동IC 5분거리, 부산시내20분거리
● 대지 : 170평 법당,산신당 요사채9동
● 가액 : 1억 5천만원

011-557-9273
055)337-2233

포교원 안내

● 위치: 수원시 북수원 동신아파트 부근
● 평수 : 약 70평. 3층건물 중 3층 신축건물이며 옥상사용가능
● 법당, 스님, 친견실, 스님방, 공양간, 공양방, 샤워실 있음. 시설위치 특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304-0036

※ 포교활동해보니 좋은곳입니다. 최상의 포교원으로 사정상 안내함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

'가장 이상적인 불교학과의 표준은 무엇인가?' '예비승려사관학교인가 불교교리 학습을 위한 학과인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는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을 맞아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4월 7일 본교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00년과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불교학과 동문 선후배와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학과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보고 창조적인 비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세미나에서 발표될 논문을 요약 소개 한다.

타 학문과의 관계속 불교학 미래 찾아야

불교학 응용시스템 구축 시급

 # 불교학과 창설 100년, 걸어온 길과 비전21

강건기 전북대 교수



지금까지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배출된 동문은 2,500여명에 이르며 언론, 방송, 출판,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불교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3개 종단의 원장과 동국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 스님이나 본말사의 간부 스님들 중 상당수가 불교학과 출신이라는 점 또한 불교학과의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불교학과는 불교 발전을 위한 포교 인력의 양성과 종교학 연구의 산실로서 갖는 독특한 가치에 충실해왔지만 일반 사회를 향한 응용종교학의 개발과 대중화에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일부 예술분야나 종교심리학, 상담학, 봉사관련학, 어린이교육학 등 관련 사회학문이 해당 종교의 학과목 중 하나로 개설되어 있어 그 연구나 활동의 울타리는 해당 종교의 언저리라는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학과가 현실적 실용학문에 접근해 인성교육과 경제 사회를 위한 응용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용불교학 시스템 구축 △순수불교학 연구 토대 마련△보살불교 지향 △다양한 불교문화 ·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등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변화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생명, 평화, 환경 등을 주제로 한 불교학 응용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응용불교학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행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불교사회 전반의 모습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응용불교학과 순수불교학을 두 축으로 삼아 보살불교를 지향해 한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교수보살,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생보살의 모임으로 불교학과를 이끌어야 한다.

졸업자에 일자리 마련해 줘야

 # 불교학과의 현재와 미래

이평래 충남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는 스님과 재가자 등 사부대중이 어우러져 함께 불교이론을 공부하고 실천을 몸소 쌓아가는 모범적인 전인교육의 실례라는 점 세계 유일의 명문불교대학으로 평가된다.

불교학과는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행복인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이상을 가진 도반들의 모임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아야 할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졸업 후 자립경제 기반 구축의 비현실성일 것이다.

불교학과는 깨달음이란 성스럽고 거룩한 이상을 내걸고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불교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닦은 학문지식과 수행체험을 살려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종단과 재단은 공동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헌 · 종법 · 종규를 개정하여 모든 사찰에 교육분담금을 부과하여 교육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불교대학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로부터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가치관 · 인생관 · 불교관을 심어주는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다. 불교대학은 종립대학교의 종책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재가학생은 졸업을 하는 것으로 끝이다. 종단의 차원에서 그들을 활용할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이다. 불교학과 졸업자들에게 포교사 고시 등 각종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마련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미래문명 가능성 모색 활발

 # 불교학과 100년사의 재조명

이봉춘 동국대 교수



불교학과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명진학교의 설립 정신은 한마디로 '새로운 문화창조와 시대 개척을 위한 불교정신의 현재화(顯在化)'로 요약해 말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정신전통에 비추어 볼 때 명진학교는 단순히 시대에 낙후된 불교교육의 개혁을 위한 신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문화창조의 산실로서, 시대를 개척해 갈 불교정신의 실험도량으로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학 연구에 대한 자각과 개척의 단계에 이어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한국불교학의 형성과 정착단계로 상정할 수 있다.

불교학과는 1980년대부터 그 기반이 더욱 확대 · 강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요인은 그동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배출해낸 석 · 박사와 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학자들이 저마다 저술과 논문발표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학문 · 다문화적 접근과 개방을 시도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 무렵부터는 응용불교학과 실천불교학 연구의 전성기를 맞는다. 응용 · 실천불교학은 아직도 그 이론체계나 연구방법 등이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문적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래의 순수교학 · 역사 · 인물 등의 연구와 같은 제한된 테두리에서 벗어나 타 학문과의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불교학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 불교학과는 미래문명과 불교를 관련지어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리=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6>

남해 보리암

지난주에 남해 보리암을 다녀왔다. 남해 금산의 남쪽 정상 부근에 위치한 보리암은 서기 680년경, 원효대사가 초당을 짓고 수도를 했다는 곳이다.

남쪽 바다를 향해 서 계신 관세음보살상이 아름답기 그지 없다. 관세음보살상을 뒤로 해서 금산의 바위가 절경을 이룬다.

마침 일요일 법회가 진행 중이었다. 스님은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념'이라고 강조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천 리 만 길을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

아마 기도를 하면서 자식 걱정, 집 걱정, 심지어 미운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 등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을 하는 주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마치 파도가 들어올 때의 소리와 나갈 때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을 하나하나 주시하면서, 그 주시하는 '자'를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매달리는 에고(혹은 아상)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한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이해할 수 있다.

청각 신경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신호로부터 뇌가 인식하고 이를 정보로 저장하는 시스템은 참으로 복잡하고 신기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구조의 모습 또한 생존을 위한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박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짧은 파장을 가진 소리를 듣는다. 박쥐는 인간과 다르게

아름다운 봄, 산사에서 관세음보살상 보며 존재의 본질 깨친 위대한 자비심 느껴보자

표현한 말이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다듬고 일념으로 할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짧은 법회지만, 매우 인상에 남는 법회였다.

어떤 역사서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수행기가 등장한다. 바다의 소리를 관하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길을 완성한 분이라고 한다. 스스로 실험을 해보자. '관세음'이라고 스스로 불러본다. '관'이라고 하면, 그 다음 '세음'을 연상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인간의 일반적인 감각기관의 연상 작용은 아마 경험(혹은 업)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작용이다. 그러나 관, 세, 음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 나를 계속 주시하는 수행을 함으로써, 관, 세, 음 하나 하나의 음을 분리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 '관'이라는 음을 들으면서, 세, 음을 연상하게 세계를 인식하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을 그려낼 것이다. 과학은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이 이 세상 모든 사물의 모습이 '공'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넜다'라고 한다. 놀랍게도 부처님은 수천 년 전에 존재의 본질이 '공'이라고 하고 이를 체득한 사람만이 '잘못된 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관세음보살과 같이 '가짜 나'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보이는 자비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있을까. 아름다운 봄, 산사에서 만나게 되는 관세음보살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던 위대한 자비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신비한 천연수를 소개 합니다

민족의 명산 태백산령 형제봉 자락에 위치한 약사도량 정심사의 신비한 천연수를 복용하시거나 환부에 바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위염 및 위궤양, 화상, 염증, 알레르기, 주부습진**등의 괴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령스러운 신비한 천연수를 복용하시거나 환부에 바르시면서 치료의 효과를 체험하시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주소창 또는 검색창에서 **한국불교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신비한 물 안내 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령 형제봉 정 심 사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216번지 버스종점
TEL 033)534-3956~7 / H · P 010-3300-0408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9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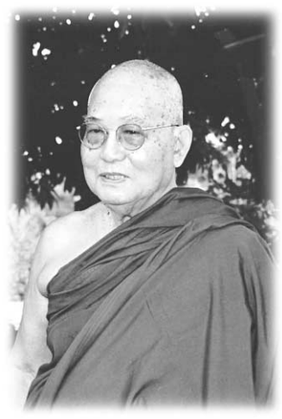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6년 4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06년 4월 11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세계적인 위빠싸나 큰 스승 우 빤디따 사야도
초청 명상 수행 안내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타에서는 봉인사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위빠싸나 수행의 큰 스승이신 빤디따라마 쉐다웅꼰 사야도지(우 빤디따 사야도)를 모시고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42일간의 집중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수행 기간 동안 교학과 수행이 높으신 우 따마네죠 사야도와 두 분의 세얄레이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야도지와 함께하는집중 수행은 마하시 방법의 위빠싸나 명상 수행이며 위빠싸나 수행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임으로써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입니다.

계율이 청정하시며 또한 자애로우신 사야도지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귀한 기회이오니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 센타 · 봉인사 합장

1. 수행 기간 : 2006년 4월 15일 - 5월 26일(42일간)
2. 수 행 처 : 봉인사 (www.bonginsa.net, 031-574-5585)
3. 접수일과 접수처(문의) : 3월 14일 - 3월 31일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타
전화 : 02)2235(2232)-2841 / 이메일 : byunsh1@hanmail.net
http://www.panditarama.com

※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로써 선업 공덕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주문



서산대사 486주년 탄신대제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4월 7일 경내에서 서산대사 486주년 탄신대제 및 제12회 나라사랑 글쓰기대회를 봉행한다.



부산 복지청소년기관협회장 유임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은 3월 15일 양정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2006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유임됐다.



법장사 창건 15주년 법회

서울 법장사 주지 법장 스님은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법장사 큰법당에서 창건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971-0303



합천 연호사 주지 취임

합천 해인사 원당암 암주 진각 스님은 3월 30일 해인사 말사인 합천 연호사에서 진산식을 봉행하고 주지로 취임했다.



'바른 절자세…' 강좌

의왕 정림사 주지 일행 스님은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바른 절자세, 기도수행은 왜 하는가?'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 031)426-4004



자비의전화 기금마련 음악회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은 4월 13일 오후 7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4시간 전문상담기관 자비의전화 기금마련 마음산책음악회를 마련한다.



효림노인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

수효사 효림원 이사장 무구 스님은 3월 31일 효림원 산하 효림노인복지센터 1주년을 맞아 효림원 8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봉행했다.



무형문화재기능협 이사장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관장(목아박물관)이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새 이사장으로 3월 29일 선임됐다.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연수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김재일 회장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4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을 개최했다.



불교 기초영어 강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김봉래 회장은 4월 1일부터 2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만해교육관에서 '불교 기초영어 강좌'를 진행한다. 02)722-2206

제10회 만해대상 포교부문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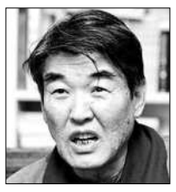
문학 로버트 핀스키 · 황동규 평화 김지하 실천 박원순 학술 권영민

8월 12일 만해축전서 시상


남바린 엥흐바야르


로버트 핀스키


황동규


김지하


박원순


권영민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3월 29일 제10회 만해대상 포교부문에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공화국 대통령, 문학부문에 로버트 핀스키 교수(미국 보스턴대) · 황동규 시인(서울대 명예교수), 평화부문에 김지하 시인, 실천부문에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학술부문에 권영민 교수(서울대)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교부문 수상자인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공화국 대통령은 불교 중흥이 바로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을 갖고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인 자리이타와 하화중생의 박티(헌신)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문학부문의 로버트 핀스키 교수(미국 보스턴대)는 만해 한용운의 시에 담긴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보편적인 인류애로 새롭게 해석하는 등의 문학활동을 인정받았다.

문학부문 공동수상자인 황동규 시인은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과 예수는 물론 원효 등을 등장시켜 종교사상의 시적 융합을 꾀한 것이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됐다.

민주화투쟁과 문학을 통한 생명 · 평화운동 등 생명의 언어와 평화운동의 메시지를 시에 담아온 김지하 시인은 평화부문 수상자가 됐다.

인권변호사 박원순 상임이사(희망제작소)는 참여연대 발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름다운 재단을 결성해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운동에 나서는 등 성과를 보여 실천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민족적 불사 … 정진하는 마음으로"

신계사 단청불사 착수 김준웅 단청장



"부처님의 궁전을 장엄하다보니 조그마한 암자나 큰 국보급 사찰이나 마음이 경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전소된 신계사가 복원되고 단청을 맡게 돼 긴장되고 더욱 설레입니다."

4월 4일부터 3개월간 금강산 신계사 단청 작업을 하는 충남 무형문화재 제33호 김준웅 단청장(사진)은 범민족적인 대작불사이니 만큼 항상 기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단청불사에 임하겠다고 말한다.

신계사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산식각 등 4개 전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청불사에는 남측 대표로 김준웅 단청장 외 3인, 북측 대표로 조선문화보존사 단청실장 김수용씨를 포함한 20인이 참여한다. 남북 대표자들은 지난해 12월 9일 공동 자문회의를 갖고 <조선고족도보>의 신계사 사진을 토대로 단청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쳤다.

황해도 신촌면 사동리에서 태어난 김 단청장은 "어서 남북 통일이 되어 고향땅을 밟아 보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김두식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이사 동광 · 정묵 스님 선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광(청담문화재단 이사장 · 사진 왼쪽) · 정묵(대구 선본사 주지) 스님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2명의 이사는 추후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2005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승인,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심사에 이어 지역본부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비 기자



위안부할머니가 나눔의 집에 1천만원 '쾌척'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할머니 중 한명인 김군자(81 · 사진) 할머니가 나눔의 집에서 건립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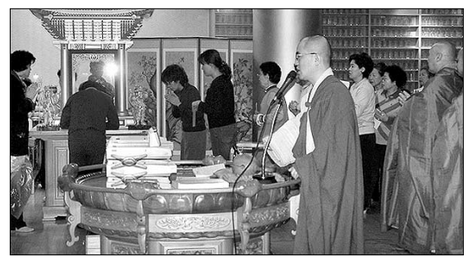
김군자 할머니는 지난 2000년에도 아름다운 재단에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평생 모은 재산 5천만을 기탁한 적이 있다. 김군자 할머니는 17세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해방되던 해까지 3년 동안 중국 훈춘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이은비 기자

주한 스리랑카 대사 일행 해인사 방문



주한 스리랑카 대사 부부와 대사관 직원 및 가족 등 10여 명이 3월 24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를 방문했다. 비제야시리 대사 일행은 대적광전에서 참배를 하고, 홍보관에서 팔만대장경과 해인사에 관한 영문 홍보물을 관람했다. 또 점심공양을 한 후 주지 현응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장경판전을 참배했다.

하얀마음선원, 진신사리 봉안법회



분당 하얀마음선원(주지 덕봉)은 3월 28일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2과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진산사리 봉안을 축하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가 지원하는 15인 남녀혼성 국립전통무용단이 스리랑카 캔디왕국의 고전적인 춤인 캔디안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광주 원각사, 외국인노동자 초청법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와 한꽃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고영순)는 3월 26일 원각사에서 '스리랑카 외국인노동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안산 마하보리사 와치싸라 스님의 법문과 기도 후 외국인노동자들이 윷놀이와 스리랑카 전통음식으로 문화행사를 가졌다.

관음사 청주불교문화대 제1기 입학식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가 개설한 청주불교문화대학 제1기 입학식이 3월 28일 봉행됐다. 법주사 승가대학 강주 철운, 청주불교문화대학 학장 현진 스님과 지역기관장 및 신행단체장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입학식에서 직지심경 번역본인 한글판, 영문판, 독일어판을 부처님전에 봉정했다.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단합등산대회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은 3월 25일 마포 불교방송으로 학사이전 후 첫 야외행사인 춘계단합등산대회를 진행했다. 허경구 학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등산대회는 승가사에서 사시예불을 시작으로 점심공양 후 재학생과 신입생간의 단합과 학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4. 6 (목요일) 14:00 - 18:00 (7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불자 세상보기

조 병 갑
칼럼니스트

악덕기업과 불감소비자

자고 깨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정치와 경제가 시끄럽고, 교육과 문화가 시끄럽고, 종교가 시끄럽고, 환경이 시끄럽고, 먹는 것이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는 것이 없이 세상은 온통 시끄러움으로 가득하다.

지진과 화산과 태풍과 쓰나미가 가공할 위력으로 인간 세상을 위협하며 자연재앙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엊그제는 모 재벌그룹의 레저시설에서 일시에 몰려든 무료입장객 수 만 명이 뒤엉켜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인간 세상은 생로병사가 아니더라도 갖가지 위험으로 충만해 있다. 천재(天災)는 물론, 문명의 이기로부터의 위험이 천재를 능가할 만큼 가공스럽게 되었다. 오래 전에 런던의 스모그가 인간세상을 경악케 하더니 대만의 행텐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와 이태리의 익메사와 인도 보팔의 다이옥신 유출사고가 또다시 우리를 경악케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리역 열차 화약폭발사고, 낙동강의 페놀 유출사고, 여수 화학공장의 화학 융합로 폭발사고를 비롯하여 입장객 사고만 하더라도 서울역 승객 입장사고, 몇 달 전의 상주공설운동장 입장사고에 이어 똑같은 사고가 엊그제 또 롯데월드에서 발생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번 사고는 그 이전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실추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로 선심무료개장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기업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스스로 자기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하루에도 수 천 명이나 입장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스스로 상상이 안되는 안전불감증으로 놀이시설에 탑승하여 목숨을 잃는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넌센스라 할 것이다.

모 항공사의 여객기가 구소련 무르만스크에 불시착한 사고나 사할린 앞 바다의 격추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이라고 스위스재보험사의 고위관계자는 추정했다.

수년전에 모 수도 사업소의 직원은 "소독을 위한 크로칼키의 투입은 대충하는 것"라고 말하더니 모 제과업체의 회장은 "사업은 과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입활어는 보세수조에서 검역도 하기전에 밤새 밀반출되고 있었고, 수산시장의 활어판매장엔 원산지 표시가 없어도 회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예전엔 백색조미료를 머리가 좋아지는 조미료라고 선전했고, 발암물질인 크로로핵사펜을 함유시킨 세수비누를 피부가 좋아지는 비누라고 선전했다. 얼마전에는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감미료가 아토피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도에 식품제조업자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어물쩍 논의나 검증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자본주의는 기업가의 기업윤리를 전제로 하는 경제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에만 눈이 먼다면 악덕기업일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은 고객들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덕은 계속되고 소비자는 둔감하여 불감증에 빠져있다.

인공위성이 아무리 커도 우주공간에서는 모래알 보다도 작은 것일 터인데 그것들이 무한의 우주공간에서 도킹을 하는 시대에 입장객 안전하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기업이 일류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자들이 연구의 목적물이 뒤바뀌어도 모르는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도박이 되고 코미디가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술 더 떠 그 난리를 떨고, 국민들은 그 과학자 그 정부와 함께 놀았으니 세기의 문명사가 코미디가 될 판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 갈 것인가?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소수종교단체인 원불교가 2007년부터 군종장교를 파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군의 불교포교를 독차지하고 있던 조계종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충격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종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그동안 불교 내부에서 천태종과 진각종이 군종법사 파견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불교가 군포교 현장에 합류하게 됨으로 불교계의 종단들도 요건만 갖추면 군종법사 파견이 가능케 됐다. 이 시점에 우리는 군포교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생각을 해야 한다.

첫째, 군포교 만큼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기는 없다. 어린이 · 학생 · 청년에 대한 포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층의 포교를 전략적으로 벌일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다. 종단은 보다 적극적 전략으로 계층포교의 황금어장에 불교의 미래를 걸고 종책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

군포교 현장 더 강화하자

사찰 1부대 지원과 군종교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불교 캠페인 등에 전 종도가 협력하도록 총무원이 본 · 말사 주지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군부대내 법당이 없는 곳이 태반이고, 법사들의 법회자료와 법회시 간식지원은 타종교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다.

셋째, 법사의 질적향상과 충원이다. 법사 후보생의 성직자로서의 신행과 의례 및 설법 그리고 품위를 훨저한 교육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 투철한 포교전법사로 양성하고 예편 후에도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마다 군법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부터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불교에 배정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타종교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국대 불교대의 정원확충과 천태종이나 진각종 등 타종단과의 제휴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종단에서는 지난해 군종교구 발족으로 군불교 포교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원불교의 군종 진출 결정을 계기로 불교의 위축을 염려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종단과 현역 법사들이 보다 더 훨저한 포교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삶의 질

내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인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벽암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월 28일 발간한 2006년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30개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OECD 회원국 중 7위였지만,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43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가계의 문화 · 여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공교육비는 GDP 대비 4.2%로 OECD 회원국 중 2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반면 사교육비는 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우리의 사회지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결국 자녀의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질높은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불행한 자화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계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2002년 기준 1.17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는 자녀부양으로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출산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국민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나아져야 한다.

■김원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스님 탁발은 안돼요

스스로는 어설픈 불자라 여기며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다. 소규모 식당업을 하는 나는 탁발을 다니는 스님들을 하루에 적게는 서너 번, 많을 땐 열 분 가까이 뵙는다.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사는 이곳은 유난히 스님들의 탁발이 잦은 듯하다.

일부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이 탁발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될 테지만, 때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다.

한번은 손님이 입구에 앉아있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다 드시고 가실 때까지 네 분의 스님이 가게를 다녀갔다. 손님 가운데 한분이 "요즘 절에는 XX만 있나" 하는 말을 들었을 땐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불자인 내가 봐도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탁발을 나온 스님에게 시주를 하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겠지만, 속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살피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의 관련 부서가 좀더 엄격하게 탁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주기를 당부한다.

인천(人天)의 스승인 스님이 일반인들에게 그저 탁발이나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김학리(경북 영천시 문외동)

상처는 함께 치유해야

최근 붓다뉴스(3월 29일자)에서 조계종 호법부장 도진 스님의 인터뷰를 보고 큰 공감하는 바가 크다. 불제자로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다.

도진 스님은 "상처는 도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치유하여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요즘 조계종의 현실에서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진정한 보살행이 아닐까한다.

대중이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지 못했거나 갈등을 일으켜 세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경우 그 상처를 단지 도려내는 것만이 능사라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상처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여기고 같이 치유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기는 쉽지 않다.

무조건적인 자비와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 없이는 대중승가를 유지하기 어렵다. 잘못을 저지른 자도 참회하고 정진하면 다시 대중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불교다.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대중의 화합에 대한 말씀이 늘 빠뜨리지 않은 것을 보면 대중이 화합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조계종은 근대에 들어서만 크고 작은 다툼으로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조계종만이라도 툭 하면 '법'을 찾고 고소 · 고발하는 일을 멈추고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대중화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애(붓다뉴스)

지운 스님 감사합니다

지난주(571호) 현대불교신문에서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강의가 인기라는 기사를 읽었다. 지난해부터 강주 소임을 맡으면서 불자들을 위해 매일같이 법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자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달려가 설법을 펴시는 그 모습에서 참다운 스님의 면모를 느꼈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스님의 처소인 심검당(尋劍堂)에서 다시 또 불자들의 질문을 받으신다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대구의 불자들이나, 불자들의 요청에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시는 스님의 모습이나 하나같이 아름답다.

일전에 스님이 송광사에 계실 때 지척에 살면서도 스님께 법을 물으러 다니지 못한 나의 게으름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대구의 불자들은 부디 열심히 배워 공부를 성취하시길 기원한다. 나 또한 역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 태평(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종합화학(주),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병은 무게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게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55기 - 4월 13일(목) 오후 2시 - 16일(일) 12시
56기 - 5월 18일(목) 오후 2시 - 21일(일) 12시
57기 - 6월 15일(목) 오후 2시 - 18일(일) 12시

〈매월 1회 실시 -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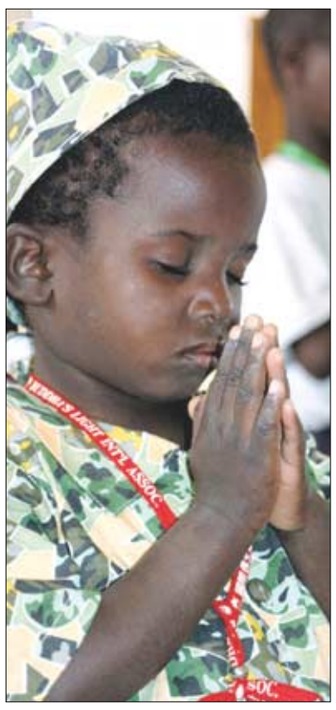
아프리카에도 불교가 있었네

홍진 스님의 말라위 '아미타불 케어센터' 체험기

아프리카에도 절과 스님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 본 불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 문명의 혜택은 고사하고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기 힘든 곳이 많은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나라 말라위 공화국도 예외는 아니다. 빈곤과 기아, 그리고 에이즈는 이미 이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하루에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곳에도 불교는 있다. 아니 이곳이야말로 불교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인지 모른다.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역경학과 3년)인 홍진 스님의 말라위에 있는 대만 사찰 '아미타불 케어센터'에서의 열흘 간 현지체험기를 싣는다. 홍진 스님은 아프리카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2월 17일까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소재한 대만 불광산사 사찰인 남화사와, 케이프타운과 더반의 남화사 말사 3곳, 말라위의 아미타불 케어센터를 둘러보았다. 〈편집자〉


말라위공화국의 아미타불 케어센터 아이들이 기숙사 앞에서 방문객들에게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예불시간에 합장한채 기도하는 흑인 아이.


홍진 스님


법당에서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케어센터 아이들.

아침 해가 어둠을 헤치며 속살을 터뜨려 세상을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였다. 어제 내린 비로 땅은 여기저기 패였고, 아미타불 케어센터로 향하는 길이 마치 한 폭의 그림같고 내가 그 그림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벌써 아이들이 아침 참선을 위하여 법당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 먼발치에서 보인다. 이 곳 아미타불 케어센터의 하루는 꽤 일찍 시작된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30분간 자리를 정리하고 세면을 하고서 법당에 모여 아침 참선을 한다. 참선을 마치면 6시에 아침공양을 하고, 6시 반이면 학교로 나선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안전을 위하여 보모 한 명이 동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진풍경을 발견한다. 아이들은 저학년 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에 농기구들을 들고 있다.

학교는 피아노는커녕 풍금하나 없고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에이즈로 고통받는 아이들

이곳 통계에 의하면 자연사를 제외하고 에이즈와 말라리아, 기아로 매일 10명이 죽어가며, 특히 에이즈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약 10만 명의 아이 중 4만 9000명이 대부분, 에이즈로 죽음을 당한 부모로 인해 버려져있다. 이는 태어날 적부터 에이즈 양성으로 태어난, 이 나라의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방치되어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구태의연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악습이 에이즈의 만연을 더욱 부추겨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케어센터가 위치한 마을에는 병원이란 없고 단지 한군데의 클리닉만이 있을 뿐이다. 1만 5000명의 주민 중 3000명이 에이즈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15~45세의 주민 중 60% 이상이 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그로 인해 다시 에이즈 양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버려져 기아와 병으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대만 혜례스님, 부지얻어 '케어센터' 오픈

이 곳 아미타불 케어센터가 말라위에 첫 발을 내리게 된 인연은 대만 불광산사 남아공 말사인 남화사의 창건주이신 혜례 스님이 성운 스님의 인간불교의 이념 실천을 위해 1998년 휠체어를 기증하면서부터였다. 그 때 혜례 스님은 말라위에 만연해있는 에이즈로 인한 폐해를 보고 실로 경악하게 된다. 그 규모와 실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본 혜례 스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 분명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제자로서의 강한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이윽고 말라위 대통령 부인을 설득하고 그 영부인이 다시 정부를 설득하여 34ha의 땅을 고아원 건립 부지로 얻어내 이름을 아미타불 케어센터로 명명하고 뜻있는 화교신도들을 규합하여 설립자금을 마련, 건물 100동에 2천명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규모로 2003년 11월 2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모두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완성하여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하고, 2005년 10월, 우선 1단계로 건물 다섯 동을 완성하여 100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기부자들과 정부 관계자 및 스님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케어센터는 아쉽게도 이 나라 정부로부터 건립 부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지원이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상식으로 예상되는 아동 1인당 보호수당은 커녕 전기, 수도료 등 그 어떠한 것도 감면이나 혜택이 없다. 하다못해 관공서에서의 간단한 서류접수마저도 평소 해당 공무원에게 선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다.

말라위정부 관리들은 자신의 정부가 보살피지 않는 버려진 아이들을 외국에서 온 이들이 보살피는 것에 어떠한 감사의 마음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고로, 정부 관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게다가 새로 바뀐 대통령마저도 전임 대통령이 벌려놓은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태도다.

부처님 생애 배우며 성장

현재 아프리카 53개국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스리랑카 사찰이 3개국에, 큰 규모의 대만사찰이 2개국에 있다. 아프리카에서 사찰은 5곳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로 간 아이들은 오후 1시 반이면 모두 케어센터로 돌아 와 점심공양을 하고서 얼마간의 자유시간을 갖는다. 이곳의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다. 그저 돌멩이나 유리조각 등으로 흙바닥에 뒹굴며 노는 정도고, 그래서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요일별로 달리 마련된 일정으로 찬불가와 율동, 중국어를 배우고, 또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

이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는 7~8년 후부터는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정부의 부패와 구습을 타파하여 이 나라 말라위도 변해갈 것으로 믿는다.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싱가포르 화합 이끄는 보각선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싱가포르는 인구가 4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국토 면적도 아주 작은 도시국가이다. 이 인구 중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말레이계와 인도계도 적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와 여행객이 항상 300만 명이 넘을 정도이다. 좁은 도시 국가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칫 잘못하여 혹시 어떤 작은 사건이나 사고가 뇌관이 되고 여기에 '불'이 붙게 되면, 마치 휴화산(休火山)이 다시 폭발하여 거대한 화산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보각선사가 운영하는 '법보시 가게'.

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토 · 일요 불교학교'와 쉼터 도서관 등을 개설하고, '일일(日日) 수행 과정'을 만들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악단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동호회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와 유사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세계적인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을 초청하여 법회와 강연을 펼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www.kmspks.org)에 올려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와 중국어판의 다양한 불서를 전자도서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스님들과 일반 신도들이 떨쳐버리기 어려운 '육식(肉食)' 문제나 '자살'과 같은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중 사회의 불교적 해결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여러 인종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특성 고려
활발한 법보시 운동·열린 포교로 다양성 흡수

그러므로 싱가포르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 사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각 종교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체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순(順)기능을 다하면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그 사회의 여러 종교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역(逆) 방향으로 질주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회 전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싱가포르 시내를 다니다보면,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불교음악 · 법문 · 독경 CD와 불교 서적을 무료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곳을 만난다. 이곳의 '법보시' 물품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이루어진 법문을 담은 CD에서 시작해 불교 서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이 '법보시 불사(法布施佛事)'를 책임지고 있는 '보각선사(普覺禪寺)'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크다.

정기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과 같은 기본적인 불교 수행은 물론이고, 어린

여러 인종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보각선사(普覺禪寺)'는 '다양성 속의 화합'을 이룩하는 큰 불사를 하고 있어 종교가 본래 맡아야 할 순(順) 기능을 다하고 있고 활발한 법보시 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국제 포교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구호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 자유기고가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납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한함을 얻을 수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보내드립니다

- 주 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 천 암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4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572 호

“노인들 말벗되기 즐겁습니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홍성기 할아버지는 오늘도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웃음을 전한다.

향기 도반의

마포FM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

홍성기

지역사회 노인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 전달
무보수 자원봉사… 진행 멘트도 직접 작성
노인대학·유치원 등 운영하며 사회교육에도 앞장
“긍정적 마음과 많이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 홍성기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단한 자아혁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황혼기를 맞아 스스로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젊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3월 28일 오전 6시 시그널 뮤직에 이어 홍성기(68)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FM 100.7㎒(마포FM)의 전파를 타고 청취자에게 전달된다. 마포FM은 마포지역 주민들만 청취할 수 있는 지역 FM 방송이지만 홍 할아버지의 진행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 못지않게 프로수준이다. 홍 할아버지는 1993년 KBS 사회교육 방송의 ‘인생은 60부터’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으며 MBC, SBS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 MC를 맡았던 전문가다. 홍 할아버지가 마포FM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노인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마포FM의 개국을 앞두고 편집국장이 찾아와서 진행을 맡아달라고 했을때 즐겁게 승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포FM의 ‘아름다운 인생’은 홍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박계승 한국노인복지전문가협회 회장, 박정준 서울국학운동 사무국장, 이철진 공덕한의원 원장, 김강주 민요강사, 강영주 가요강사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또한 김명자, 임지원 주부가 어르신 소식 리포터로 활동중이다.

출연진 모두가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그러나 모두들 노인들의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위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즐겁게 일을 한다. 방송 내용이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를 소재로 삼다보니 녹화중에는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가 많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홍 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다음주 방송에서 할 진행자 멘트를 직접 작성한다. 진행이외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청취자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활기찬 노년을 보낼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다.

홍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추상적인 생각보다 그냥 말벗이 되어주고 싶다. 노인문제를 서로 이야기 하고 나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경로당에서 화투 놀이를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야기 하고 고민을 나누면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가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에 저는 말벗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홍 할아버지는 방송보다 사회 교육자로 더 유명하다. 1960년 중앙대 법대에 재학중 판자촌에 천막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친 인연을 계기로 법학도의 꿈을 접었다. 이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했고 서울 청진고등공민학교를 세워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는 등 사회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당시만해도 사회교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주로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였지만 평생 배워야 한다는 신념은 더욱 공고해졌다.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노인 교육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1977년 사재를 털어 서울노인대학을 설립하고 노인의식 개혁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노인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입생모집이 되지 않았다. 경로당에 가서 노인대학이 생겼다고 홍보를 했지만 다들 늙어서 무슨 학교냐며 외면했다. 궁여지책으로 동아방송을 찾아가 홍보를 요청해 방송 출연을 하게됐고 그 인연으로 17명이 모여 첫 수업을 했다.

한때 한학기에 1000여명의 노인이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노인복지관이 생겨 노인들이 배울수 있는 기회가 늘어 현재 3개반 60여명이 취미, 건강, 한글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김포, 고양 등에서 2시간 이상 전철과 버스를 타고 오는 노인들도 많았고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노인도 있다고 홍 할아버지는 귀띔한다.

홍 할아버지는 국제 교류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1977년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 노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노인문화협회를 조직해 현재까지 매년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의 노인대학과 처음으로 북경과 연변에서 한중 노인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아름다운 인생’ 프로그램 출연진들. 앞줄 왼쪽부터 홍성기, 박계승, 김강주, 뒷줄 왼쪽부터 태한성, 박정준, 임지원, 김명자씨.

“서로 말은 다르지만 노인문제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이야기하다보면 어느새 한마음이 됩니다. 더불어 각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즐기다 보면 국경의 장벽도 웃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20년동안 3국을 돌아가며 교류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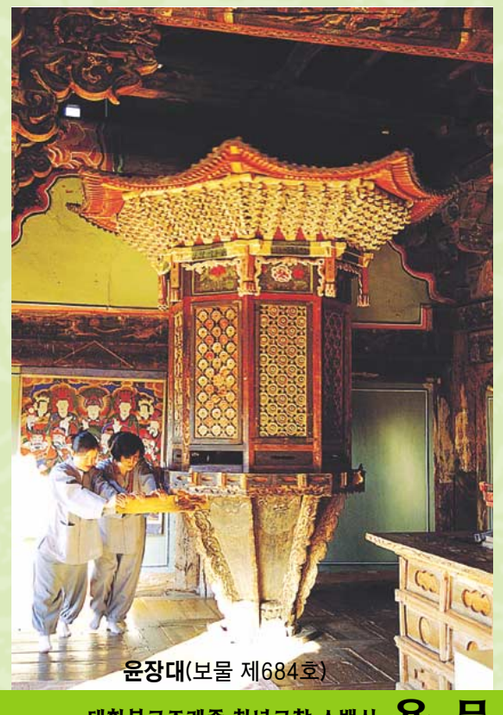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했든가? 홍 할아버지의 꿈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배울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80년 연희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해 오고 있다. 노인대학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다보니 노인들은 아이들이 좋아 웃고, 아이들은 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특히 1회 졸업한 코흘리개 아이들이 어느덧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찾아올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배드민턴과 산책을 즐기는 홍성기 할아버지. 방송과 강연 등으로 한가한 시간이 없지만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특히 저녁에는 단전호흡, 요가를 하고 정신 수양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저의 건강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웃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보면 성냄, 걱정, 근심 등이 생기지 않아요. 많이 웃다보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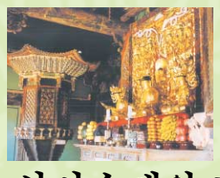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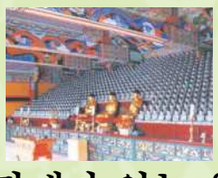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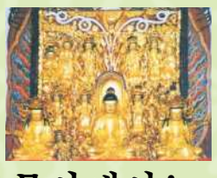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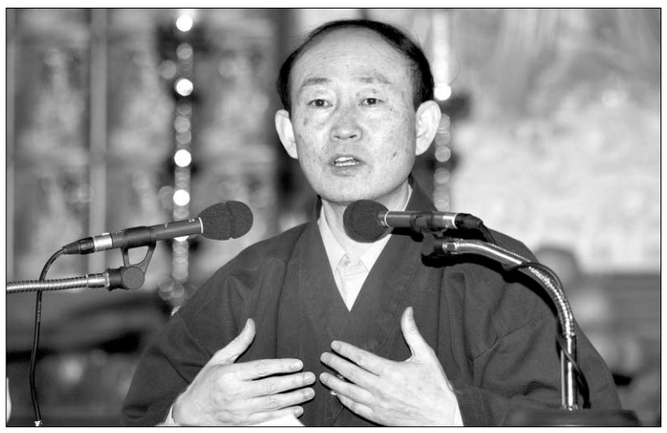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www.yongmoonsa.com

효봉·성철 스님 등, 칼잠에 죽 먹으며 '정신' 배워

특강-한암스님의 종단내 위상

김광식 교수(부천대)

조계종에서 종정을 네차례나 지낸 한암 스님. 하지만 스님은 '동구불출(洞口不出)'이라 하여 51세에 월정사에 들어간 후 열반할 때까지 27년간 산문밖을 나오지 않았다. 3월 24일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두 번째 주제인 '조계종단에서의 한암대종사의 위상'에 대해 강의한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한암 스님이 불출산(不出山)으로 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고, 간경 · 선 · 염불 · 의식 · 가람수호등 승가오칙(僧家五則)의 가르침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광식 교수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월 24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에서 김광식 교수는 "한암 스님은 근현대의 소용돌이에서 한국불교의 중심을 잡고 자존심을 지킨 큰스님"이라고 말했다.

얘기에 앞서 '왜 우리는 한암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화두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얘기를 듣고 '한암 스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스님께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입니다.

27년 '동구불출' …종정 네차례 역임

오늘 저는 조계종단에서 한암 스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큰스님'을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은사에 은사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큰스님이라고 하면 법, 도력, 인품, 인격, 참다운, 진짜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고, 영향력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고승, 거목, 큰 인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큰스님'은 큰 족적을 남기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으며, 교화를 많이 하신 분을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입적 후에도 중생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고, 다시보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큰스님'을 얘기 할 때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저는 한암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의 첫째 조건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쪽에 관심을 두면 꼭 문제와 모순, 부패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한번도 명예나 욕심을 낸적이 없었습니다.

조계종단의 가장 큰 어르신은 종정(교정)입니다. 종정 스님은 종단의 대표이며 법을 상징합니다. 현재까지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하신 큰스님중 해인사 성철 스님, 송광사 효봉 스님, 범어사 동산 스님, 도선사 청담 스님, 통도사 월하 스님, 백양사 서옹 스님, 70년대 종정을 두 번이나 역임한 고암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스님들이 한암 스님 문하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밖에도 석주, 고송, 범룡 스님등 아주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상원사 선원은 최고의 수행처였습니다. 한암 스님의 정신을 배우려고 이곳으로 납자들이 모여들다보니 칼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식량이 부족하여 아침에는 항상 죽으로 연명해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암 스님이 주석하던 상원사는 일제시대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암 스님은 조계종단에서 4차례나 종정을 역임하셨습니다.

상원사에 납자들 구름처럼 몰려

그 첫 번째가 1929년 조선불교 선교 양종때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1911년에 사찰령을 만들어 불교를 장악하고 통제및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종단이 부재한 상태였고 다만 일제가 사찰령에 의해 전국 사찰을 30본산으로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이후 기미년 3 · 1운동이 일어나고, 불교계에도 사찰령 철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7000여명의 스님중 2284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종단의 구성을 막던 일제는 기세에 놀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합니다.

드디어 1929년 1월 3~5일 107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승려대회가 열려 종헌제정, 교무원, 종회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으로 불교 자주화와 역사성을 계승한 종단이 건설된 것입니다.

승려대회에서 교정(7인)을 선출했는데 53세의 방함암 스님을 비롯 김환응, 서해담, 김경운, 박한영, 이용허, 김동선 스님입니다. 하지만 첫 종단은 1년 반정도 있다가 일제의 공작으로 좌절됩니다.

이후 1935에 창종한 조선불교 선종이 60명의 수좌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수좌대회를 열고 신혜월, 송만공, 방한암 스님등 3인을 종정으로 추대합니다.

1941에는 현재의 종계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불교 조계종이 창종합니다.

'승가오칙' 가르침으로 전통 계승

조선불교 선종이 친일, 의타성 때문에 종헌체제가 와해됐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1937년 2월에 총본산 건설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는 31본산의 전체 승려가 동의하는 총본산(중앙)을 세우고, 인사 및 재정권을 부여하며 한국불교 전체 운영의 틀을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태고사를 각황사로 이전했습니다. 각황사를 태고사로 명칭변경 한 것은 태고 보우국사 계승의식이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보조국사 태고보우국사 도의선사등 종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당시 스님들은 태고보우국사의 후예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적이며 자생적 선종인 조계종이 창종하면서 본사주지 30명이 모여 종정선거를 한 결과 한암 스님이 19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암 스님등 주지 대표들이 상원사를 찾아와 한암 스님에게 종정으로 추대할 뜻을 피력합니다. 그러자 한암 스님은 찾아온 스님들에게 "세상사를 일체 망각하고 떠도는 구름과 흐르는 물을 벗삼아 살아가는 일개 운수납자인 나에게 그러한 중요한 책임은 천만부당하고 내 그림자를 오대산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내 신념입니다. 동구불출(洞口不出), 불출산(不出山)해도 불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승낙하겠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정을 역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948년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한 것입니다. 70대였던 한암 스님은 초대 박한영 스님이 입적하자 1948년 6월 30일 교정에 추대됩니다. 스님은 종단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공의를 모으라고 말하며 승가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등을 보내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수행학림에 참가한 불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한암 스님의 가르침인 승가오칙(僧家五則)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간경입니다. 금강경 화엄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님은 선수행자도 경전은 기본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입니다. 참선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염불입니다. 불교를 대중화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포교하기 위해서는 염불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스님은 기본적으로 의식을 알아야 한다며 선방에서도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다섯번째는 가람수호입니다. 절을 잘 지키면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중시했습니다.

스님은 항상 스님들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월정사/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서릿발처럼 엄하면서도 자비롭고 진실 … 계행 철저

▌근현대 출 · 재가자들이 본 한암 스님

● 대은 스님(조선불교중앙교무원 초대 중앙포교사): 한암 스님은 서울 봉은사 조실을 하시다가 갑자기 상원사로 가셔서 동구불출, 장좌불와, 오후불식하며, 화두들고 기도하고 제접납자(수좌들을 지도)만 하시고 있습니다.

스님은 평생 공부에만 힘써와 계 정 혜 삼학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고로 천하에 스님의 도가 알려져 운수납자가 겨자처럼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스님을 보면 빛이 나서 만나기만 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니 이 스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계의 영광입니다.

● 이능화(<조선불교통사>를 쓴 대 학자): 최근(1941년) 선방을 냉철하게 관찰해보니 대부분 스님들이 견성을 했다고 얘기할 뿐 지계와 고행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암 선사는 범행이 바르고, 선정과 지혜가 구족하니 스님의 법호만 들어도 누구나 자숙자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암 스님은 산을 나오지 않아도 불교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지암 스님(前 조계종 종무총장): 한암 스님은 생불입니다. 스님을 잘 모시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 태원 스님(금강산 유점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노릇은 한암 스님 만큼만 하여라.

● 범룡 스님(前 조계종 전계대화상): 한암 스님은 서릿발처럼 엄하면서도 자비롭고 진실하셨습니다. 스님은 계행이 철저하고, 선지에 밝고, 한문실력이 있고, 글씨도 잘 쓰셨습니다.

● 도원 스님(前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스님의 밥은 항상 7부만 담았습니다. 간혹 8부를 담으면 '아! 이놈아 늙은이가 먹고 똥싸라고 이렇게 많이 담느냐'며 야단을 치셨습니다.

● 사토오(일본 조동종): 한암 스님은 세계에서 둘도 없는 인물입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영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福田函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밀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우신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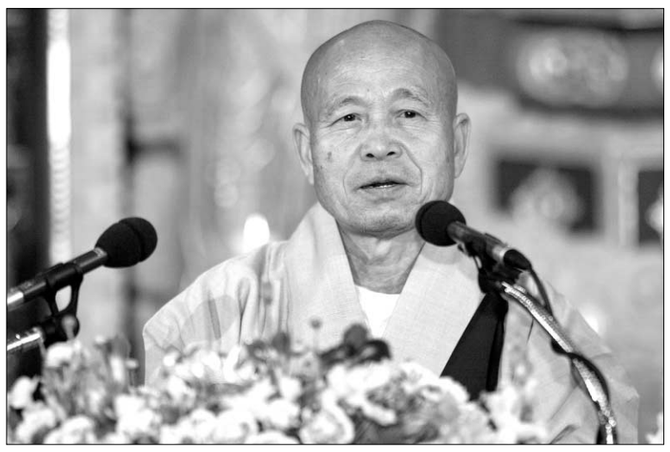
화엄산림-제2강(7~14품)

각성 스님(前 통도사 강주)

마음법 깨닫는 네가지 수행법

부동삼매 · 용심 · 대서원 · 대행

3월 25일 열린 화엄산림 두번째 법사인 각성 스님(前 통도사 강주)은 〈화엄경〉 7~14품 강의에서 "화엄경에서는 마음법을 깨닫는 방법으로 네가지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부동삼매', 마음을 잘쓰는 '용심', '대서원', '대행'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각성 스님의 화엄경 강설내용을 정리한다.



월정사 화엄산림 두번째 법사인 각성 스님은 "사람 몸 받기도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려운 만큼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絶一切)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이름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다 끊어졌으니
깨친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로 알 수 없네.

원래 여래에게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이끌어주기 위한 이름이 필요하여 불명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미타부처님 약사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 비로자나부처님 노사나부처님등 여러 가지 명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명호

>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 그 자리는 비고 고요하며
> 밝은 힘을 가졌기에
> 본체 깨달으면 광명

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래명호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진리는 명호가 핵심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화엄경〉의 전부를 다 보아야 비로소 알수가 있어요.

오대산이 이렇게 크고 좋지만 한쪽만 보고 산의 전부를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돌멩이 하나 나무 한그루를 보고 오대산이라고 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옛날에 경봉 스님이 〈화엄경〉을 잘 알면 십지보살(十地菩薩, 수행의 10단계중 거의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 정도는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화엄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을 저에게 말하라고 하면 한마음을 밝혀서 우주만법을 통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우주 법계가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화엄경〉을 소의경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근본이 되었기에 심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는 모든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라는거요. 마음에서 허공계나 세계, 천지만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지요. 사람들은 마음이 육체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마음은 육체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밖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으면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대방광의 원리를 깨달아야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범부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래명호품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말한다는 것을 설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덟번째 '사성제품'은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를 말하고, 아홉번째 '광명각품'은 부처님이 광명으로 깨우쳐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원래가 형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 자리는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그 원리, 본체를 깨달으면 광명이 난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세계는 입으로 말하기 전에 광명으로 마음의 복잡한 고뇌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열번째 '보살문명품'은 보살들이 서로 질문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열한번째 '정행품'은 청정한 수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행품'은 중생들이 어떻게 정화를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는 생각을 초월해야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범부 중생은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있어서 1찰나(1초를 120등분 한것)에도 900번의 마음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잡념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염불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염불하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신의 근성에 맞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참선 관법 요가 등이 사실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행품에서는 평상시에 좋은 생각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청정한 수행은 매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몸에 화장하고 하는 것보다 마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정행품입니다. 그러닌까 화장하고 목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열두번째는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화엄경에 대해 얘기한 것을 말합니다.

열세번째 '승수미산정품'에서는 부처님이 도리천궁에 가셔서 수미삼궁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열네번째 '수미정상게찬품'은 수미정상에서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는 찬송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엄경〉 7~14품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초보자에게 해당되는 법문인 십진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십진법은 부처님의 도를 읽는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요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불과 몇 십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좋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은 살아있는 동안 귀중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보잘것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사람 몸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수천만겁을 지나면서도 사람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열반경〉을 보면 부처님의 설법내용이 있습니다. 손톱위에 흙 한점을 올려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손톱 위의 흙이 많으냐? 아니면 땅위의 흙이 많으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길 "손톱 위에 흙은 보잘 것 없고 땅위에 있는 흙은 지극히 큽니다"고 답합니다.

> '화엄경' 핵심은 한마음 밝혀
> 우주만법 통괄하는 것
> 놓고 놓고 또 놓아버리고
> 큰 서원으로 보현행을

그러자 부처님은 "사람되는 것도 손톱위에 올려놓는 흙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고서도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가치 즉 만물의 영장이 된 보람을 마음의 깨달음 얻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화엄의 진리인 여래의 대열반을 터득하기 위한 대의를 네가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삼매(不動三昧)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삼매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맹자는 '나이 40에 부동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70세가 되어도 부동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여래의 최고의 깨달음을 알려면 부동삼매를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보면 몸과 마음이 부동하기를 수미산 같이 해야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파동치니 이 생각은 없고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기에 '망념'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은 원래 없는 것이기에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없으니까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꿈처럼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문에서는 '방하착(放下着, 놓아버려라)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전에 보면 바라문교 수행자였던 흑치범지가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두송이 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흑치범지가 마음의 고뇌를 놓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높은 법좌에서 설법을 하던중이었습니다.

흑치범지를 보자마자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는 부처님은 '놓아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흑치범지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놓아버려라'라고 얘기하자 이번에는 오른쪽 손의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



월정사 화엄산림에 참가한 200여 사부대중.

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다시 '놓아버리라'고 하니, 내려 놓을 것이 없는 흑치범지는 당황해 합니다.

부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꽃을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는 육근(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사유기관)과 밖으로 육진(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법(法))을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흑치범지가 설명을 듣더니 곧바로 도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의 큰절을 하고 부처님 은혜가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놓아버리면 부동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엄의 진리를 알려면 자꾸 놓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선용지심(善用之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욕심도 심술도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괴로움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풀어 줄 수 있는가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보살들같이 용심을 잘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세계는 가정이요. 모든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자세에서 용심을 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나쁜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게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살이 물었습니다. 여러 법 중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이에 문수보살의 답이 '선용지심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큰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이 없으면 수행도 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는 큰행을 하라는 '대행'입니다. 육도만행 즉 보현의 행을 닦으라는 말입니다. 100가지, 만가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가지를 닦으면 그 누구나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월정사/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한
약 왕 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제조원 : 약왕사 (양슬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적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주)천성건설
공 사 개 요
◆각종 설비공사 일체
◆석재, 부품 일체
◆석, 조각, 석물 일체
◆석, 불상, 좌상, 미륵
◆석, 탑, 마애불상조각
◆건설부문
◆석굴, 납골당 공사
◆석굴, 법당 조성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석 공사 일체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 사 완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재갑
(株)天星建設

뛰어난 식품이자 의약이며 조미료
함 초
함초란?
함초의 우리말로는 퉁퉁하고 마디마디 튀어 나온 풀이라 하여 '퉁퉁마디'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옛 의학서인 '신농초본경'에는 맛이 몹시 짜다고 해서 함초(鹹草), 염초(鹽草), 희귀하고 신령 스러운 풀이라는 뜻으로 신초(神草)라고 적혀 있다.
함초는 국어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반인 들에게는 생소한 풀이다.
그러나 이름만 생소할 뿐이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든 바닷물을 한껏 빨아 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 시키고 각종 미네랄 성분은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 혈액순환이 좋아 저혈압, 고혈압과 증혈작용 효과
▶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
▶ 피부를 곱게하고 부인병에 효과
▶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치료에 효과
▶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 갑상선 기능에 효과
농협계좌 753083-52-158936 (예금주 : 이협우)
문의처 : 백련스님 054)638-4796 / 010-4591-4796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5>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화두를 참구할 때는 오로지 한 생각으로 화두만을 참구해야 한다. 화두를 챙길 때는 신심(信心)과 분심(憤心)과 의심(疑心)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하는 것으로써 생사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살 길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것이요, 죽은 말에서 깨쳤다고 착각하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해야 할까? <선가귀감> 13장에서 그 방법을 말한다.

凡本參公案上 切心做工夫 如鷄抱卵 如猫捕鼠
如飢思食 如渴思水 如兒憶母 必有透徹之期

본디 공안을 참구하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닭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잡듯
굶주린 사람이 밥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어린아이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확실하게 깨칠 때를 맞게 된다.

공안(公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공안은 관청에서 시비를 판결하는 공문서라는 의미이니 요즘말로는 모든 국민들이 이의없이 따라야 할 '나라법'이다. 이 뜻을 빌려 선종에서는 역대 고승의 언행에 관한 기록을 가져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의없이 따라야 할 지침으로 삼은 것을 공안이라고 했다. 이런 종류 기록들은 한결같이 정부에서 정식으로 포고하는 법령과 같아서 그 권위가 준엄하여 침범할 수 없다. 오로지 수행하는 사람들이 늘 따르고 의지해야 할 법으로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뿐이다.

이런 풍습은 당대(唐代)에 제기되고 송(宋)나라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천칠백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천칠백이라는 숫자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실려있는 일천칠백 명이 법을 전해받게 되는 특별한 인연이 된, 그들의 전법(傳法) 기연(機緣)의 숫자에서 왔다. 그러나 공안이 정확히 일천칠백 개가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公案, 수행자들이 따라야 할 법
깨달음 방편 · 공부 점검 등 의미

통상 쓰이는 것은 약 오백 개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중복돼 쓰이거나 참구할 가치가 적다고 한다. 선종에서 처음에는 개인에 관한 어록이 있을 뿐이었지만 뒷날 어록에 관한 책들이 많아지고 마침내 그 어록들을 편집하여 공안에 관한 책들이 완성되었다. 그 결과 <벽암록> <종용록> <무문관> <정법안장> <경덕전등록>과 <인천안목> <지월록> <속지월록> 같은 책들이 만들어졌다.

공안 가운데 대다수는 '한 자' 또는 '한 마디'로써 학인 참구용으로 제공되었는데 이것을 '화두(話頭)'라고 한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무(無)"라고 대답할 때, 이 '무(無)' 자가 곧 화두이다. 그러므로 공안은 화두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참선할 때 화두를 붙잡고 공부하면 화두를 참구한다고 한다. 또한 화두를 조사스님들이 학인들에게 언어로 보여주는 공안을 '화두공안'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공안은 어떤 내용을 짜 맞추어 추리하거나 일반 상식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언어들은 대개 선가의 정신으로서 말의 논리나 논리적 사고를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큰스님들은 매번 공안에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학인들의 분별 의식 밖에 있는 심층을 바로 깨닫도록 촉발시켜 그들의 참성품을 직접 보게 한다.

공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화두는 깨달음을 가져오는 방편이 된다. 둘째, 화두는 학인의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이 된다. 셋째, 학인이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권위의 잣대가 된다. 넷째, 큰스님이 학인의 공부를 인가해 주는 믿음의 증표가 된다. 다섯째, 수행자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깨달음을 제시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조사의 공안은 일천칠백 개나 된다. '개에게는 부처님 성품이 없다(狗子無佛性)'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삼 서 근(麻三斤)'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와 같은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어 따뜻한 온기를 끊임없이 지속시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화두를 챙겨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 한다는 것은 '마음먹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굶주린 이가 밥을 생각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며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듯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간절히 화두를 참구하라는 것이다. 억지로 만든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니, 참선에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 '확실하게 깨쳤다'는 것은 옳지 않은 소리이다."

어떤 스님이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조주 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였고, <벽암록> 12칙에서 어떤 스님이 동산에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라고 물으니, 동산 스님은 "삼 서 근"이라고 하였으며, <무문관> 21칙에서 어떤 스님이 "무엇이 부처님입니까?"라고 물으니, 운문 스님은 "마른 똥 막대기"라고 하였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만다라

20여 년 전에 출간됐던 <만다라>란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출간돼 얼마 되지 않아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킨 책이지요. 끝없이 방황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그려낸 것인데, 당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었지요. 이후 급기야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럼 만다라(曼荼羅)는 무슨 뜻일까요?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말로, 원뜻은 '둥근 원(圓)'을 일컫습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만다라는 '신성한 단(壇:영역)에 불보살의 모습을 둥근 원형으로 배치한 도형'의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만다라에 담긴 뜻을 더 소개해볼까요. 먼저 만다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그림입니다. 흔히 티베트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만다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다라는 수행자의 우주적 심리현상을 그린 그림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 만다라를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상태를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내것은 없다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9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6강 <금강경> 4장에 대한 육조의 충고

보시, 망념 · 습기 싹 쓸어 없애기

범부들의 보시는 상(相)을 떠나지 않는다. 유상보시(有相布施). 그들은 "다만 신상(身相)의 단엄(端嚴)과 오욕(五欲)의 쾌락(快樂)만을 구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체면과 위세, 그리고 감각적 쾌락 등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다. 이런 보시는, 혜능의 말마따나 "과보(果報)가 다하고 나면, 다시 삼악도(三惡途)에 떨어진다."

보살들은 이와는 달리 자기만족에서가 아니라 진정 사람들의 필요와 복지를 위해 손을 내민다. "그것을 부주색보시(不住色布施)라고 한다."

혜능은 "여(如)에 응(應)한 무상심보시(無相心布施)"를 말한다. 이는 "'능히 베푼다는 마음'이 없고, '베풀어지는 물건'도 보지 않으며, '베품을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주상보시(不住相布施)이다." 이를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여(如)에 응(應)한다'란 바로 앞의 '이렇게(如是)'와 마찬가지로, 주는 손과 받는 손, 주는 물건을 분별하지 않은 빈 마음(空)의 풍경을 가리킨다.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왜냐. "보살의 베푸는 마음에 아무 기대(所希)하는 바가 없기에, 그 얻은 바 복덕이 시방 허공처럼 계산 측량할 수 없다."

보시(布施)에 대한 혜능의 새로운 해석

혜능의 구결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원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일상과 체험의 방식으로' 해석의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있다. 그의 기지는 '보시'의 해석에서도 빛난다. 그에게서 보시는 '남에게 주는 외향적 활동'이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재해석되었다. 통째로 번역해본다.

"일설에 의하면, 보시의 보(布)란 보(普), 즉 '널리'라는 뜻이고, 시(施)는 산(散), 즉 '흩는다'는 뜻이다. 가슴 속의 망념을 싹 쓸어 없애고, 습기와 번뇌와 사상(四相)이 완전히 끊겨, 적체(積滯)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참 보시이다. 또 이런 설도 있다. 보(布)란 보(普), 즉 '널리'라는 뜻이고 (*여기서 한 구절이 망실된 듯하다. 뒷 문장으로 보건대 "시(施)란, 귀(歸), 즉 '돌아간다'거나, 혹은 복(復), 즉 '회복한다'라는 뜻이다"가 들어 있어야 한다.) 육진경계(六塵境界)에 머물지 않고, 또 유루분별(有漏分別)도 없는 것을 말한다.

"오직 늘 청정(淸淨)으로 돌아가 있고, 만법(萬法)의 공적(空寂)함을 각성한다. 만약 이 취지를 모르면, 다만 제업(諸業)을 증장(增長)할 뿐이다. 그래서 모름지기 안으로 탐애(貪愛)를 제거하고, 밖으로 보시를 행할지니, 안팎이 이렇게 상응해야 얻는 복이 무량하다. 다른 사람이 악(惡)을 저지를 때도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자성(自性)에 분별(分別)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상(相)을 떠났다'는 뜻이다. 가르침에 따라 수행(修行)함에, 마음에 나와 그 대상이라는 구분(能所)이 없으면 곧 선법(善法)이다. 수행인에 능소(能所)가 있으면 선법이 아니다. 능소의 마음이 멸하지 않으면 결코 해탈을 얻을 수 없다."

"념념(念念)이 언제나 반야지(般若智)를 행하면, 그 복(福)이 무량무변(無量無邊)하이 없기 때문에 크다는 이름을 얻었다. 일체의 여러 성(性)은 모두 한량(限量)이 있기 때문에 크다는 이름을 얻을 수 없다. 불성은 한량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이름 한다."

"이 허공 안에는 동서남북이 없다. 만일 동서남북을 본다면, 이는 또한 주상(住相)이라, 해탈(解脫)을 얻을 수 없다. 불성(佛性)에도 본래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가 없다. 만일 이 사상(四相)이 있어 그것을 보인다면, 그것은 중생(衆生)의 상(相)이지 불성(佛性)이라고 이름 할 수 없다.

췌언 혹은 사족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한량(限量), 즉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이 낡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처한 조건을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해탈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불순한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수업보다 게임에 몰두하고 엠피쓰리와 핸드폰에 열광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다. 공상 과학 소설도 그렇고, 개그콘서트도 그렇고, 퇴근 후 회사와 상사를 욕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방에서 악을 쓰는 것들, 그리고 어느 날 홀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 또한, 우리가 딛고 선 '토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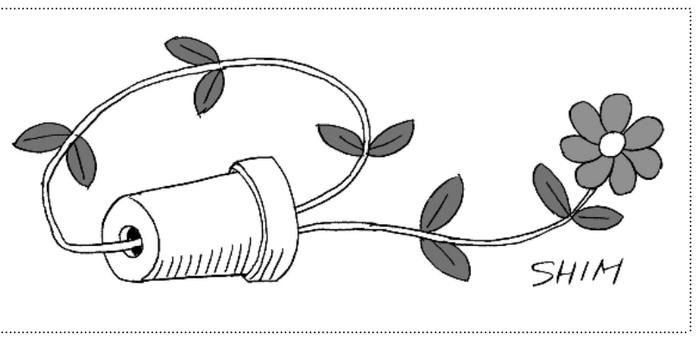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는 한편 토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토대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앉았다가는 다시 일어선다. 우리네 인생은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름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한심하고 남루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윤회(輪回)의 쳇바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붓다는 거기 길을 하나 제시한다. "네 삶의 일상을 토대(住相) 없이 살아보는 훈련을 해 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붓다는 예수의 말을 인용해 줄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너는 그 짐승들보다 나은 생명이 아니냐."

이 말에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예외적 영웅들만의 삶이라고 여기고, 직접 살기를 포기하고 만다. 그 부끄러움을 저 밖의 영웅들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도배하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도 '토대 없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모시거나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그런 사례이다. 키움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보답에 무슨 법적 제도적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속된 말로 입 닦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게 입 닦는 사람도 적지 않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출세한 다음 갚아라" 라거나, "이웃집 아이에 비해 못났다는 소릴 듣지 않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 가도록, '조건 없는 지원'을 베풀고 있는 셈이 아닌가. 만일, 그렇지 않고 '기대하는바'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욕심이고, 그 결과는 자식은 물론, 부모까지 황폐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늘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는 역시 주상보시(住相布施)이다."

"비록 망심(妄心) 가운데 동서남북이 있다고 말한다 해도, 리(理)에 있어서는 그런 게 어디 있는가. 그래서들, '동서는 진짜가 아니고, 남북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한다."

"자성(自性)은 본래 공적(空寂)하고, 혼융(混融)하여 무분별(無分別)이다. 그런 까닭에 여래(如來)가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을 깊이 찬탄한 것이다."



중국 어떻게 볼 것인가

36가지 주제로 본 중국인의 속내 읽기



중국을 이해하는 4·9
박현 지음
바나리 | 1만원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후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로 전체 응답자의 37.7%가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3월 22일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테러반대 등에서 양국의 정치적 입장은 같으며,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엄청난 대중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대사의 말처럼 현재 한·중 교류는 거의 전방위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많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표피적인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중국과 중국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통 중국과 중국인은 복잡하고 다양해 한 단어로 특징을 표현하기 힘들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속내에 자리한 상인기질과 관계의 다중성은 그들의 진짜 생각을 어렵게 한다. 그도 그럴것이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과장법이나 어머니만 빼고 진짜를 믿을 수 없다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4·9>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발간된 책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36가지 주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중국을 보는 거시적인 눈을 갖는 '중국이 세계다'에 대한 진술이다.

왜 중국은 세계인가? 책의 내용을 보면 15억 인구가 살아가는 방식과 조건 등을 총괄해서 '중국이 세계'인 까닭을 밝힌다. 56개 민족이 지리적 환경과 결합해 중국의 각 지역은 뚜렷한 문화적 독자성을 띄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럽연합 보다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이며, 인위적인 세계국가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중국인다운 기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상인에 가까우며, 상업적 목적으로 열리는 상업박람회에도 상을 준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친구'는 형제와 같은 친구도 될 수 있고, 오랜 거래자도 될 수 있다.

두번째는 복잡한 중국문화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본 안목으로 바라보는 재미가 펼쳐진다.

즉 유학이나 공산주의 등 중국의 이념과 한자 등의 특징과 맞물려있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정치나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 기질은 여지없이 드러낸다. 이 책은 결론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대의명분과 실리추구라는 양면성 혹은 다중성을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안경 같은 구실을 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보면 중국에는 도교사원에 천주교 성모마리아상이, 불교사원에 도교신이 모셔지며, 중국음식이란 각 지역 대표음식만 있을 뿐이다. 또 중국에선 담배나 감기약의 경우 같은 성분인데도 값이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번째는 중국인들의 처세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중국에는 황비홍과 서비홍이 있는데 이들은 대세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각기 다른모습으로 처신한다. 그런데 두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고 같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유교는 역사와 대의명분을 짊어진 기둥이고, 도교는 보이지 않는 국교이다.

마지막에는 글쓴 이의 경험에 기초한 글이 수록돼 있다.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글이다.

지은이는 중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박자(공산당, 상인, 지역적 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변화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이며, 그로인해 발전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인 박현(한국학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부터 언어학과 인간학에 기초해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는 글을 줄곧 써왔다. 독실한 불자인 그는 현재 중국 쟝쑤성 이싱시와 윈난성에서 도자예술관과 국제민족문화원의 건립사업을 진행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변증법적 지평의 확대><한국경제사입문>등 사회과학서와 <우리사상의 고향을 찾아서><한국고대사지성사산책><나를 다시하는 동양학><불교수행요론>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어 제주로 간 자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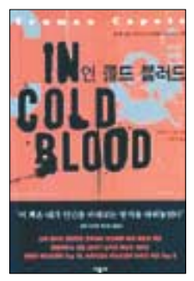


그 섬에 내가 있었네 휴먼앤북스 김영갑 지음

안정을 포기하고라도 그로 인한 책임과 무게에서 벗어나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영갑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자유의 즐거움만이 아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빈곤과 외로움,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책은 아름답지만 무척이나 슬프다.

제주도의 풍광에 반해서 이십여 년 가까이 살면서 사진에 담았다. 제주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주에 눌러 사는 것이 더 외롭고 힘들었던 그의 삶…. 책은 이 모두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김영갑이 찍은 사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책을 읽는 기쁨이다. 그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당한 형식이라고 생각한 파노라마 사이즈의 사진이 책 곳곳에 풍부하게 실려 있다.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넋을 잃고 바라볼 만큼, 그의 영혼이 담긴 그 사진들은 아름답다. (신명주, kr.ysp.shopping.yahoo.com/ysp/libro)

시골마을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둘러싼 진실찾기



인 콜드 블러드 트루먼 시공사 카포티 지음

<인 콜드 블러드>는 당시에는 이제껏 소설 형식이 취하지 않은 노선을 택한 작품이다. 논픽션 노블이란 어리둥절한 장르는 독자에게 저널리즘 소설처럼 적나라한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문학적 향내를 풀풀 풍긴다. 일석이조의 극대화.

작가는 뉴욕타임즈 신문기사에서 이 살인 사건 접하고 흥미를 느껴 친구인 하퍼 리와 직접 그 마을에 찾아갔다고 한다.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건과 관계된 온갖 것을 조사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 마을의 동향. 세상의 관심 등….

여하튼 6년의 기록이 530쪽에 달하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은 서로간의 불신을 키워간다. 작가의 서술 특징인 주민들의 증언을 듣다 보면 마을이 공포 분위기로 얼마나 싱숭생숭해졌는지 대번에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증언식의 기법으로 인해 <인 콜드 블러드>가 여타의 작품들보다 출중하고 개성있는 면모를 과시한다고 생각한다. 사실과 허구를 좀처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진실이게끔 보여주는 힘 말이다. (천하통일, www.yes24.com/Goods)

책속의 밑줄긋기



○…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글을 쓰게 만드는 질병은 또 무엇이 있을까? 사랑, 특히 불행한 사랑은 비록 병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원인보다 치명적이다. 물론 사회적 격변, 젊은 시절 고국을 떠나야 하는 망명, 비극적인 전쟁 등 다른 형태의 고통도 글쓰기를 촉발시킨다. 하지만 이런 원인들은 외적 위협 요인으로 글쓰기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특히 응답없는 짝사랑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존심은 글로 치유된다.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커지는 법이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피그말리온의 갈라테아 조각상 역할을 하게 된다. 상실의 아픔이 클수록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도 그만큼 더욱 커진다. –<하이퍼 그라피아 : 위대한 작가들의 창조적 열병> 65쪽에서, 휘슬러, 앨리스 플래허티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교리 / 법요집
● 법요집
·삼귀의 ·청법가 ·사홍서원
·찬양합니다 ·법문 ·산회가
·반야심경 정근 ·기타찬불가
·입정 ·발원 및 축원
● 기초교리
1. 불교란? 12. 삼업
2. 부처란? 13. 삼학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4. 신도오계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5. 사성제
5. 사찰경내 예법 16. 사섭법
6. 합장과 반배 17. 십이인연
7. 고두례 18. 육바라밀
8. 예불문 19. 팔정도
9. 삼보 20. 보왕삼매론
10. 삼귀의
11. 삼법인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지음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게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채로 세상을 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의 시송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둥 : 미송 · 합목
원두막 겸 방가로 7000×4000×3200[mm]
홍보할인가격 ~~650만원~~ → 550만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원두막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820×350[mm]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630×350[mm]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한 플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관 조립이 간단하며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aro.com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평상.net / 원두막.kr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마음에 새기는 '법화경'

우리말로 쉽게 푼 '법화경' 사경
내용 이해하며 한자한자 10회씩
5권으로 분리, 휴대 간편

'사경(寫經)은 수행이 아니다.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는 서예다.' 과연 맞는 말일까?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법화경>은 단호하게 '틀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든 경전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자신이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일갈한다. 오히려 경전을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아예 대놓고 중시한다. 이른바 '수지독송(受持讀誦) 해설서사(解說書寫)'다.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며, 남을 위해 설명해주고 경전을 베껴 쓰라고 수행자를 독려한다.

왜 그럴까? 죽음의 길목에서 <법화경> 번역을 서원하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말 법화경 사경> 5권 1질을 발간한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책 서문에서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을 옮겨 쓰면서 흐트러진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경은 참선 · 염불 · 절 등과 함께 불교수행법의 반열에 당당하게 오른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때문에 <법화경> 사경의 공덕과 영험을 경전 곳곳의 경구를 들며 강조한다.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경은 일체 중생을 크게 이익 되게 하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준다.' <약왕보살본사품>, '경전을 수지해 읽고 외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은 무량하다.' <보현보살권발품> 등 <법화경> 사경의 중요성을 거듭 말하고 있다. 즉 <법화경>을 '내 것' '바로 여기' '지금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써내려간다면,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쓰고 왼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의 구성은 하나의 방대한 사경지(寫經紙)와 같다. <법화경>의 한 자 한 획이 유려한 한글체로 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해, 우리말 <법화경> 사경과 독송을 원하는 불자들의 바람을 충분히 배려했다.

뿐만 아니다. 총 10회에 걸쳐 문장을 다듬고 다듬어 한문 번역에서 오는 문장의 어색함과 그에 따른 의미의 불분명함을 깔끔하게 거둬냈고, 5권의 낱권으로 분리해 갖고 다니며 사경할 수 있도록 휴대성도 높였다.



우리말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운주사 | 3만8000원

혜조 스님은 "<법화경> 사경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베껴 쓰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사경하는 것이기에 더욱 값진 의의를 지닌다"며 "하루 한 페이지라도 일정 분량씩 꾸준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가지런히 모아서 우주에 충만한 진리 곧 법신을 형상화한다는 느낌으로 한 자 한 자 정성껏 사경하면, 어떤 소원이든 보다 쉽게 이뤄진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나무불 스님 지음, 민족사)=경북 상주 천상산 길상도량에서 자연과 하늘을 벗 삼아 수행하고 있는 나무불 스님이 두 번째 수상록을 세상에 내놨다.

책은 첩첩산중에서 밤이면 달과 별을 쳐다보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틈내어 마음밭을 갈고 일구어 써 내려간 스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다. 자작시과 간단한 소감글 100여개를 엮은 책에서는 열심히 정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한평생 속세를 떠나 '마음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겨 있다.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곱씹어볼 수 있게 한 주옥같은 글들이 책 곳곳에 아름답게 새겨져있다.



■ **명심보감**(윤창화 옮김, 동숭동)=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심보감>. 동양의 고전이자 인생의 지침서로 뛰어난 처세론인 <명심보감>이 지난해부터 '불서읽기 운동'을 통해 문서포교의 장을 열고 있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에 의해 순 한글로 거듭났다.

'마음을 밝혀 주는 보배 거울'이란 책이름처럼, 윤대표는 <명심보감>이 훌륭한 명언집이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범절을 수록한 책임을 곳곳에서 강조한다. 때문에 책은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감로수로 다가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또 기존의 번역과 원문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해설과 주석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구나 속담 등을 삽입해 혼자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게 한 점이 눈에 띈다.



■ **만다라를 통한 내적치유**(김영미 지음, 해와달을그리는사람들)=108번뇌를 선(線)으로 이어가는 그림, 만다라. 근원적인 자기탐구의 도구로써 만다라를 그려온 아동미술가 김영미씨가 심리치료용 만다라의 밑그림을 한데 묶어 화집으로 펴냈다.

지난 2004년부터 채색을 위한 밑그림으로 그린 만다라 280여 점을 선보인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직접 채색을 할 수 있게 한 점. 무엇보다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각 연령대별 만다라를 보여줘 채색을 통해 마음 정돈의 기회를 주고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조화로운삶, 법정스님, 9800원
- **간화선**(조계종수행의길)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1만5000원
- **붓다의 나라, 미얀마** 운주사, 김형규, 1만원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총카파, 4만3000원
- **그래 떠나 보거라** 열린박물관, 혜안스님, 9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눈 뜨고 귀 열면 일상이 행복

지수 스님이 불자들에게 보낸 편지 묶음

'행복은 스스로 누리는 자의 것, 눈 뜨고 귀 열면 주위에 널려 있다.'

대흥사 관음암에서 자연을 벗하며 수행한 지수 스님이 절집 향기를 오롯이 담아 일반인들을 위한 '행복론'을 펴냈다. 지난 1995년 11월부터 스님이 관음암에 인등을 켠 불자들에게 매달 써 보낸 편지들을 엮은 이 책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책머리로 내건 말이 <마음 탓이다>. 낡은 것을 거둬내고 새로움을 깨끗하게 담아낼 '마음의 바리때'를 책장 곳곳에서 선사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책은 영원한 화두인 '마음'에서 소박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다. '마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란 물음을 던지고, 해답은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체험을 풀어내는 언어도 고서에나 파묻혀 있을 법한 격언대신, 현실에서 오가는 정감 있는 말로 해부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감정이 울긋불긋 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화내고 미움을 일으키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뭣꼬?'란 화두를 자신에게 들이대라고 주문한다. 이렇게 마음 탓을 자신에게 돌리면 악감정이 쌓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 어떤 상황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책에서는 모든 행복과 불행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늘 마음 탓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반성의 회초리'를 숨겨놓았다.



마음 탓이다
지수 지음
시공사 | 9500원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무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은 독자에게 현명한 '마음잡기' 방법론도 조목조목 일러준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마음자리를 밝히고 넉넉히 쓰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놓고 있다. 스님이 30년 가까이 선(禪) 수행으로 정직하게 일군 마음공부의 살림살이가 바로 그것.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것'을 강조한다. '내 감정의 물을 들이지 않고 내 편견의 왜곡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눈으로 보듯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 순수한 존재 그 자체의 상태가 선이다'고 말한다. 좋고 싫음의 사나운 파도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스님의 간절한 수행체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책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것도 가르친다. 우리의 스승을 고타마 싯타르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모두의 이름 밑에도 '부처님'이란 칭호가 붙여지도록 저마다의 이름 석 자를 소중히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1978년 파계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통도사와 직지사에서 경전공부를 했다. 이후 송광사, 대흥사에서 경전과 참선을 지도했으며, 태국과 영국 등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참선을 가르쳤다. 특히 영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 수도원에서 살면서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교류를 갖기도 했다.

김철우 기자

운허 스님이 푼 '화엄경' 현대어로 다시 태어나

"법계가 무한해 대방광(大方廣)이고, 공덕이 끝도 없어 불화엄(佛華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방삼세에 두루 비추고 걸림 없으시니 '대방광불화엄'이다. 경의 이름을 붙인 까닭이 이와 같도다."

원효 스님이 <화엄경소> 서문에 쓴 말마따나 대승경전의 정수로 불리는 <화엄경>. 현대불교의 대강백 운허 스님이 1960년대 동국역경원에서 완역한 <화엄경>이 새 옷을 갈아입었다. 세로쓰기가 가로로, 어려운 고어체가 현대 언어에 맞게 <화엄경>의 내용 전체가 5권 1질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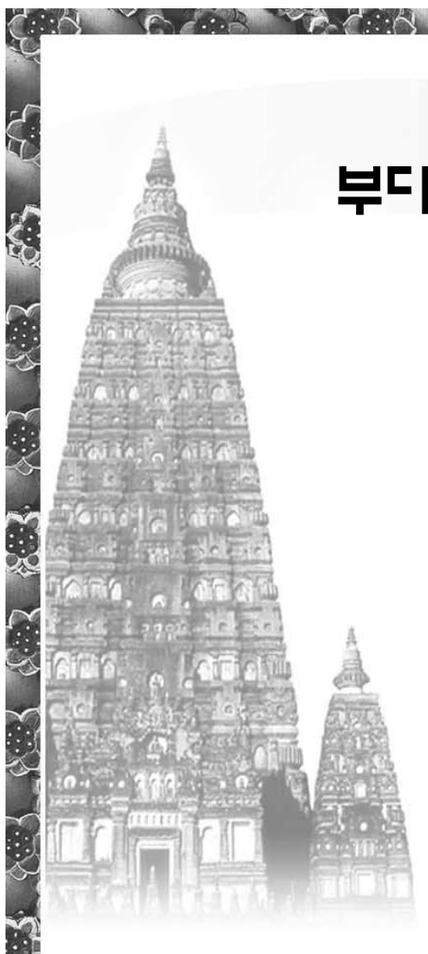
대방광불화엄경 1~5권
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 각권 2만원

눈에 띄는 변화는 표기법의 전환이다.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도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띄어쓰기 등도 현대 맞춤법 표기법에 맞게 고쳐 읽기가 한층 쉬워졌다. 특히 경의 이름도 기본 <화엄경>에서 원래 경명인 <대방광불화엄경>으로 고쳤고,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한문은 한글과 함께 나란히 적었다.

동국역경원이 이번에 다시 펴낸 <대방광불화엄경>은 80권본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글 번역한 것. 당나라 시대 699년에 실차난다가 한역한 <화엄경>으로, 4만 5천개의 게송, 39품으로 짜여져 있다.

운허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강원을 거치면서 대교과를 마쳤으며, 1936년 봉선사 홍법강원에서 강사가 된 후 동학사 통도사 해인사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1980년 세수 89세로 봉선사에서 입적했다.

김철우 기자



부다가야 12년, 참 많은 분들이 향기로운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혜총스님 지음, 값12,000원)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곳곳에 묻어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갈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이야기



죽음이 없는 樂 (정관스님 지음, 값20,000원)
▶수십 년 간 수행정진하며 대중포교에 힘쓴 스님의 법문에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음을 강조하며, 읽는 이로 하여금 바로 지금 발심하도록 '마음 공부하라'는 간절한 당부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과 함께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 자세가 스며 있다.



묘법연화경
(석혜능 엮음, 값30,000원)
▶정교한 퇴고작업 끝에 다시 태어난 섬세하고 아름다운 묘법연화경. 번역한 글에서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풍부한 내용에서 오는 커다란 감동과의 만남



보현행원품강설
(혜남스님 지음, 값12,000원)
▶오랫동안 동국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에서 후학들의 양성에 힘써온 중산 혜남스님의 자상한 법문으로 스님의 밝은 혜안에서 우러나오는 보현보살 십종대원의 이해를 통해 이 시대 불자 수행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발원문108선집
(덕진스님 엮음, 값6,000원)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수지 독송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곧게하여 생활 속의 근심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



묘법연화경 사경 중송분(게송)
1,2,3,4권 (혜능스님 엮음, 각5,500원)
▶ "묘법연화경 중송분(게송)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하여도 묘법연화경 전권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하는 것과 같은 공덕과 의의" 경전을 옮겨 쓰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것 또한 수행방법의 하나.



남 잘되게 하기
(오심스님 지음, 값9,000원)
▶월봉사 주지 오심스님의 생활법문으로 삶의 희망과 올바른 생활을 향한 지혜를 안겨주며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이타행利他行을 부르짖는 진리의 메시지



어린이 법요집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값3,000원)
▶전통예법과 법회 식순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만든 법요집



법화경의 세계-믿음으로 깨어나기
(히라가와아끼라 지음 / 석혜능 옮김, 값10,000원)
▶엄격한 수행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믿음에 의하여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는 법화경 가르침의 맑은 기쁨과 법열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책.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www.buddhagaya.co.kr 편집디자인 대한기획 (051)866-7818



스승 최승희(아래줄 가운데)와 함께 한 김백봉 교수(아래줄 왼쪽).



보살춤으로 시작 만다라로 회향

제자들에게 부채춤을 가르치는 김백봉 교수.

김백봉 교수 팔순에 제자들 헌정무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4월 13~14일

딸 안병주 교수, 김말애 단장 등 참여
'화관무' '선의 유동' 등 대표작 공연
불심 표현한 창작무용 '만다라' 눈길
영상 가미한 대형무대 … 직접 출연

보살춤의 대가, 전설적인 무용수 최승희의 수제자이자 한국 신무용의 대모라 불리우는 김백봉 명예교수(경희대). 올해 팔순을 맞는 무용가 김백봉 명예교수를 위해 제자들이 헌정무대를 마련한다.

4월 13~1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열리는 '한국 신무용 80년 사(史)와 김백봉 예(藝)의 삶-맥(脈)'. 김백봉 교수를 조명한 영상을 시작으로 '화관무' '녹음방초' '타의 예' '선의 유동' '김영임 명창의 회심곡' '광란의 제단' '굴레' '부채춤' '만다라(영상)' '태권무' 등 김백봉 교수를 사사한 제자들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김 교수의 딸인 김백봉무용단 단장 안병주 교수(경희대 무용학부)와 애제자 김말애무용단 김말애 단장(경희대 무용학부장) 등이 70여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공연한다.

김백봉 무용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화관무'는 88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2천명이 출연하는 대형 군무로 재창작돼 한국의 얼이 담긴 장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은 작품. 김 교수가 "자신의 고향은 작품 속에서도 늘 밑그림처럼 생명의 근원처럼 살아나는 곳"이라 했던 고향의 소박한 정서와 자연친화적 색채가 깊게 묻어나는 '녹음방초', 공들여 가르친 제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 둘씩 떠나가는 허탈감을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가 지상에 닿는 순간 물방울로 사라지는 것에 비유한 서정적인 작품 '선의 유동' 등이 눈길을 끈다. 김백봉 교수의 대표작 외에도 김말애 예술총감독의 창작 '굴레'와 화려하게 재구성된 태권무, 명창 김영임의 회심곡 공연도 마련돼 무대를 풍성하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은 부처와 보살이 그려내는 천상극락을 표현한 '만다라'이다. 김백봉 교수가 직접 추는 '만다라'는 영상으로 무대를 사로잡는다. 최승희의 보살춤을 기반으로 불심에 몰입하면서 느끼게 된 마음가짐과 선한 삶의 자세를 군무로 대형화한 '만다라'는 불심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김백봉표 창작춤이다.

영상으로 펼쳐지는 보살춤 '만다라'는 우주를 감싸고 있는 진리의 뜻이 모든 중생들에게 태양의 빛처럼 넓혀가며 퍼져가는 느낌이 들도록 입체적 환영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02)399-1114~7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김백봉 교수는 4월 13일 무대에서 스승 최승희의 보살춤을 자신의 불심과 결합시켜 창작한 '만다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 김백봉은
최승희 춤 맥 보존 · 재현에 한평생

1927년 평양에서 트럭운전사의 딸로 태어난 김백봉은 평양의 명윤여학교에 다니던 13세 때 아버지와 함께 진남포의 최승희 무용공연장을 찾아가 제자가 됐고, 그해 6월 18일 최승희를 찾아 일본 도쿄(東京)로 갔다. 1943년 최승희무용단 단원이 되어 일본 · 만주 · 중국 · 동남아시아 각국을 순회 공연하면서 최승희의 춤맥을 이었다. 1946년 평양에 있던 최승희무용연구소 부소장 겸 상임안무가로, 1949년 최승희무용단 제1무용수로 활약했다. 스승으로부터 '화관무' '부채춤'을 전수받았다.

1946년 6월 서울로 돌아온 김백봉은 박기홍에게서 승무를, 이동안에게서 태평무와 승무를 전수받았다.

1953년 서울에 김백봉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1965~1992년 경희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1~1985년, 1987년 예술원 회원이 됐다. 1992년 경희대학교 무용과 교수를 정년퇴임한 뒤 명예교수가 됐다. 1995년 김백봉춤보존회가 결성됐고, 1996년에는 예악당에서 최승희의 춤을 재현하는 대공연을 열었다.

1953년 서울시 문화상, 캄보디아 문화훈장, 대한민국예술원상, 1981년 보관문화훈장, 1988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에서 뽑은 '20세기를 빛낸 예술인'으로 선정됐다.



"춤사위 · 의미 한눈에 … "

능화 스님 〈한국의 불교무용〉 펴내

인천시무형문화재 10-가호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범패와작법무보존회 이사장)이 교리와 사상을 접목시킨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가운데서 불교무용 유래와 의미를 설명한 〈한국의 불교무용〉을 펴냈다.

능화 스님은 "불교무용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 예술적 가치를 보다 많은 이에게 알리고자 〈한국의 불교무용〉을 펴냈다"며 "직접 익히고 전승해 온 한국불교무용의 전통 춤사위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무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악보처럼 활용하는 무보(舞譜)를 만들고자 했다"고 발간의의를 설명했다.

〈한국의 불교무용〉은 불교무용인 작법무의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경전에 나타난 무용에 관한 문헌자료를 먼저 살펴본다. 불교무용은 바라춤 8가지, 나비춤 18가지, 법고춤 1가지, 타주춤 1가지 등 4종류 28개로 구성된다. 이 책에서는 작법무의 기본이 되는 바라춤의 천수바라, 나비춤의 다게나비, 법고춤, 타주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불교무용에서 쓰이는 음악과 악기, 각 춤별 춤사위의 명칭도 세세하게 해설한다. 각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용의 비교작업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능화 스님은 "불교의례 예술의 꽃인 작법무는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대중의 시선과 마음을 응집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신심을 고취시키고 재의식에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이 책을 통해 작법무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불광사 중창불사

우리는 타오르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요, 이 땅이 원래로 불국정토임을 선언하고 있는 여기 불광법회,
1974년에 창립된 불광법회는 신도교육, 문서포교, 복지활동 등 전법을 통해
밝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반야바라밀 위덕을 불어넣어 온갖 불행과 고난, 장애와 병고, 미혹의 어둠을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광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법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찾아오는 재가 구도자들의 운집으로 법회장소가 비좁게 되었고,
각종 계층법회와 소모임 교육과 수행프로그램운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중창불사를 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옵건대 불광사 중창불사가 모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 무 석 가 모 니 불

- 불광 사부대중 일동





불광사 불광법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 전화 413-6060~2 ● 팩스: 413-6781 ● http://www.bulkwangsa.org


새벽 2시의 도량석. 활안 스님이 직접 하신다.


불자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불. 한번도 거르지 않는다.

"올핸 어떤 농사 지으시렵니까?"

"마음밭 갈아야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활안 스님 (조계산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은 30년 넘게 조계산을 지키며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새벽 2시 도량석 시작으로 밭일 · 정진으로 하루 꽉차 백일정진중엔 방문밖 안나서

조계산 천자암 조실 활안(活眼 · 81) 스님이 백일정진이란 소식을 들었다. 친견하고 싶었다. 멀찌감치에서나마 큰 스님의 정진을 훔쳐보고 싶었다. 혹여 세속에 살면서 얼키고 설킨 인연줄의 끄트머리를 잡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다.

천자암 스님의 가행정진은 익히 들었던 바이다. 80이 넘은 노구에도 새벽 도량석은 물론 손수 밭일과 수행을 병행한다. 스님의 눈푸른 수좌 기운은 초발심 그대로여서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며칠을 남아나지 못한다. 스님따라 일하고 공부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그러할진데 백일정진이 가히 짐작이 되었다.

서둘렀던 길이건만 밤이 되어서야 천자암(天子庵)에 올랐다. 하늘사람이 사는곳 이어서인지 유난히 별들이 총총하고 가까웠다.

스님의 주석처인 '염화조실' 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녁 정진을 마치고 기도객들과 법담을 나누던 중이었다.

"무슨 물건이 와서 이렇게 대하는가?"

"……"

어물어물하는데 스님이 또 묻는다.

"몇 걸음에 왔는가?"

"한 걸음에 왔습니다."

혹여 말씀이 중단될까봐 사진기자가 즉각 답하자 스님은 '아니다' 며 잘라 말한다.

"한 걸음도 의미가 없다. 모자라야 한 걸음이지."

인사를 겸한 청법 삼배가 끝나기도 전에 졸지에 몇 방 얻어맞았다.

"부처보다 그 이상을 말하지 못하면 귀신이지. 네 놈같은 이가 바로 아는데는 귀신이고 뒷처리하는데 등신이야."

스님은 알 듯 모를 듯,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선 무어가 좋은지 마냥 웃어제낀다. 박장대소하는 한산습득을 보는듯 하다. 스님은 장난끼 철철 넘치는 어린아이 그대로였다.

고양이 앞의 쥐가 되어 쩔쩔 맸지만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말라' 며 질타하시는 스님이 싫지 않았다.

그날 밤늦도록 그렇게 얻어맞다가 스님방에서 물러났다.

스님은 1926년 병인(丙寅)생이다. 세수로 81세. 20대에 출가하여 지금까지 수행자 본분을 지키는데 한 치 흐트러짐없이 살았다. 50여년전, 오대산 북대에서 정진하면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게으름' 에 있어서는 단호했다. 그 모양이 어찌나 무섭던지 호랑이띠인 스님은 자연스럽게 '오대산 호랑이' 로 불렸다.

조계산에 주석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조계산 호랑이' 가 된지 어느덧 30년이 넘었건만 새벽 도량석 목탁을 놓지않는다.

스님의 백일정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함이 있다. 정진중에는 산문밖은 물론이고 방문밖도 나서지 않는다. 방안에서 손수 공양하고 정진한다. 법당에서보다 더많은 시간을 보내는 밭일도 정진기간에는 중단된다.

스님의 백일정진 발원은 '안정' 이다. 주로 나라와 종단의 안정을 기원한다. 더불어 유주무주 고혼천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사회가 시끄럽고, 도량이 어수선하면 스님은 어김없이 백일정진에 들어간다.

다음날 새벽 2시, 어김없이 도량석 목탁이 울렸다. 새벽정진은 5시30분까지 계속됐다. 10여명의 기도객이 함께했다. 독경, 정근, 축원으로 진행되는 동안 스님은 한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정진을 이끌었다.

이러한 스님의 정진은 오전 8~10시, 오후 2~4시, 저녁 6시30분 예불까지 네 번에 걸쳐 진행된다.

정진이 간절하면 초인이 되는가보다. 1시간만 독경해도 목이 쉴듯 하건만 한번 시작한 정근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백일정진은 4월 10일 회향한다.

정진을 마치고 법당문을 나서는 스님앞에 버티고 섰다.

여쭙고 싶은 말은 많지만, 평생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수행자의 본분이 궁금했다.

"사람에게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어, 심성 밝히는 일이 먼저 할 일이지. 그래서 출가했어. 이제껏 실수없이 걸어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행복이나 사랑이 싫다는 것도 그렇고. 연애하자는 꼬드김도 받았어.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아닌바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거야.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었지. 이제는 천번 만번 실패해도 끄달리지 않아."

"인과에 떨어지기보다 매이지 않는다"는 백장선사의 '할' 처럼 "인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스님의 가르침이 가슴을 울린다.

"이제 봄입니다. 새벽엔 춥더니 해가 뜨니 따사롭네요."

"그것이 생명 재롱떠는 소리이지."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으시렵니까?"

"심전(心田)을 갈아야지. 마음밭을 갈아 생명 싹을 틔울거야"

스님의 마음밭. 조계산 꼭대기에서 가을 바람이 내려올때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보여 주시리라.

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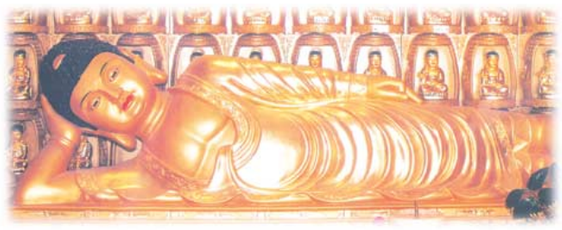
조계산서 30여년 정진, 백일특별정진만 백번 넘어

활안 스님은 활안 스님이 조계산 천자암에서 발걸음을 멈췄던 때가 1974년, 이후 이곳에서 30여년을 한결같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정진' 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오두막 한 채가 전부였던 천자암도 세월이 흘러 격을 갖춘 법당과 선원이 들어섰다. 법왕루, 종각, 나한전, 산신각과 요사채가 들어서 풍채 당당한 가람으로 거듭났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쌍향수(천연기념물 88호)와 스님의 정진뿐이다. 스님은 매년 1~2차례 특별정진을 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정진만 백여차례를 넘게 해 왔다.

스님은 1926년 전남 담양 용연리에서 6남 1년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1945년 광복되던 해 순창 순평사에서 효봉스님의 은사인 석두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당시는 총체적 혼란기여서 뒤늦게 1953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승적에 올렸다. 이후 수덕사 법주사 불국사 상원사 죔밭암 등 제방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했다.

삼사순례 및 방생. 기도영험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 해 사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귀먹고, 눈멀고, 다리불구이거나, 곱추거나, 정신이상이거나, 여러가지 신병에 결렸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명호를 듣게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소원을 이루리라는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소원이루시길 바랍니다 .

불사안내
◆와 불 : 1구좌 100만원 ◆몸속부처님원불 : 1000만원 ◆후불탱화 : 300만원(몸속부처님은 옥불로 모심)
◆협사불 : 각 700만원 ◆천 불 : 한부처님 3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30-0705

5월 15일 출발 실크로드 성지 순례 12일
(5월 6일까지 마감)

동참금 : ₩ 1,990,000원 (개인 경비 외 모두 포함)

순례 코스
□ 서안 – 법문사 불지사리, 병마용
□ 난주 – 불교 벽화의 진수 병영사 석굴
□ 돈황 – 돈황 예술의 결정 막고굴 , 신비의 산 명사산
□ 투루판 – 천불동, 아스타나 고분군, 서유기로 유명한 화염산
□ 쿠얼러 – 버스팅 호수
□ 쿠차 – 천산 신비 대 협곡, 키질 석굴
□ 카스 – 향비묘, 청진사, 카리쿠리 호수
□ 우루무치 – 천산천지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북경 사찰 순례및 관광 7일
(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
₩450,000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본래 내 마음자리 바로 봐야

활안 스님의 가르침

지금부터 1천2백 여 년 전에 중국에 마조(馬祖 道一)라는 큰 망아지가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답사(踏死)시켰습니다. 조사니 선사니 할 것 없이 다 밟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조 스님 슬하에는 84명의 입실제자가 있었고, 따르는 제자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마조 스님이 하루는 제자인 백장(百丈) 스님에게 "내가 숨을 안 쉬게 되면 체와 용(부처님의 근본 법과 근본 법의 쓰임) 두 가지를 중생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어 백장 스님이 되묻기를 "스님은 나에게 법을 마지막 전하실 때, 양의 뼈와 살을 골려서 어떻게 중생에게 파종하시겠습니까? 법을 명실공히 전하시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 역시 주장자를 들어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속마음을 굳건하게 지니고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는 활안 스님.

몸뚱이는 마음의 옷
몰랐을땐 생사가 둘이지만
알고 나면 본래 空해

제자 역시 이것을 버리고 써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 옳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조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할!"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백장 스님은 3일 동안 귀가 꽉 막혔답니다. '통현일할 만기복(通玄一喝 萬機伏)' 하니, 통현 장자의 할에 온갖 번뇌망상이 굴복하니, 법신 경계, 보신 경계, 화신 경계가 다 일망타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삶을 일망타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생활용법은 천하에 간단합니다. 일종의 숫자 놀음과 같아서 크나 작으나 간에 내 삶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파악이 되면 먼저 납득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숫자가 100인지 200인지, 그렇게 되면 그 숫자를 분해할 수도 있고, 능히 조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립이 잘 되면 모든 중생 한 사람 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크거나 작은 대로 그 존재의 삶은 끝없이 빛이 납니다.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생을 보는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마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재롱 떠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처럼, 자식 잘되는 것이 제일인 어머니의 마음처럼 행복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중생의 삶이 빛이 나면 이 활안이란 중의 마음은 끝 없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공정(共正)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삶의 숫자를 파악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래의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바르고 밝게 꿰는 지혜로써 내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우주 만물이 생기는 법, 죽는 법이 이루어지기 전의 본래의 내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어떤 절대자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내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바로 나만이 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면서 수행을 미루고 둘러대고 변명을 합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하기 싫어서입니다. 변명도 시방삼세 부처님이 꼼짝할 수 없는 큰 변명을 하면 성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과 고통만 남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해 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흉보고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한 생각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내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는 마음의 옷입니다. 몰랐을 때에는 몸뚱이의 생사가 둘이지만, 알고 나면 생사가 본래 공한 것입니다. 마음의 옷이 더러우면 빨아 입고, 떨어지면 기워 입고, 못 쓰게 되면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끝없이 빛이 날지, 판단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마음 근본의 흰 바탕 즉, 내 자성자리를 바로 보는 것,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자성자리를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혜가 생겨서 내 마음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일구 참선이나 그 화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미타불을 염하든지, 아니면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반야심경> 그도 아니면 찬탄의 노래라도 선택하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은 원래 공한 것이고, 삼라만상도 본래 공한 것이고, 그 공은 일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일념이라면 '양동 태허(陽動太虛: 양이 움직이니 크게 비워지다)'이며, 능히 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대로 노력하면 아주 큰 것은 아주 적은 것의 양이 되고, 아주 적은 것은 아주 큰 것의 근본이 됩니다. 이렇게 진실해지면 이 공덕으로 나와 남이 모두 성불할 것입니다.

바닷물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항상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밑바닥은 연못보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거침고 힘든 일을 당해 울고 웃고 할지라도, 속마음은 돌보다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합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닷속 고요가 출렁이는 파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처럼.

정리=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9>



아난존자와 결혼하는 법(1)

부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자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화들을 통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사람'이 관련되어서 그런지 뭉텅뭉텅 몰려오는 감동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마등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런 저런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술이란 게 사람들을 홀리거나 액난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거나 굿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등의 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긷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탁발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아난존자가 그 우물가를 지나치다가 그 처녀에게 물 한 잔을 청하였습니다.

경전을 통해 아난존자의 면모를 추리해보면 대체로 매우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정이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게다가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니 출가하기 전에 왕가에서 익힌 그 귀족적인 풍모와 행동거지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무심코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건네주려고 아난존자를 향해 몸을 돌리던 마등의 딸은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동작하며, 음성, 눈길이 이 세상사람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난존자에게 한눈에 반한 마등의 딸
막무가내로 유혹… 해결에 나선 부처님은?

마등의 딸은 그만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난존자의 뒤를 밟아 그 처소를 확인하고 부처님의 제자임을 알아낸 뒤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람결이 살랑 뺨에 닿아도 주르르 눈물을 흘렸고, 문이 덜컥 거려도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사랑한단 말이지? 아이고, 이것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 분은 왕자님이셨다가 그 부귀영화도 싫다 하여 머리 깎고 출가하신 분이야. 그러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아주 근사한 청년을 알아보마."

하지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무조건 아난존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아난존자를 만나러가기까지 하였습니다만 자신은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고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여인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대답만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발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분이 스님이라서 안 된다면 어머니에게 좋은 기술이 있잖아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모든 술법을 다 써서라도 제 앞에 그 분을 데려다 주세요."

사랑에 눈이 먼 마등의 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아난존자의 그 모습이 어른거리니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딸을 살리고 봐야겠기에 마등은 탁발하러 나선 아난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에 제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에 밀어 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곱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던 그녀는 아난존자에게 온몸을 던졌습니다.

'시간아, 어서어서 지나라. 이 밤만 지나면 이 분은 내 남편이 될 것이야.'

그녀는 아난존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그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아난존자의 눈, 코, 입과 귀를 쓰다듬고 그의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난존자는 자기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여자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리도 애절하게 매달리지만 이미 출가의 길을 선택한 구도자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경전에서는 그의 외침을 듣고 부처님이 어떤 기적을 부려서 그를 마등의 집에서 빠져나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난존자를 유혹하려다 실패로 끝난 마등의 딸은 그를 향한 사랑을 달랠 길이 없어 아침마다 탁발을 하러 나가는 아난존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몹시 부끄러움을 타는 아난존자는 결국 탁발을 하러 나가지 못하였고 절 문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마등의 딸은 슬피 울며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이 해결사로 나셔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마등의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난이 그리 좋으냐?"

"네, 부처님."

"그럼 내가 두 사람을 맺어주겠다." (불설마등녀해형중육사경).(계속)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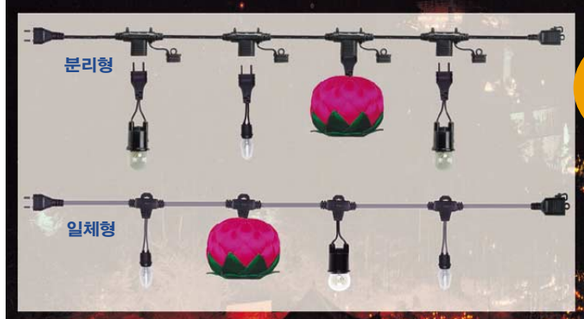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분리형
일체형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일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궁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봄철 풍성한 茶축제 보러오세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찻잎이 고개를 내민다. 또르르 말린 찻잎 사이사이로 차향이 짙게 배어가는 이즈음, 전국 곳곳에서는 차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우리나라 2대 차 생산지인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을 비롯해 부산과 경주, 문경 등 해마다 차 축제 한마당을 열고 있는 지자체들이 행사 계획을 속속 발표했다.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찾아가볼만한 전국 차 축제 현장을 소개한다.

부산 차밭골문화제봉행위원회(위원장 혜성, 금강사 회주)가 주최하는 '제2회 부산차밭골문화제'는 4월 9일 오전 10시 부산 금정산 금강사 내 차밭골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밭골 고당선랑각 다신제를 시작으로 백화만발공양 다례제, 불수선차 시연, 두리차회 및 화전놀이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금강사 선서회관에서는 '다담이 있는 다구' 전시회도 마련된다. (051)555-1383 차밭골문화제봉행위원회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인 경주시에서는 '제6회 신라도자기축제'가 '천년의 꿈 만년의 숨결'을 주제로 4월 13일까지 열린다. 경주시도자기협회(회장 심종승)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생활자기, 찻그릇은 물론 토기, 옹기, 청자, 분장회청사기 등 다양한 도자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4월 9일에는 각 부문별 작가들의 워크샵이 열려 성형기법 시연과 작가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도자기 외에도 천연염색, 목공예, 금속공예 등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경주지역 차인회가 주관하는 다례시연도 빼놓을 수 없다. (054)779-6234 경주시청 지역경제과

전통 찻사발의 본향(本鄕)으로 널리 알려진 문경시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혼(魂)을 굽는 장인(匠人)과의 만남'을 주제로 '2006 문경 한국전통찻사발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 기간에 눈에 띄는 행사는 지난해 8월 문경읍 용연리에서 발굴된 백자공방유적 3기가 문경도자기전시관에 원형 그대로 복원 · 공개되는 것이다.

축제는 봉암사 백운대 마애보살좌상 헌다의례를 시작으로 세계 찻사발 전시회, 찻사발 공모대전, 일본 우라센게가의 다도특별시범, 선화도예인 추모 헌다례, 전국 한시백일장, 전통궁중혼례 시범, 다례시연, 명사 초청 찻사발 강연 등의 부대행사로 이어진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사기장인 김정옥씨, 전통도예명장인 천한봉씨와 이정환씨 등 문경을 대표하는 도예 작가 24명의 작품전도 열려 눈길을 끈다.

박인원 문경시장은 "신록이 돋아나는 계절에 열리는 문경 찻사발축제에 참가해 새재 옛길도 걸어보고 망댕이가마와 오백년된 백자공방이 어떤 모습인지 느껴보는 기회를 가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다향제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보성체육공원과 일림산 녹차밭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07 세계녹차페스티벌'과 '2010년 세계녹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축제를 겸하며, 도올 김용옥 교수(순천대 인문학부 석좌교수)가 명예대회장으로 추대돼 그 의의를 더한다.

보성을 '녹차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보인 보성군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녹차'를 주제로 공식/전시/체험/부대행사 등 4개 분야 77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각 분야별로는 다신제, 차의날 행사, 도예가워크샵 등의 공식행사와 국제명차전시, 다기 다포 찻잔 명품전, 차포장재 전시 등의 전시행사, 차음식만들기 녹차페이스페인팅, 대원사 템플스테이 등의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동아시아차문화비교세미나, 한 · 중 · 일 삼국 차문화교류전, 국제 수제차 만들기 시연, 제3회 보성명차 선정대회 등의 굵직한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보성군은 철도청과 연계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림산 철쭉과 녹차밭, 해수녹차탕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열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다향제가 가족과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웰빙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061-850-5223 www.boseong.go.kr

하동군은 화개면 운수리 차시배지 일원과 진교면 백련리 찻사발도요지에서 '제11회 야생차문화축제'를 5월 18~21일 개최한다. 참가자가 직접 차를 만들고 만든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녹차재배농가체험과 학술세미나, 찻사발 전시, 올해의 명차 선정 등 매년 해오던 행사 외에도 올해 처음 선보이는 행사들도 마련됐다. 차와 문학의 고장인 하동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제1회 전국다시낭송대회, 주한 외국인 대사관 자녀 및 미8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세계어린이 다례절대회, '녹차요리명인'을 선발하기 위한 제1회 전국녹차음식명인선발대회 등이 그것이다. 특히 녹차음식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열리는 전국녹차음식명인선발대회 1등 수상자에게는 '녹차요리명인' 자격증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하동녹차요리'로 명명, 일반식당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055)880-2114 하동군 문화관광과 http://hadong.ilinz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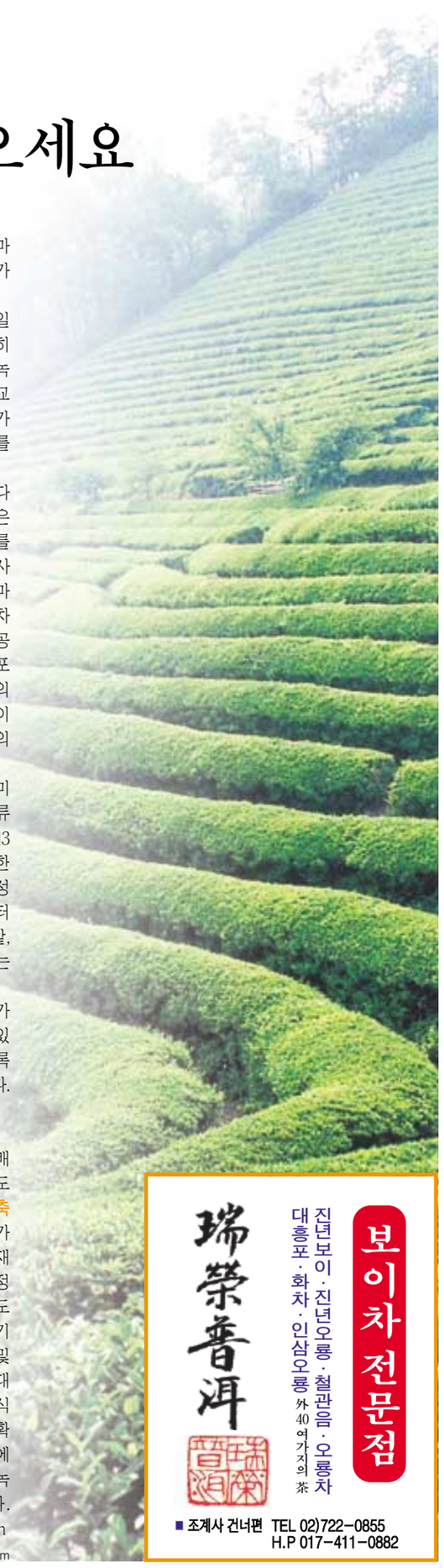

지난해 열린 하동야생차문화축전의 다례 시연.


찻사발 제작 체험.


녹차를 시음하는 외국인 관광객.

도자기 체험, 녹차요리경연 등 주말 이용 가족과 함께 가볼만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2. 칠자병차속 숫자보이차 ①

보이차의 구매과정에서 상인들이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는 제각각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끄떡이며 보이차를 산다. 이어 "내가 산 보이차만이 진짜다"하면서 애써 믿음을 가진다.

지금 보이차 시장에서는 7572, 7582, 7532, 7542, 7452, 8582 등과 같은 숫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마치 무슨 발명품 또는 상품의 바코드처럼 보이는 이러한 숫자는 다름 아닌 칠자병차의 상품명이다. 칠자병차 중 이러한 숫자가 붙어 있으며 가격이 올라가고 더 잘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차의 겉 포장지 어디에도 이러한 숫자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차에 대한 신뢰는 상인들의 입에 의지해야하는 형국인 셈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비로소 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숫자보이차'의 현실이다.

만약 누가 필자에게 보이차 중 진위 판별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상품이냐고 물어본다면 주저 없이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숫자보이차'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붙여진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진위를 가리는데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2회에 걸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숫자의 형태 즉 7572, 8582와 같은 4개의 숫자 이외 5개의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보이차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75671, 79072 등과 같은 것. 5개의 숫자가 보이차 시장에서 보이지 않고 오직 4개의 숫자만 보이는 것은 5개의 숫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산차(散茶)의 바코드숫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바코드 숫자이라 지칭한 것은 보이차에서 보이는 이러한 숫자가 상품바코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차와는 달리 긴압차(緊壓茶)의 바코드는 4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7572제품을 예로 든다면 75년에, 7등급 찻잎 중심으로, 맹해차창(勐海茶廠)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여기에 필자가 '최초'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75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같은 바코드를 가진 7572제품들이 다시 여러 차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7572일지라도 75년도 최초의 제품과 80년대, 90년대 제품들이 다양하게 보이차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숫자보이차' 중 숫자의 의미는 상품의 바코드이자 제품제조에 관한 레시피(Recipe)의 기호이다. 레시피는 조리법 · 비법 · 비결 등을 뜻하며, 약제 등의 처방전을 말하기도 한다. 7572일 경우 레시피의 숫자는 7자다. 즉 7등급 찻잎 중심으로 기타 등급 찻잎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찻잎의 혼합 비율이 바로 맛에 관한 비방(秘方)이자 비법이다. 75년도에 만든 7572이란 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자 맹해공장에서 같은 레시피로 여러 차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왜 같은 7572제품일지라도 다양한 연도로 존재하며 가격도 그에 따라 천차만별로 매겨지는 이유다.

숫자는 바코드이자 제품에 관한 조리법
7등급과 기타 등급 혼합 비율이 맛 좌우

잎차인 산차일 경우 75671제품은 75년도, 6등급과 7등급의 찻잎으로 1번 공장 즉 곤명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 참고로 운남성 정부는 보이차제품의 출처를 곤명공장(昆明)은 1번, 맹해공장(勐海)은 2번, 하관공장(下關)은 3번, 보이(普洱) 또는 봉경(鳳慶)공장은 4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중에서 보이는 숫자보이차의 제품들을 보면 90% 이상이 '2'라는 끝 번호를 달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칠자병차 출처가 맹해공장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한서대학교





같은 7542 제품이라도 연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 · 야간)적외선카메라2대 = 200만원,카메라한대추가시 + 40만
"보안은 예방"
CCTV
3대 만족 ▼ 품질,가격,서비스
사업내용
• CCTV판매 및 설치 공사
• 청소,경비용역
• 방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
시공사찰
• 대성사 • 송림사
• 보현사 • 선운사
• 도솔암 • 계암사
• 안국사
A1 에이원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주)에이원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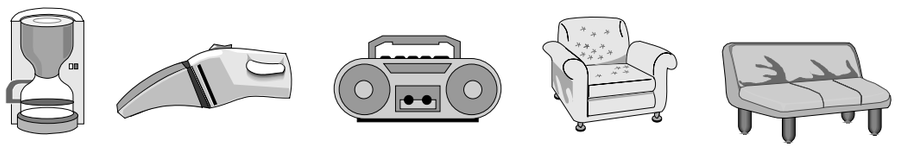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버려야 할 이삿짐 나눠쓰세요



2004년 부천 석왕사 내에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원미정에서 불자들이 기증받은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아름다운 가게' 이사문화캠페인 전개
수거차·무료택배 서비스 이용
냉장고·침대 등 대형 가전·가구
생활자원재활용협회서 수거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그동안 집안에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쓴 것 같은데, 이삿짐을 꾸리다 보면 버려야 할 물건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아이들이 자라 쓸모없게 된 장난감부터 사용하지 않는 그릇, 유행 지난 옷가지까지. 버리자니 아깝고 소용은 닿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재활용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자.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www.beautifulstore.org)'는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114와 함께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물품을 기증받는 '아름다운 이사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물건이 이사를 하면서 그대로 버려진다는 점에 주목해 1년 중 가장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아름다운 가게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 받아 깨끗이 손질한 뒤 재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시민사회단체. 현재 전국 63곳의 매장이 있으며, 사철로는 서울 봉은사와 경기도 부천 석왕사에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기증할 물건은 이삿짐을 싸며 따로 빼둔 뒤 직접 매장을 방문해 기증하거나 대한통운, HTH, 한진택배, 현대택배의 무료 택배 서비스(국번없이 1688-5004) 또는 아름다운 가게의 수거차량을 이용해 기증하면 된다.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는 상자포장을 해야 하며, 아름다운 가게에 전화 접수를 하면 1~2일 안에 집으로 찾아와 물건을 가져가기도 한다.

옷이나 가방, 신발, 그릇 등의 생활용품을 비롯해 책, 학용품, 영유아 침대나 사무용 의자, TV, 토스터기, 청소기, 밥통, 컴퓨터 등의 소형가전은 모두 기증 가능하다.

단 침대, 장농, 책상, 싱크대 등 부피가 큰 가구와 세탁기, 냉장고, 가스오븐레인지 등의 대형 가전제품은 매장이 좁은 관계로 기증 받지 않는다. 에어컨, 정수기, 가스레인지 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물건도 기증 제외 제품이다.

기증할 물품이 많을 경우 목록을 작성해 전화로 기증이 가능한 제품과 불가능한 제품을 확인한 후 물품 수거 방식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부피가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있다면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를 찾아보자. 전국 120개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매장에서는 가전·가구제품을 수거, 손질 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유아용품이나 장난감, 도서 등의 교환판매도 가능하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오디오, VTR,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과 장롱, 소파, 침대, 화장대, 책상, 사무집기 등 가구제품 그리고 사무집기류 등을 기증할 수 있다.

기증물품을 센터로 직접 가져가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7272로 전화하면 가까운 센터로 연결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ecycle.or.kr)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센터를 검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재활용교육정보센터(http://www.recycle21.com)의 물물교환 코너나 아이 베이비(i-baby.co.kr) YMCA 녹색가게(www.greenshop.or.kr) 리싸이클 시티(www.rety.co.kr) 재활용센터연합(http://www.zungo.co.kr) 등을 통해 재활용품을 기증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안쓰는 물건 기증받는 곳

단체명	운영방식	연락처
아름다운 가게 (www.beautifulstore.org)	기증	무료택배 1688-5004 봉은사점 (02)516-7887 석왕사점 (032)654-7497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http://www.recycle.or.kr)	기증 교환·위탁판매	본사 (02)2677-8664 기증문의 1588-7272
재활용교육정보센터 (http://www.recycle21.com)	기증/물물교환	본사 (02)338-9999
재활용센터연합 (http://www.zungo.co.kr)	기증/판매 무료수거·매입	관악구센터 (02)884-7289 마포구센터 (02)713-7289 영등포센터 (02)2632-7289 신길센터 (02)836-7289 종로구센터 (02)762-7289 중구센터 (02)2231-7282
리싸이클 시티 (www.rety.co.kr)	매입·판매	1588-8425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3>

양배추 샐러드, 양배추 피클





어릴 적, 절에 머물 때면 스님이 기도하실 때 곁에 쭈그리고 앉아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스님께서 "절해라! 부처님께 건강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저 흉내만 내는 정도였습니다.

스님이 기도를 끝내시기도 전에 놀러 나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참 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스님께서는 따뜻한 봄이 오면 밖에서 공양하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밭에서 농사지은 상추나 당시에는 이름도 모르던 잎이 큰 나물 등을 밥솥에 쪄서 된장을 넣어 쌈밥을 해 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나른한 봄이 되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잎이 큰 채소는 근대나 양배추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먹기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밥 한번 먹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며 밥솥에 호박잎이랑 양배추, 근대 등을 쪄서 쌈밥을 자주 해먹곤 합니다.

스님께서는 가끔 양배추를 샐러드로도 만들어 드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야채를 잘 먹어야 잘 싸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음식을 만들면서 제 입에 맛있는 것만 찾아서 만들어 왔는데 그러다보니 다양한 음식의 맛과 그 음식 속에 들어 있는 풍부한 영양소를 다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배추 속에 있는 칼슘이나 비타민, 무기질이란 것을 모르더라도 양배추를 먹으면 피부도 밝아지고, 배변활동도 좋아지는 이치가 바로 식재료 속에 있는 영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양배추 샐러드와 양배추찜 그리고 여러 야채를 챙겨서 소풍가고 싶은 충동이 가슴속에서 아지랑이 피어나듯 피어나고 있습니다.

■만드는법



<양배추 샐러드> 재료 : 양배추 1/4통, 사과 1개, 빨간 피망 1/4개, 소스(감식초 2큰술, 녹차기름 2큰술, 설탕 1/2큰술, 소금 약간, 사과즙 4큰술)

1. 양배추는 곱게 채 썰어 냉수에 담가둔 후 물기를 뺀다.
2. 사과는 껍질째 채 썰어 냉수에 담가둔 후 물기를 빼고 빨강 피망은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준다.
3. 소스를 만든다.
4. 양배추와 사과를 섞은 뒤 소스를 뿌리고 빨강 피망을 위에 뿌려준다.



<양배추 피클> 재료 : 양배추 1/4통. 빨간 미니 파프리카 2개, 적고구마 가루 약간, 절임물(감식초 5큰술, 설탕 5큰술, 물 5술, 소금 5큰술)

1. 양배추는 먹기 좋게 썰어준다.
2. 미니 파프리카는 한입 크기로 잘라준다.
3. 절임물 재료로 절임물을 만들고 적고구마 가루를 넣어 색을 낸다.
4. 양배추와 미니 파프리카를 섞은 뒤 절임물을 부어준다.

▶다음 주에는 다시마 콩나물 무침과 겨자드레레싱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팩스 02) 737-0697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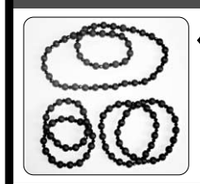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스타와 스님

효심 지극 불심 돈독

배우 엄정화 엄태웅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4월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홀에서 'Thank you 콘서트'가 열린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감독 권형진, 제작 싸이더스FNH)에서 주연을 맡은 불자 배우 엄정화가 영화음악 감독 이병우씨 등과 함께 여는 이색 콘서트다. 자존심만 남은 철없는 피아노 선생님과 천재적 재능을 가진 소년이 우연히 만나 진정한 사제지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휴먼드라마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5월 25일 개봉 예정이다.

지난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오로라 공주' 등에 출연하고 올해 새 작품으로 조용히 영화촬영에 들어간 배우 엄정화가 불자라는 것은 유명하다. 지난해 KBS 드라마 '쾌걸춘향' '부활' 등으로 엄포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톱클래스의 배우로 그 연기력을 인정받은 엄태웅 역시 불심이 돈독하다.

이들 남매가 인연 맺고 있는 사찰은 종로구 숭인동의 대한불교관음종 총본산 묘각사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주석사찰이다. 어머니 유덕련심 보살과 함께 20여년 이상 묘각사에 다닌 이들은 유명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스님을 찾아 고민을 풀어놓는다.

"유덕련심 보살이 합창단 단장으로 10년이 넘도록 활동했고 지금은 신도회 부회장과 합창단 명예단장을 겸임하는 등 절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합니다. 정화양과 태웅군도 스케줄을 조절해 절일에 도움 되도록 노력해줘서 고맙지요."

엄정화는 일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 홍파 스님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 전화통화가 힘들 때는 엄마를 통해 스님과 상담한다. 아무리 스케줄에 쫓겨도 1년에 2~3번은 스님을 만나 반나절 이상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홍파 스님은 "정화양 태웅군이 연예인이 되기 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는데 둘 다 효녀 효자인데다가 독실한 불자들"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의외로 외로운 직업인데 힘들 때 향락에 빠지는 것보다 불심에 매달릴 것을 말하면 잘들 따라와줘서 고맙다"라고 이들 남매를 칭찬한다.


홍파 스님에게 세배하고 기념촬영한 온 엄정화(오른쪽) · 엄태웅 남매.

10년 넘게 합창단 활동한 어머니 영향으로 인연
바쁜 일정에도 틈틈히 인사 상담 신행생활 열심

엄정화 엄태웅 남매는 새해 초 스님을 찾아와 새배하는 것을 한해도 거르지 않는다. 올해도 남매가 나란히 스님을 찾았다.

4남매의 둘째인 엄정화와 막내인 엄태웅은 절에 같이 다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엄마 손 잡고 절에 다니던 엄태웅은 누나보다 뭐든지 잘하고 싶어했다. 불심에 있어서도 스님은 누나보다 동생이 한 차원 높은 것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정도.

엄태웅은 절에 오면 108배를 하면서 불심을 다진다. 신행생활도 누나보다 잘하려고 '억척스레'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정화양 태웅군이 엄마의 지극한 신행에 감화됐기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큰딸 정혜, 셋째 정선양 등 온 가족이 절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불자가족"이라는 홍파 스님의 말처럼 엄정화 엄태웅 남매의 가족 불심은 묘각사에서도 으뜸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생로병사를 보는 동양인의 '눈'

아리랑TV 매주 월 · 화 '미스터리 아시아' 방영

아시아 문화 다룬 다큐멘터리

서양인들은 아시아의 문화에서 미스터리를 본다. 그러나 아시아인들은 과학이라고 말한다. 서양인들은 아시아의 문화에 이니그마(enigma;수수께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시아인에게 그것은 생활일 뿐이다.

아리랑TV가 3월 27일부터 매주 월 · 화 밤 11시에 방영하는 '미스터리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눈으로 바라본 생 · 로 · 병 · 사에 대한 아시아 문화의 수수께끼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다.

'서양인은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왜 동양인은 공중부양으로 스스로 날고자 했을까'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무엇으로 죽는가-닌자'(3월 27일)를 시작으로 '여자와 남자-카마수트라'(28일), 동양의 운명학 관상을 다룬 '얼굴, 내 안의 운명-관상'(4월 3일), '몸 안의 우주-기'(4일) 등으로 동양정신을 조명한다.

이어 티베트 북쪽의 서라 사원에서 치르는 전통 장례의식을 다룬 '조장'(18일), 수행을 통해 얻은 경공술로 중력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인 '가벼워지려는 욕망-경공'(25일) 등은 동양인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들이다.

고대부터 인간과 신을 연결해 왔던 중간자 무당을 조명한 '신과 인간 사이-무당'(10일), '징기즈칸'의 무덤에 얽힌 의혹을 파헤친 '바람으로 남다-징기스칸'(11일), 몽골인이 혼을 부를 때 사용한다는 '흐미'를 소개한 '바람과 대지의 노래-흐미'(17일), 중국 진시황이 평생을 갈구하고 찾아 헤맸던 '영원을 남기다-불로초'(24일) 등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지연 기자



'황금탱화 · 불화展'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이연욱씨(화공 제1088호 · 사진)가 '황금탱화 및 불화전'을 4월 3~8일 수원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황금탱화 18점, 황금단청과 황금달마도 등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청장 이수자 이연욱씨는 "옛 기법을 응용해서 작업한 황금탱화는 순금을 붙이고 그 위에 석회와 안료를 가미해서 탱화를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년 제1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꾸준히 불미전과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등에 출품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인정받아 왔다. (031)295-2985

강지연 기자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세레나데 · 반야심경 등 연주

'부처와 모차르트의 만남'
템플스테이, 테마 연주 계획

석가모니 부처님 탄신과 모차르트 탄생 250년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열린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하 니르바나)가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제8회 정기연주회 '부처와 모차르트의 만남'을 개최한다.

서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부처와 모차르트의 만남'은 모차르트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기쁜 날' 등이 연주된다. 니르바나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창작곡들도 풍성하다. 황호준씨가 작곡한 '반야심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인 문현 박사가 노래하는 <반야심경>으로 동 · 서양 음악의 만남을 시도한다. 지원석씨의 '룸비니 동산에' '마하반야바라밀'은 현악 위주의 클래식 창작곡이다. 이진구씨가 작곡한 '내 마음의 부처'와 유정미씨가 전자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열반' 등도 첫 선을 보인다.

모차르트 심포니 40과 25 1악장은 재즈로 편곡해 'I Love Mozart' 'Viva Mozart'라는 제목으로 편곡자 김민정씨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다.

한편 니르바나는 올해 '니르바나 연주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5월 27~28일 내소사의 봄, 7월 7~8일 미황사의 여름 등을 통해 산사체험과 함께 클래식 연주, 한국시조문학진흥회의 국악연주와의 어울림 마당을 펼친다. 불교문화유적지 답사와 연주를 연결해 6월 중에 서산 보원사지 연주회와 경주 남산 답사 연주 등도 추진 중이다.

'니르바나의 테마가 있는 연주'도 마련한다. △불교, 영화 그리고 음악 △불교, 천문학 그리고 음악 △불교, 미술 그리고 음악 △불교, 요가 그리고 음악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월호 스님 이호신 화백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대화도 하고 연주도 듣는 시간을 구상하고 있다.

3년 동안 이어온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도 11월 말 경 대원정사의 전액 지원으로 KBS홀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한국적인 문화프로그램 신설
불교TV, 미주 겨냥 봄 개편

불교TV가 3월 27일부터 미주방송을 겨냥한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문화프로그램들을 신설 전진 배치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암자'(매주 수요일)는 한국의 대표적 수행처 암자를 기행하면서 느끼는 출연자의 사색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구성한다. 궁중요리 연구가 '한복선의 한국전통음식'(매주 화요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제철음식 웰빙 상차림을 선보인다.

차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시할 '천년의 향기, 茶'(매주 금요일)는 삼독으로 가득찬 자신의 삶을 지혜와 보시, 자비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차를 마시면서 배운다. 건축 공예 도예 소리꾼 화가 등 불교계 예술인들을 찾아 인생역정을 듣는 '한국의 장인'(매주 월요일), 고려대장경 발우공양 출가 등을 다룬 정통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특선다큐멘터리'(매주 수요일), 한 주 동안의 교계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사매거진 현장과 사람들'(매주 금요일) 등이 첫 선을 보였다. '新 충성! 성불하십시오'(격주 1회)는 전국의 군부대를 순례하면서 '생활 속의 군대, 생활 속의 불교'를 위한 군 포교의 프로그램이다.

강지연 기자

공예아카데미 CEO 과정 개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원장 권오인)은 한국공예산업의 지도자 육성을 위해 '공예아카데미CEO과정'을 개설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공예아카데미 CEO과정'은 4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에서 열린다. '목아박물관 경영이야기' '공예품 속의 정신과 문화 이해' '인도네시아 공예산업 현장탐방' 등의 강의가 마련된다. (02)360-4886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15일

조계종 문화부는 4월 22일로 예정됐던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이 4월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일정 변경을 공고했다.

불자가수 김종국 군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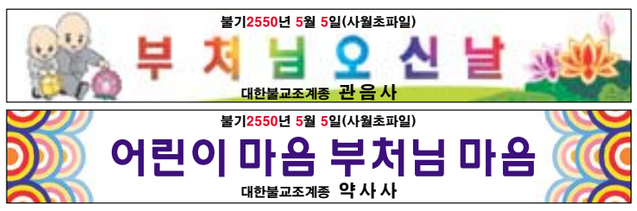
불자가수 김종국이 3월 30일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23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김종국 측은 병무청에 음반활동 일정과 함께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는 월드컵을 사유로 입대를 연기하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가 갑작스레 입대하게 됐다.

불법복제판매 불허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 축 현 수 막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 지하철(장엄)현수막



◆ 티셔츠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통칙스님 판화 작품

◆ 앞치마
색상 : 군청, 주황, 연두, 노랑, 분홍, 빨강, 녹색



◆ 봉축 캐릭터 풍선


(바람넣는 손펌프도 있습니다)

◆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 봉축 어깨띠
색상 : 주황, 하늘, 군청, 분홍, 연두 분홍, 노랑, 주황, 하늘, 연두 (사찰명 인쇄 가능)



◆ 봉축 타이슬링



◆ 연꽃타올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 연꽃수건
색상 : 주황, 진녹, 밤색



◆ 청사초롱 (5가지 1세트)



◆ 봉축 캐릭터 등
색상 : 적색, 분홍, 녹색 노랑, 청색



화재염려 없는
◆ T형 일체식 케이블
※ 실용신안등록 제품!



◆ 봉축 리본


일반 고급 3단귀빈용

◆ 불자의 집 교패
차량용 옴마니반메훔

◆ 호신불 열쇠고리
(200개이상 사찰명 인쇄)


앞면 뒷면① 뒷면②

◆ 황금목탁 핸드폰줄
(24K 도금)
신제품



◆ 봉축 버튼



◆ 부채



◆ 자외선차단 썬캡
색상 : 빨강, 청색



◆ 아동모자
색상 : 빨강, 노랑, 청색



◆ 성인모자
색상 : 청색, 녹색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 감로기획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대행스님

이 마음의 도리를 진짜로 믿고 행할 수 있어야

사계절 없는 봄의 마음이 되려면

문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나와 상대를 나누고 내 탓과 남의 탓을 끊임없이 해 가면서 나라는 관념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험하다는 내용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자주 보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렁이는 감정의 용솟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님, 제 안에 용솟음치는 의식들을 조복 받아 사계절 없는 봄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닐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날씨가 따뜻해져 봄이 온 것을 보니 우리는 보이는 봄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마음의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칩이 되면 개구리 입이 떨어진다는데 여러분도 마음의 봄이 와야 입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눈도 뜨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천차만별의 이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보배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만한 그릇을 가져왔다 하면 나도 요만한 그릇의 설법밖엔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다를 가져왔다면 나도 역시 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고 먹어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골바로 관(觀)하라는 것밖에는, 기도가 아니라 관하라는 것밖에는 말을 할 수 없겠죠, 그게 제일 시급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기를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시쳇말로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새로 입력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릇은 항상 차지도 않고 비지도 않습니다. 들이고 내는 그 구멍밖에는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얘기했죠?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모습, 의식들이 다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주둔해 있다고요. 의식들이 말입니다.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이나 이 모든 인과가 다섯 가지가 주둔해 있는데, 그게 차례차례로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때부터,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하게,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하게 입력된 대로 나옵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팔자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너무도 좋은 공부여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너로부터 깨달아라."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어서 너를 깨달으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또,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도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마저도 공(空)해서 없는 줄을 알 수 있느니라. 그거를 알면 그대로 여여한 줄을 알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이 생활인데, 생활 속에서 '나는 중생이 돼서 모자란다. 얼마나 업이 많고 죄가 많아서 이럴까.' 하는 생각까지도 있어서는 아니 되죠. 물이 흘러갈 때에 나는 바람이 불어서 못 흘러간다, 파도가 쳐서 못 흘러간다, 구정물이 들어와서 못 흘러간다고 말합디까? 어떤 게 들어와도 대치하면서 가라앉히면서 여여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공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이 부처님의 법이자 생활이지 우리들의 생활이 없이, 못났든 잘났든 우리들이 없이 부처님 법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우리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삼세를 초월함이 있고, 우주가 있고, 천차만별의 만물이 있고, 끝없이 흘러 도는 이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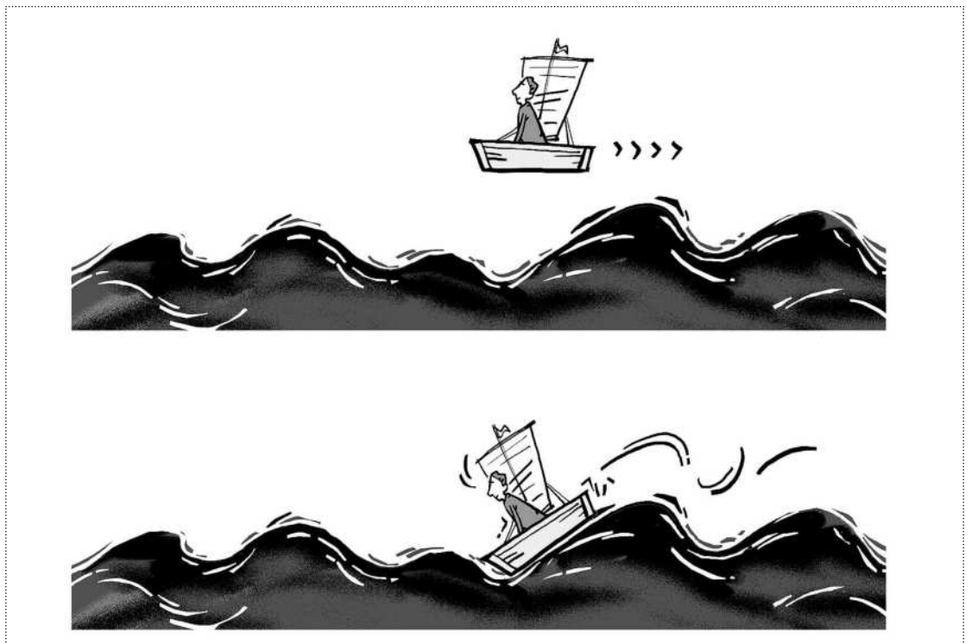
내 마음을 가지고도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육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한 치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누적이 돼서, 집착에 누적되고 욕심에 누적이 되고, 바깥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끄달리거나 안에서 해 오던 습성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한 다리로 절름발이로 걷게 되고, 애꾸눈이 되고 그러는 거죠, 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발 한 짝은 무(無)의 세계에 두고, 한 짝만 신고 나왔어요. 그 신발 한 짝을 내가 마저 신을 줄 알아야,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용무를 스스로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즉, 평등공법(平等空法)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려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일거수일투족,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도 붙지 않는다 이랬죠. 종자를 심으면 뿌리로 화(化)하고 뿌리로 화해서 싹을 형성시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그 싹은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싹과 뿌리가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나가 상봉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지금 그 싹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내 마음을 증득해서, 즉 말하자면 정신적인 과학, 정신적인 생활, 정신적인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됨으로써, 전체가 화합 단결되고 또는 경제난에도 허덕이지 않을 거고 우리 지구가 수명이 짧아도 또 재료를 다 끌어 잡아 당겨서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미묘한 광대무변한 법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해성사를 할 때도 내가 잘못해 놓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은 순간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워지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데 그게 지워지나요? 그러니 우주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또는 인간살이가 전간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재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전력이 나오지 않듯이, 인간에게는 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 다섯 가지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굴리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그것을 일러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걸 시쳇말로 한다면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 레이더망.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굴리는 데는 나를 발견해서, 나를 발견해 가지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검토하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실험하고 공부하는 데서 다 알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살아서 숨쉬고 움죽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그 실상을 다 알아보는 것이 진짜 화두입니다!

만이 자기를 잘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의심을 갖지 말고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코 믿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제행무상이고 제법무아라면…

문 불교의 사상 중에 '공' 사상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제행무상과 제법무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세상에 항상 있는 법은 없는 것이라면 부처님 법도 그렇지 않을까요?

답 그것은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니 무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왜? 공했기 때문입니다. 공한 것도 공했는데 그런 언어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한마음을 낼 때는 이 천백억 화신이 털구멍을 통해서 좔나좔나 나고 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영령이라고 그러죠. 영혼, 영령 뭐, 별 소릴 다 합니다마는 그것이 수천 수만 개라도 한생각에 될 수가 있는 거고 한생각에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 없고요, 단하나,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부터 알고 믿고 거기부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는데, 구태여 내가 어느 사람한테 전가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또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알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잘못하는 일을 미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인간이라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진실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진짜로 행할 수만 있다면 첫째, 내 몸 안에 들어 있는 그 모든 수십억 마리의 의식 자체가 한 마음으로 리드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둘째,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조화를 이루고 편안하고 또는 들이고 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걸림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모든 세상, 즉 말하자면 내 나라를 구원받게 할 수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내 몸과 같은 지구를 수명을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수화풍의 물질로써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서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진화가 됐습니다. 제일 나중에 된 겁니다. 인간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재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전력이 나오지 않듯이, 인간에게는 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 다섯 가지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굴리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그것을 일러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걸 시쳇말로 한다면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 레이더망.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굴리는 데는 나를 발견해서, 나를 발견해 가지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검토하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실험하고 공부하는 데서 다 알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두 공부에 대해서

문 저는 몇 가지 종교에 대해 책도 보고 조금씩 다녀도 보았습니다. 선원은 『삶은 고가 아니다』『생활 속의 불법수행』『한마음요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푹 놓고 가자'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해 보니 정신 건강에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선사들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화두 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 권의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선원에서는 왜 화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예요.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거기에다가 또 남의 화두까지 받아 가지고 '이게 뭣고?' 하고만 있으면서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 년, 백 년을 가도 지금 시대에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왜냐. 전자에는 그게 씨가 먹혔지만 지금은 모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또 지리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것이 전체, 머리에 알음알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먹히질 않습니다. 밥 한 그릇 남이 준 거를 들고 '이 뭣고?' 하고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공했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그거를 들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느냐 이겁니다.

또 좌선을 할 때는 내 안으로 관한다면 그게 같이 들리지만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모든 소용돌이가 찰나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혹성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는데,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루 8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한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좌선을 할 때에 관하라니까 화두를 들고 그것이 끊어질까 봐 애를 쓰면서 '이게 뭣고?' 하는 게 관하는 건 줄 안다 이 소리죠. 새 물이 들어오면서 헌 물은 배출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있다면 그 썩은 물을 그냥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죠. 선지식들이 '위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다보지도 말고 코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거늘,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봐라. 그리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바로 중도에서, 중용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남의 소리나 듣고 그럽니다.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되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말겨 놓으라는 것이죠. 아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밀스럽고 이렇게 묘한 이 도리를,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모른 채 그냥 가실 순 없겠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똥통 안의 구더기처럼 기어 나오려고 발버둥이 쳤다가 뚝 떨어지고, 발버둥이 쳐서 나올 만하고 살 만하면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독 안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기 몸 안에서 벗어나야 하고 구더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중대중 산다면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도리를 깨닫고 알아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른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할 것이 없어요. 뭐든지 그대로 참,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발심을 가지고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진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뭐 있느냐, 주인공도 세우지 말고 무(無)도 세우지 말라 이러지마는 여러분이 무(無)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래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주인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인 그 이름 없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화두를 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마저도 이름이 없는데 말입니다. 살아서 숨쉬고 움죽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그 실상을 다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화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0면으로 계속

자기 뿌리 의심 말고 진정코 믿고 들어가야

☞29면에서 계속

다가오는 시련에 숨이 막혀요

문 끊임없는 숙제가 물밀듯 밀려듭니다.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공부의 재료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속아 넘어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가오는 시련에 숨이 막혀 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알기에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피해서 도망갈 데도 본시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한발 한발 떼어 놓고 있습니다. 경계에 속지 않고 마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답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러분이 등에 잔뜩 무거운 걸 짊어지고 급해서 제게 오시면요, 급해서 죽겠는데 무슨 공부냐 이럽니다.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짊어지고 지금 안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짊어진 것부터 내려놔야 숨이 막히도록 다가오는 그것이 다 녹아버린다 이겁니다. 주인공이라는 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부터 해야 하니깐, 자꾸 그 자리를 쥐고 나가면 봄이 와서 스스로 눈이 녹고 얼음이 녹듯이 슬슬 녹아버려서 그냥 줄줄줄 눈물이 비오듯 하면서 자기 자성(自性)의 발로(發露)가, 그때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상이 급해서 안고 가는 모든 것이 스스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앞에 닥치는 것만 급해서 야단들을 하시는데 뒤의 것부터, 짊어지고 나온 것부터 녹이면서 가다 보면 뒤에 짊어진 것이 무쪽같이 뭉청뭉청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차츰차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한꺼번에 몰락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는 것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고난 있는 걸 '아이구, 감사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감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 붙들고 나가니까 너무나 잘되고 좋습니다." 하다가 "아이구, 요새는 아주 캄캄하고 막혀서 영 안됩니다." 이럽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되다가 안되는 그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잘되기만 하면 그건 공부가 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양으로 노력을 하고, 안되는 것도 법인 줄 알아야 '아, 안되는 것도 여기서 나를 다져서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할 때에 그건 없어집니다.

그러한 단계가 없으면서도 있듯이, 여러분이 어떤 희의를 느끼지 마시고 그저 홀떡홀떡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에 지금 심령학을 하는 사람도 물질로만 나가고 또는 소소한 무슨 잠재의식 가지고 이러고 그러는데,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한 것대로 각본대로 감겨 있는 겁니다. 감겨 있는 걸 지금 우리는 송두리째 그냥 녹이는 겁니다. 요리를 해서 우리가 맛을 보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맛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인공' 하면 벌써 전체를, 이걸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릇을 말입니다, 그릇을 시장에 가서 사 왔는데 크고 작은 게 같이 들어 있는 한 세트를 사 왔습니다. 그 한 세트의 그릇은 우주 삼라만상의 전체 세트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게 크고 작고 아주 조르라니 한 세트거든요. 그러면 내가 용도대로, 즉 말하자면 많은 걸 담으려면 큰 그릇을 꺼내야 하고, 적은 걸 담으려면 조그마한 그릇을 꺼내야 하고 그러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 하면 한 세트이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빼 쓰는 거는 각자 용도대로 빼 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들이고 내는 그 한구멍밖에는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쥐고 잘나잘나 돌아가면서 쓸 씀이에 의해서 용도대로 써라 하는 것은 용(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근본의 축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쥐고서 하나하나 나투면서, 자기가 큰 거든 작은 거든 즉, 우주의 섭리든 몸의 섭리든, 몸의 병고든지 업보든지, 죽어서 좋은 데로 갈 거를 생각하든지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놔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기가 얼마나 더 잘 압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스스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구,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면서 안되는 게 너무 많고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안되는 겁니다, 정말. 되는 것 안되는 걸 다 놓은 사이가 아까 한 세트라는 얘깁니다. 되는 것도 놓고 안되는 것도 놔라 하는 거는 그 되는 것 안되는 것, 죽는 것 사는 것을 거기다 한데 합쳐서 내가 한 세트로 묶어서 모든 것을 근기 있게 축으로 가졌을 때, 그것은 자기 용도대로 다 꺼내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빼서 쓸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걸 갖지 않고는, 그걸 계발 안 하고는, 용(用)의 숙달이 되지 않고는 도무지 안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람도 생명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날름 집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그냥 날름 집어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라면,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면, 그 용(用) 쓰는 거와 나와 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또 그뿐입니까? 어떤 혹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병고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도 그렇고 한쪽에만 퍼지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모습 없는 모습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가실 수 없다면 가정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사회를 끌고 가며, 국가를 끌고 가며, 통일을 바라보며, 어떻게 세계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를 조절 못한다면 우주를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이 한 점에, 한 점도 내놓을 수 없는 한 점 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도 고차원적이라고 하지만 고차원적도 아니고 고차원적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섭리가 그대로 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金)이 돼도, 빛을 내서 금빛으로 하여금 수천수만 개로 남들한테 전부 배부돼야 되고 전부 내가 돼야 되는데, 금으로 나와 가지고도 산에서 금방 캐 놓은 금이란 말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그거는 빛이 안 났기 때문에 이자도 불지 않고, 금이 더 늘지도 않고, 빛도 안 나고, 광도 나질 않아서 그냥그냥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는 이치밖에 되질 않아요. 요다음에 또다시 태어난대도 좌천될지 올라갈지 덜할지 더할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쓰러져 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여여할 수 있고 묘법을 그대로 갖고 부처 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생각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살아오던 습을 녹이기 위해서, 녹이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에다 되놔라 이런 소립니다. 여러분이 각본대로 나오는, 팔자 운명대로 나오는, 죄업대로 나오는, 유전성대로 나오는 거기에다가 되놓을 때엔 말 못하는 사람, 귀로 못 듣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마는 서서히 풀려 돌아가죠. 여러분이 그렇게 진심으로써 할 때에 진신사리(眞身舍利)라고 하는 그 결정체의 참뜻을 우리 스스로가 실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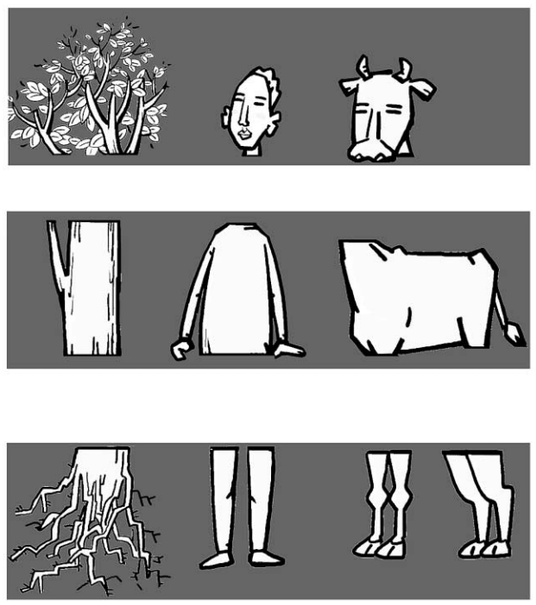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탈종공고

● 사찰명 : 오덕사
● 주 지 : 법성(이명원)
● 주 소 :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산 813번지

위 사찰과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위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전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수덕사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28-6
● 대 표 : 한병창

위 사찰과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위에 탈종을 알립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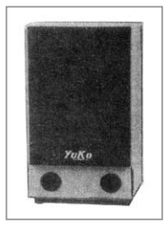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법사의 꿈을 키우며 (상)

김한중 (교도소 재소자)



그림 · 문병성

"진실이 담기지 않은 겉치레 말은 그럴듯 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죽은 씨앗과 같아서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리고 인생이란 '응애' 하고 고성을 울리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예고된 죽음을 선고받는 것이다.

재산 · 권력 · 명예라는 것은 본래가 실체가 없어서 허망한데, 찰나동안 살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서로 탐욕을 부려 재산과 권력을 탐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 탄탄한 사업체 자신감 가득
'아상'의 작은 불씨 다스리지 못해 살인
아내 헌신에 자책 · 원망은 부끄러움으로

28년 전 한 사찰의 불교청년회에 들어가면서 부처님 법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을 때, 어느 스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법문입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하여 부처님 법에 귀의하겠다며 계를 받을 때는, 나름대로 원을 세워 공부를 했었습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세욕에 눈이 멀어 사는게 급급하다는 이유로 정기 법회에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현실주의적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의미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았지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놓치고 사는 것은 없나?' 며칠 고민 끝에, 내 무릎을 탁 치게 한 것은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 들었던 스님의 법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실체가 없어 허망한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는 말씀이었지요.

그 말을 되새기니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짐에 또 다짐을 했지요. 법회와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법회에 참석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부처님 법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에서 '날카로운 첫 키스에 눈이 멀었다' 며 주옥같은 시를 썼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만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얼굴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1년 넘게 연애기간을 갖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나는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중심사 큰스님을 모시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그 때, 주례를 섰던 스님의 말씀이 아직도 나의 머릿속에서 생생합니다.

"우리네 인생 한 철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평등한 마음으로, 또 웃음으로 매사를 내 탓으로 돌리며 넓은 아량과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 잘 선택해야 해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뜻이 담긴 글도 써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철 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언제 다시 와서 실현할 수 있을까. 도저히 기약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운 인연에 의해 어렵게 부부가 됐으니 열심히 살아 보자고.

큰스님의 높으신 공덕이었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이 태어났고, 그 형제를 키우면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지만, 알뜰히 운영하면서 스스로 남부럽지 않은 사업체라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이 크면 탈이 난다고 했던가요? 불자로서 이미 그 때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법회 날이면,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아내 혼자 보내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희로애락이 뒤엉킨 생활 속에서 '내가 최고다' 는 아만심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소한 말에도 신경질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불만투성이로 변해 버렸고, 모두가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는 '아상' 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존귀한 한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하고만 겁니다. 순간의 실수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이후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형이었습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출소하는 그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아내는 자식과 가정을 버리지 않을까?'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나의 죄를 참회하기 보다는 나를 구속시킨 사회를 원망하는 마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교도소 안은 나의 마음과 몸을 옭아 맺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분노와 자책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미안함 마음이 앞서 면회장에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몇 분을 고민했을까요? 반쯤 내 마음을 접고 면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 희뿌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내와 마주했지요. 나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을 보이기 싫어 아내의 눈을 연신 피했습니다. 1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내는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의 세월이 길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길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처럼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행하셨던 수행 기간을 생각하면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거예요. 옛날 청년시절 오계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봐요. 연비 자국을 보면서 나도 이제 진정한 불제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부처님의 정법의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겠다고요."

아내는 그렇게 생긋 웃음 지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책과 분노, 원망과 후회…. 그동안 가졌던 마음자리가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돌아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불제자가 되겠다' 고, 그날의 약속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자리가 쉽게 흔들렸던 나를 올곧게 세웠지요.

그러고 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나보다 불심이 두터운 아내는 오늘도 뿌려놓은 가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직장생활에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나에게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입니다. 그런 모두가 나에게 내려주신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되지요.(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 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등 예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 각단예불 불공 : 상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음시식 구병시식, 장의편,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7~9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 등게, 삼귀의,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태징타법,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외..... 범음 · 범패
2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통범음) 시련재, 대령재, 관욕재 옹호게 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및 시식 상보통청, 지장청, 시식회향	법주, 바라지 관욕바라, 화의재 바라 향수니열(범음) 사다라니 바라 운심게, 가지게 (범음) 화청, 축원화청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 법고 공덕게 (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수시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8.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목조건축



◆ 현대식건축 목조 + 빔
● 제일 튼튼한집 150년이상 보장
● 제일 저렴한 한옥집 평당 200만원대

◆ 목조건축
● 육송,낙송,수입목 다량보유
● 타사 건축업체와 견적서를 받아보셨읍니까?
● 목조건축을 350만원대에 시공합니다.
나무 시세에 따라 변동될수 있읍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TEL 043)848-5311, 3
H·P 010-6399-5311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백제불교 전래 첫 절 … 비자나무숲 일품



국내산 느티나무의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자연미가 살아있는 불갑사 일주문.



노루귀, 변산바람꽃, 중의무릇(위부터).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7) 영광 불갑산 불갑사

중창 불사에 도립공원 개발공사 겹쳐 안팎 어수선
Y자형 느티나무 일주문 나뭇결의 오묘한 극치 자랑
꽃무릇 군락 위세에 경내외 다양한 초본류 사라져

불갑산은 따뜻한 남도의 산이다. 호남정맥의 큰 산인 내장산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 하나가 남진해 내려오면서 방장산(733m)-문수산(620m)-고성산(546m)-태청산(593m)을 세운 뒤에 서해 바다가 굽어보이는 곳에 솟구친 산이다. 높이는 516m에 불과하지만, 작은 몸집에 비해 역사의 무게와 생태적 넓이를 가진 산이다.

불갑산 불갑사(佛甲寺)는 백제불교의 초전법륜지로 알려져 있다. 백제 침류왕 때 인도스님 마라난타가 서해를 건너와 불교를 전하고 한산(지금의 서울)에다 절을 짓고 10명을 출가시켰다. 그 후, 자신이 첫 발을 내디딘 바닷가 가까운 곳에다 절을 세우고 '불교 전래 첫 절'이라는 의미로 '불갑사'를 창건했다고 후인들은 전한다.

요즘 불갑사는 중창 불사가 한창이다. 불사는 조선 중기인 1741년에 기록된 사적기를 근거로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불갑사 주차장에 내리면 두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가 서 있다. 지금은 사람들의 눈길도 받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불갑사의 중창주인 각진국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역사 속의 노거수이다. 그 중 큰 나무는 자연석으로 된 널찍한 젯상까지 놓고 오랜 동안 마을 당목으로 모셔왔는데, 지금도 금줄이 쳐져 있다.

그러나, 주변이 주차장과 도로로 개발되는 바람에 생육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목신(木神)에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니다.

근래 세운 불갑사 일주문은 보기 드문 눈맛을 보여준다. 요즘 일주문 불사는 대개 미국산 수입목을 쓰지만, 불갑사 일주문은 우리 땅에서 자란 느티나무로 기둥을 세웠다는 점에서 한번 더 바라보게 된다. 자연성을 그대로 살린 Y자형 느티나무 2개는 우람한 몸집도 그렇거니와 표면에 나타난 나뭇결이 오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사천왕상은 국내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상으로, 제작 연대는 조선 중기로 알려져 있고, 재질은 은행나무라고 한다. 은행나무는 '화두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불을 먹는 나무' 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은행나무는 불에 강한 성질이 있어서 불이 나면 줄기에서 물을 뿜어 불을 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살아있는 은행나무 이야기이다.

보물 제380호인 대웅전은 다포를 놓은 팔작집으로, 앞면의 꽃살문이 화려하다. 단청을 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고색은 없지만, 까치가 조각했다는 전설은 사뭇 애절하다. 대웅전의 또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좌우 옆면에 토벽이나 판벽이 아닌, 문창호를 낸 것이다. 삼존불 좌우 기둥에 두 마리 쥐가 조각되어 있다. 밤낮을 상징하는 흰쥐와 검은 쥐는 세월은 유수와 같으니 쉼없이 정진하라는 의미이다.



꽃무릇 군락.



비자나무 치수.

불갑산은 우리나라 식물생태에 있어서는 의미가 큰 산이다. 난대림과 온대림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식나무와 같은 일부 난대수종이 이 산에 이르러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북한계 숲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경내를 나오면 저수지와 동백골을 지나 해불암으로 가는 산행로가 나 있다. 굳이 산중을 헤집고 다니지 않아도 이 산행로 주변에서 다양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총 52과 186종이나 되는 나무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참식나무와 비자나무 등이 특징적으로 손꼽힌다.

참식나무 군락은 불갑사 뒷산과 덫고개 계곡에 있다. 불갑산의 참식나무가 특별한 것은 이곳이 북한계이기 때문이다.

즉, 섬을 제외하고는 불갑사 위쪽으로는 자생하는 참식나무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불갑사 참식나무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 있다.

신라 때 법명이 경운이란 스님이 인도에 유학하고 있었다. 스님의 출중한 인물과 학덕에 반한 인도 공주가 짝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왕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자, 공주는 귀국하는 스님에게 내세의 인연을 기약하는 증표로 참식나무를 주었는데, 스님이 가지고 와서 절 주위에 심은 것이 퍼져 오늘날의 숲이 되었다 한다.

비자나무 역시 따뜻한 해풍을 좋아하는 난대성 나무이다. 절집에서는 백양사 비자나무숲이 유명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생태적 가치로는 그곳의 비자나무 숲 못지않다. 그것은 백양사의 숲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데 비해 이곳의 비자나무 숲은 자생 숲이기 때문이다.

생태학자들이 불갑산의 비자나무를 주목하는 이유는 씨앗이 떨어져 자연 발아한 어린 비자나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낙엽활엽수와 경쟁을 하며 후계림으로 성장해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천연 비자림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무환자(無患子)나무는 군락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불갑사 주위에 스님들이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그루의 무환자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인도에서는 무환자나무의 속껍질에 표면활성제가 들어 있어서 세제(洗劑)로 사용되었고, 중국에서는 도교(道敎) 사람들이 무환자나무 열매에 벽사의 힘이 있다고 즐겨 심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무환자나무의 까만 열매로 염주를 꿰면서 불교의 나무가 되었다.

불갑사는 바다가 가까워서 같은 위도 상에 있는 내륙의 어느 절보다 봄이 이르다. 봄이 이른 만큼 꽃들도 앞서 핀다. 눈 속에 피는 변산바람꽃, 노루귀, 중의무릇, 복수초 등을 비롯해 보춘화, 남산제비꽃,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 현호색, 산자고, 고깔제비, 왜제비, 털괭이눈 등이 이른 봄부터 꽃을 피워낸다.

인간의 간섭지대인 경내에는 광대나물, 흰민들레, 주름치마, 냉이꽃, 꽃다지 등이 주종을 이루며 꽃을 피우고 있다. 불갑사의 꽃을 이야기하면서 꽃무릇을 빼놓을 수는 없다. 불갑사는 고창 선운사와 함께 꽃무릇으로 소문난 절집이다.

석산이라고도 하는 꽃무릇은 금어(金漁) 스님들이 탱화를 그릴 때 뿌리를 찧어서 탱화 겉에 바르면 색깔이 바래지 않는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사찰 주변에 많이 심었다.

꽃무릇은 불갑사 경내외는 물론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주변 곳곳에도 엄청난 면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당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몇 해에 걸쳐 폭력적(?)으로 심은 까닭이다. 그 바람에 불갑사 경내외 숲자락에 다양했던 초본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불갑사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절 입구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버린 드넓은 주차장과 벽돌 블록으로 바뀐 넓은 진입로, 자연성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돌린 개울물, 그리고 드넓은 잔디와 함부로 심어진 외래수종…. 마치 시민공원처럼 반(反)생태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